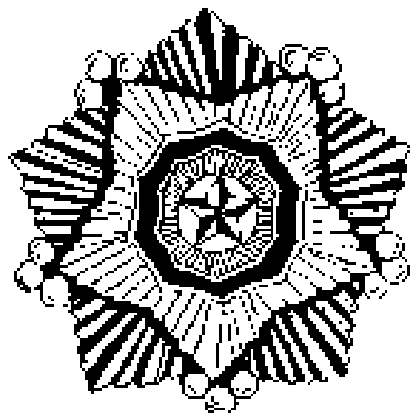


5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5호

(루계 제727호)

차 례

동강의 첫 기슭에서	3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4
검은금아!	4
세기의 언덕넘어 더 높이 메아리치는 삼일포의 총소리	5
가장 참된 친위전사의 노래 — 《떠나는 마음》을 두고	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9
봄은 가을을 부른다	9
금반지	10
아버지의 군공메달	11
내 고향 금산리	12
우리 혁명의 건군사에 바쳐진 불멸의 화폭	13
평양은 어머님사랑이였네	17
어머님 우리러 따라서는 길	18
진달래	19
다시 만난 견우와 직녀	21
《다시 만납시다!》	23

출근길	25
직선주로	26
전력공의 목소리 (외1편)	29
《명의사》	29
나의 어깨	29
《조국을 위하여!》	30
쇠물의 노래	31
아버지의 당부	31
성장의 법칙	32
경구, 격언	39
여운이 남는 시구들	40
큰아버지	41
주체문학의 대강	42
철의 도시 밤	42
나의 아버지	43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와 민족적기질	54
처제와 쏘냐의 초상묘사	57
숲에 깃든 녀	58
결과, 뜻밖의 일	68
대지의 눈	69
토스레웃	77
경기장의 예쁜이들	77
이채로운 세부형상	78
유스프 앓 시바이와 장편소설 《위선의 땅》에 대하여	79

동강의 첫 기슭에서

장명길

배를 갈라 선의에 호소도 해보았고
침략의 피수들을 징벌도 해보았다
망국의 치욕을 씻는 길
의로운이들 찾고찾았건만
그 어디에서도 길은 열리지 않았다

작은 힘으로는 끊을수 없는
철사결점
노예의 사슬에 얽매인 겨레
단결만이 살길이였어도
온 민족이 단결하는 길
그 누구도 찾아주지 못했거니

설음속에 방황하던 겨레의 넋이
진리의 기슭을 찾은 날이었다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르며
하나의 애국으로 발을 맞춘 날이었다

동강의 밀림에서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날
쓰라린 실패와 좌절의 력사우에
참다운 서광의 빛이 뿌려진 그날은

서로의 리념과 주장을 앞세우던
비좁은 울타리를 터쳐준
크나큰 애국의 손길이였나니
온 민족의 숙원을 자자구구 담아
수령님 펼치신 단결의 강령은

사선의 고비고비 혈전장에서
결사의 행군길 이어오신 영웅
초연이 스민 그이 군복자락엔
겨레위한 참다운 사랑이 있었고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는
바다같은 포용력과 봄날같은 정이 있었나니

어둡던 가슴마다 해빛을 안고
재생의 환희와 희망을 안고
그날의 투사들 백두광야에
붉은기높이 휘날려갈 때
오 그것은 민족의 태양을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신
승리자의 장엄한 흐름이었다

해방의 기쁨을 이 땅에 안아왔고
전승의 기적도 안아온 그 흐름
세월은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력사의 그 진리
변함없이 흐르고 또 흐르나니

정녕 바라는 모든 소원 다 이루어주고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는
고귀한 단결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어라
조선의 창창 밝은 길만 열어준
민족대단결의 성스러운 력사를
우리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였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95(2006)년 9월, 세번째로 구성닭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이다.

전경도를 바라보시며 현대화정형을 료해하시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윽하여 구성시민들에 대한 닭고기공급사업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공장에서는 생산량의 절대다수는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일부는 몇몇 중요단위들에 보내주고있었다.

이런 실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중요단위들에 따로 공급한다는것이 무슨 말인가고 하시며 구성닭공장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여기로 오면서 보니 국수집들이 모두 조용한데 이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국수집을 잘 운영할수 있지 않는가고, 그러면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언제인가 강계에 가보니 닭내포국집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성시에서도 닭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국수집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구성닭공장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이민위전》**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여기시고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길이었다.

검은금아!

김 령

검은금아!

네 이름 부르면

우리 수령님이 생각나고

수령님생각에 목메일 때면

불덩이같이 네 이름, 네 이름이

탄부, 이 가슴 달구어주는구나

십년만 젊으셨으면

탄부가 되고싶다고 하시였다

십년만 젊으셨으면

우리들과 함께 막장에서

검은금, 너를 캐고싶다고 하시였다

너를 귀해하신 마음이

수수억년 버려돌마냥 차가웁던

네 이름에 불을 달아주시였느냐

두더지처럼 묻히였던 탄부의 이름을

너의 이름과 함께 빛내시였느냐

한갓 땅속의 보화래서

지으신 이름만이 아니구나

이 땅의 하많은 일감들중엔

네 그리도 필요해서만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구나

검은금아!

네 태어난 날은

땀과 피에 짓이겨진 잔등엔

석탄질통을 올려놓고

죽음의 마구리를 네굽으로 기여야 했던

나의 할아버지

우리 수령님이 고마워

난생처음 너를 두손에 받쳐들고

울음을 터친 날이었다

그 눈물범벅이 된 두손을

꼭 모아잡으시고

우리 수령님

나라의 장한 아들이라고

조국의 큰집을 메워주신 날이었다

그렇게 올라섰구나

탄부! 그 이름은

수령님 지어주신 검은금의 눈부신 빛우에

이 세상 가장 높은

궁지의 령마루우에

검은금아

네 이름 부르면

수령님생각이 절로 나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

선군조국의 큰집을 다시 한번 자각한다

아, 탄은 발밑에 있어도

검은금은 탄부의 머리우에서 빛난다

세기의 언덕넘어 더 높이 메아리치는 삼일포의 총소리

조선화

삼일포!

조용히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가슴뜨거워지고 다함없는 흙모의 정으로 마음 설레이게 되는 뜻깊은 삼일포!

거기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명사수의 총성을 올리신것은 언제였던가.

반세기도 켜 더 지나갔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한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그날의 총성을 어찌 지울수 있으랴.

언제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못 잊어하고 언제나 어머니의 숭고한 영상을 마음에 안고사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담아 노래가 울린다.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오늘 선군조선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노래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작사 전병구, 작곡 허금중)를 들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어머니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이 노래를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에 맞게 새롭게 형상하여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흙모와 고마움으로 끓어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약동하는 오늘의 현실과 새 세대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다시 형상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높은 뜻과 고귀한 념원을 내 조국의 영원한 숨결로 힘차게 고동치게 하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웅지와 신념이 그대로 노래의 박자가 되고 리듬이 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속에 세찬 박동을 일으키고 있다.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는데
항일의 녀전사 여기에 오셨네
못 잊을 그날에 올리신 총소리
오늘도 울려가네 하늘가 저 멀리

가요는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인 주체 36(1947)년 9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삼일포에 오시여 명사수의 사격숨씨를 보여주신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창작되었다.

그러나 가요는 어제날에 대한 추억의 세계를 펼치는데로만 지향되지 않았다.

가요는 1절에서 《못 잊을 그날에 올리신 총소리》가 오늘도 하늘가 저 멀리로 울려간다고 함으

로써 주제사상적과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하고있다.

그날에 어머니께서 올리신 총소리가 오늘도 울려간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기본문제점이 있다.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울린 삼일포의 총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속에 것처럼 뜨겁게 새겨지고 세기의 언덕넘어 더 힘찬 메아리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
푸르른 물결우에 정답게 비꼈네
못 잊을 그날의 삼일포총소리
총성의 메아리로 우리를 부르네

못 잊을 그날의 삼일포총소리는 다름아닌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올리신 총성이 다.

그 총소리가 오늘 《총성의 메아리로 우리를 부》른다.

그것은 바로 총대를 틀어쥐고 수령을 보위하며 총대를 틀어쥐고 혁명도 건설도 해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습니다.》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있으며 조국의 통성번영도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시고 력사에 의하여 그 진리성이 확증된 주체의 혁명원리이며 혁명의 법칙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로선을 받들어 총대를 틀어쥐고 무장대오에 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총은 곧 벗이였고 더없이 귀중한 혁명동지였으며 절대로 떼어놓을수 없는 한생의 무기였다.

그것은 총이 수령을 보위하고 혁명을 보위하고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보검이기때문이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명사수의 사격술을 익히시였다.

어머님의 사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헛방을 물렸다.

대사하치기의 언덕과 흥기하와 해방산기슭...

항일의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어머니께서 찍고 찍으신 력사의 자욱자욱이 그것을 다 말해주지 않는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삼일포의 그날에 아직 혁명의 갈길이 먼데 혁명전사의 사격숨씨가 변하면 되겠는가, 나라가 해방은 되었으나 저 남녘땅에는 미군놈들이 승냥이떼처럼 옥실거리고있다, 그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조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면 모든 사람들이 총을 잘 쏘아야 한나라는 내용으로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못 잇을 삼일포의 메아리는 어머니의 그 정신, 그 사상을 이어받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의 메아리》 수령결사옹위의 그 길에 참다운 인민의 행복도 강성번영의 래일도 있다는 신념의 목소리이다.

가요 2절에서는 이와 같이 어머니께서 그날에 올리신 삼일포총소리의 깊은 의미를 새겨줌으로써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오늘 새 세대들을 어떤 값높은 삶의 언덕으로 이끌어가고있는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시화하고있다.

3절에 가서 가요의 사상정서는 고도로 양양된다.

동백꽃 피어나는 남해의 기슭에
장군님 모시고 갈 그 념원 불타네
못 잇을 그날의 삼일포총소리
통일의 념원 담아 끝없이 울리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바라고 또 바라신 최대의 념원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동백꽃 피어나는 남해의 기슭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갈 뜨거운 마음—통일의 념원이었다.

그 념원을 안고 김정숙어머니께서는 해방후에도 손에서 총을 놓지 않으시고 불철주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시였으며 우리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자신께서 한생 종전 군인으로 사시였을뿐 아니라 총대혈통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어머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우리 장군님 펼치신 통일대강을 따라 이땅에는 바야흐로 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있으니 오늘도 끝없이 울리는 삼일포의 총소리는 얼마나 우리 가슴 뜨겁게 적셔주는가.

그렇다.

가요 《못 잇을 삼일포의 메아리》는 단순한 추억의 노래가 아니다.

가요에서는 승리에서 승리로 도도히 나가는 조선의 기상이 맥박치고있으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희망과 열정에 넘쳐 통일강성대국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숨결이 고동친다.

총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억세게 싸우라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인가.

노래는 끝났지만 메아리는 끝없이 끝없이 울린다.

총대철학, 총대중시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어머니께서 그날에 올리신 총소리는 오늘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수령결사옹위의 신념, 계속혁명의 진리를 새겨주며 끝없이 메아리친다는것을 밝힌 여기에 가요의 심오한 철학성이 있으며 예술적일반화의 깊이가 있다.

작품은 후렴없는 3분절가요로서 구성을 짜이게 조직하였다.

가요는 절구성에서 시간상 순차성이나 사건적 순차성에 따라 절을 구획짓는 일반적인 도식을 따르지 않았다.

매개 절은 두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었는바 첫 부분은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생각하고 래일을 그려보는 식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둘째 부분은 어머니께서 올리신 총소리의 의미를 점차적으로 심화시켜 새겨주는 방식으로 취함으로써 사상감정을 일관한 상승양상으로 이끌어갈수 있게 되었다.

작품은 또한 형상과제를 집약화하고있는 표현인 못 잇을 그날의 《총소리》를 매 련에서 반복하여 씬으로써 작품의 사상적대를 뚜렷이 하였으며 소박하고 부드러운 정다운 감정을 자아내는 시어와 표현으로 밝고 량만에 넘친 정서적색채를 살렸다.

총대로 원썬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도 핵사찰소동도 다 짓부셔버리고 총대로 자주와 존엄을 지켰으며 총대로 강성대국의 렬명을 맞이한 력사적전환기에 가요 《못 잇을 삼일포의 메아리》를 다시금 받아안고 선군정치의 위력,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심장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른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다 비껴담은 노래,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노래 《못 잇을 삼일포의 메아리》!

더 높이 메아리치라, 새 세기의 힘찬 진군길우에.

못 잇을 삼일포의 메아리, 력사의 메아리여!

가장 참된 친위전사의 노래 — 《떠나는 마음》을 두고

리근세

일편단심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친위전사에게는 가장 정화된 마음속 진정을 터치는 노래가 있다.

이런 노래는 짧은 가락에 능히 노래의 주인공의 사상과 신념의 전부와 그의 온 한생을 다 담으며 절절한 울림으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들은 자기가 체험한 생활감정기운에서 오직 정수적인것만 담아야 하며 그것을 함축된 시어로 간결하게 형상해내야 한다.》

노래 《떠나는 마음》(작사 백인준, 작곡 리학범)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와 충실성의 사상감정을 정화된 서정세계속에서 절절하게 노래한 성과작이다.

그지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김정숙어머님의 마음속 진정이 형상전반에 차고넘쳐 《아—》하고 온 누리에 끝없이 울려가며 뜨거운 걱정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뜨거운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마음속 진정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충실성의 사상감정의 정수와 일치된다.

노래의 절절한 울림은 바로 이러한 사상감정의 정수에 근원을 두고있다.

이내 몸은 떠나가도 마음은 여기 남아
눈속에도 꽃피우며 장군님 모셔가리
아 장군님 모셔가리

가사는 1절에서 몸은 비록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곁을 떠나도 마음은 늘 장군님의 곁에서 지성을 다해 모셔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심정을 깊은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바로 《눈속에도 꽃피우며 장군님 모셔가리》이 구절속에 김정숙어머님께서만 간직하신 뜨거운 흠모의 진정을 담았으며 장군님의 친위전사가 지녀야 할 지극한 충실성의 사상감정을 집중적으로 체현시켰다.

눈보라 몰아치는 사나운 겨울날씨에 젖은 옷을 품안에 지녀안고 가장 정가롭고 후더운 진정을 기울이시던 친위전사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다른 누구도 생각할수도 없고 해보지도 못한 그런 모든 《일》을 웃으며 하시던, 오직 김정숙동지께서만이 그렇게 하실수 있는 극진한 충실성의 각오가 만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멀리로 메아리로 울려간다.

...

아 장군님 모셔가리

《아 장군님 모셔가리》,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도 어머님처럼 모든것을 다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셔갈 스스로의 자각과 어머님께 삼가드리는 경의와 결의를 읽는다.

2절에서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어머님의 충실성의 사상감정을 더더욱 정화하여 노래의 서정적색을 밝히였다.

이내 몸은 어데 가도 마음은 그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가리 높은 산 깊은 밀림
...

《이내 몸》이 떠나가는 곳 그 어디여도 김정숙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었고 장군님을 높이 모시는 그 길에서 그 어떤 험난한 통과와 역경도 이겨내실 절절한 맹세와 신념이 자리잡고있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장군님과 함께 가리》—

수령님곁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삶의 존재와 가치를 생각지 않는 가장 충실한 친위전사의 가슴속에서만 우러나올수 있는 진정의 세계인 수령과의 일심일체! 바로 이것이다. 이는 친위전사의 최고의 지향이며 삶과 투쟁의 목적이다. 때문에 이 지향점을 찾아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이를 굳세인 신념으로 간직하고 강의한 의지를 발휘하여 그 신념을 지켜낸다.

항일의 그 나날 청봉밀림에서 혁명적신념을 지켜 굴함없이 싸우시던 어머님의 견결한 투쟁의 그 웨침이 가까이에서 들려온다.

그리고 도천리, 신흥과 연사... 수없이 많고많은 혁명활동전구들에서 울려오는 어머님의 진정한 메아리가 크게 울려온다.

가사의 3절에서는 날이 새면 떠나가야 하는 어머님의 심중의 세계와 오로지 장군님의 안녕만을 바라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참다운 충정의 열원을 소박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간밤 오래인 어둠속에서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며 굳혀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자연현상에도 간절한 당부와 진정을 엮으시는 무한한 열원을 낳았다.

이렇게 가사는 오직 김정숙어머님에게 고유한 생활감정의 정수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가장 진실하게, 절절하게 반영하였다.

여기에 바로 이 노래가 가장 참다운 친위전사의 노래로 되는 기본근거가 있다.

가장 참된 친위전사의 노래로 불리우는 가사의 성과는 심오한 철학세계의 탐구로 하여 보다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가사의 철학은 제명과 결부된 형상전반에 심어져 심오한 대비, 대조의 의미를 안고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이내 몸》은 떠나가도 《마음》은 눈속에도 꽃을 피우며 《장군님 모셔》갈 비상한 실천을 각오하며 또한 《이내 몸》은 어데 가도 《마음》은 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실 굳은 맹세를 신념으로 간직하시는 어머니의 심중의 세계!

이내 《몸》은 떠나가도 《마음은 여기 남아》, 이내 《몸》은 어데 가도 《마음》은 그 언제나 장군님을 높이 모시겠다는 가사의 철학세계.

가사에 형상된 철학은 떠나지만 떠날수 없는 친위전사의 마음을 노래함에 있어서 《몸》은 떠나도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는 리치를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떠나는 마음!

하많은 자연과 피로움이 습배여있는 친위전사의 떠나는 마음!

그 피로움을 안고는 도저히 떠날수 없기에 친위전사는 《눈속에도 꽃》을 피울 비상한 각오를 다졌고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투쟁의 전구를 과감히 헤쳐갈 억척의 신념을 마음속에 기둥으로 박아세웠으며 항상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싸워가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가사의 철학세계를 음미하면서 더욱 감명깊게 느껴지는것은 가사의 매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들에서 자기의 기본철학적지향을 확인하고 강조해주며 그에 화답하는 관중들과 독자들의 환성처럼, 새로운 맹세와 결의처럼 들려오는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창조한것이다.

가사의 매 절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3절에서의 후렴구는 1절과 2절에서 무한히 정화된 충실성의 사상감정이 한껏 격앙되었다가 분화구를 터치는 울림인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격정을 뿜이는 숭고한 미의 세계를 펼치고있다.

...

눈바람아 불지 말아 사령부창문가에
아 사령부창문가에

눈속에도 꽃을 피우고 언제나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만을 마음속에 높이 모시고 싸워가려는 절대적인 충성심은 이제 무심한 눈바람 한점갈피에도 열화같은 충정을 당부하는 폭넓은 형상을 낳았다.

《눈바람아 불지 말아 사령부창문가에》.

결국 사령부의 안녕, 장군님의 안녕을 위하는 길에 세상천지가 다 이바지되길 바라는 열화같은 흠모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정화를 가사에서는 마지막 절구에 가서 격조높이 터친것이다.

뿜어넘치는 걱정으로 충만된 어머니의 《아—》 그리고 수령의 전사, 천만의 감동에 겨운 《아—》가 일치되어 살아도 죽어도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마음과 지향이 합치되어야 할 그곳 《사령부창문가에》를 진정으로 합창한다.

아 사령부창문가에

이는 진정 오늘에도 정깊은 추억을 담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 천만군민이 드리는 맹세이고 결의이며 승업한 자각이다.

가사에서는 정화된 서정세계를 펼침에 있어서 짙은 서정구조와 운률을 통하여 이를 적극 보장하고있다.

이 가사의 서정구조는 독특한 짚임을 가지고있다.

1절과 2절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내면심중속에서 충정의 사상감정이 승화되는데로 지향되고있지만 3절에서는 심중의 대화가 아니라 자연과의 대화에로 서정전개의 폭을 넓히면서 사상감정을 승화시켰다.

마치도 뜨거운 충정의 용암이 끓고끓어 드디어 분화구를 터치며 장대하게 열광적으로 서정을 분출시키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서 서정의 용암은 정서적흐름을 따라 승화되었으며 친위전사의 충정이 마땅히 가닿아야 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분화구에서 분출되었다.

이 가사의 운률은 매우 정제되어있다.

매 절의 1,2행에서는 8,7조의 고정음수들을 보장하고 모든 절에서 일치시키고있으며 후렴구에서도 음수들을 통일시키고있다. 더우기 여기서 네 소리마디로 된 음절군을 부단히 반복리용한것은 가사의 음악적물동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것으로 된다.

이러한 제반 성과들은 가사 《떠나는 마음》을 명실공히 참된 친위전사의 노래로 되게 하였으며 어제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진정한 메아리를 온 누리에 가득히 울려가는 추억과 맹세, 결의의 노래로 만들었다.

이런 노래는 짧은 가락에 능히 노래의 주인공의 사상과 신념의 전부와 그의 온 한생을 다 담으며 세상이 이에 공명하는 독특한 울림을 낳는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1939년 봄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무산지구로 진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5호물동으로 강을 건넌습니다.》

《그 물동가에는 진달래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조국의 진달래를 보자 모두 환성을 질렀습니다.》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우리가 국내에서 진행한 군사작전들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보천보전투가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시위한 전투였다면 대흥단전투는 적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력량으로 자라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철추를 내리고있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준 력사적인 전투였습니다.》

봄은 가을을 부른다

김춘길

아득히 펼쳐진 드넓은 벌에
모내는기계의 발동소리 울리며
이해의 첫모를 낸다
푸르게 싱싱히 자라난 벼모를
고향벌에 낸다

한줌 흙도 살결같이 부드러운
써레질한 논판마다에
푸른 수채화를 물들여놓은듯
하늘과 땅이 그 푸름으로 맞붙은 벌
근로의 손으로 안아올 가을은
드바쁜 이 봄날에 다 어려있어

봄이 부르는 저 소리다
흥에 겨워 모내는기계 몰아가는
운전공총각의 휘파람소리
봄바람 타고 들려오는 그 휘파람소리에서도
가을이 온다
푸른 모춤 랑손에 꽃뭉음처럼 친
공급수처녀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서도
풍요한 가을은 마중해온다

쌀이 그렇듯 귀중하기에
이해에도 비약으로 부르는 우리 당의 목소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 마련해주려는

위대한 그 뜻을 앞장에서 실현하는
농장벌도 사회주의전초선

그 벌을 지켜 겨울에도 땅에 살며
언땅을 녹여 뿌린 씨앗은
랭상모판우에서만 자라지 않았다
언제나 가을만을 안고사는
농민의 마음에 뿌리를 박고
봄을 앞당겨 가을을 불러오거니

어영차 좋구나 또 한배미
저녁해 지기 전에 벌 한끝 채워야지
이 하루 바쳐진 성실한 자옥은
아득히 푸른 주단으로 펼쳐져있어
나라쌀독 책임진 궁지는
가슴마다 그득히 차넘친다

모를 낸다 모를 낸다
아득한 벌가득 거름 듬뿍낸
우리의 봄은 흐뭇한 가을을 보거니
알알이 영근 이삭 주렁진 풍성한 가을
이 봄의 대문 열고 벌써 들어선듯

아 선군으로 지킨 땅에
우리의 봄은 가을을 부른다

금반지

리근지

관리위원장이라 부르기보다도
농장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흰머리섞인 수수한 녀인이었습니다
다르다면 터갈린 투박한 손에
금반지가 빛나는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그 금반지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는
관리위원장의 목메인 눈물에
자주 끊어졌다가는
눈물속에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날 농장에 오신 장군님께서
흙물이 배여 꺼실꺼실한 손을 보실가봐
치마폭에 감싸기도 하고
등뒤로 감추기도 하였습니다

그 마음 어느새 아시였는지 장군님께서
이 손을 당겨 잡아주시며
세벌농사를 짓느라 얼마나 애썼으면
손이 이렇게 다 텃겠는가고
가슴이 아프시여 쓰다듬으시는
장군님의 음성은 갈리시였습니다

농사란 흙을 주무르는 일이기에
흙일에 터갈라진 그손을
장군님께서 다정히 쓰다듬어주셨습니다
부모들도 자식들도 그저 보아오던 손
장군님께서 귀히 여겨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지 않으면
어떤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겠는가고
손수 마디굵은 손가락도 만져보시고
태양의 빛을 다 모아
농군의 이 손에 끼워주자 하시였습니다

꿈을 꾸는것만 같은 사랑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 농장이 눈물에 젖고
들바람도 손을 불잡고 울었습니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첩첩한 산그늘에 깃들려
눈보라 문풍지 울리던 긴긴 겨울밤이면
화로불앞을 떠나지 못하던
몽당치마 어린시절

가난의 눈물에 절은 그 어린시절을
오늘은 우리 장군님 그토록 못 잊으시여
농장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셨으니
그 사랑 너무 가슴뜨거워
세벌농사 지으며 벌에서 살았습니다

잠투정 많은 자식을 달래듯
눈오는 새벽에도 벌에 두엄을 두툼히 덮어주었고
바람 불고 비가 내려도 달려가
밭뚝을 쌓고 새끼줄을 치며
이삭패는 강냉이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오직 장군님만을 생각하며
일년내내 들에서 살며
젖아기 키우듯 포기포기 가꾸었습니다
가뭄때면 달빛을 물길에 실어
이랑이랑에 대여주며 말뚝잠도 들었습니다

쌀로 내 나라를 받들러는
그 마음이 영글인 풍요한 세벌농사를
아버이장군님 아실줄 몰랐습니다
온 나라가 알게 내세워주시고
이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실줄 몰랐습니다

감격의 눈물 금반지에 떨어져
밝은 빛을 뿌릴 때 그것은
태양의 빛으로 온몸을 감싸주시는
장군님 사랑의 봄빛이었다고
그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녀인의 마디진 손을 뜨겁게 잡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수수한 녀인의 손에 빛나는것은
금처럼 변함없고 끝이 없는 반지처럼
장군님 안겨주신 영원한 삶이라고!...

아버지의 군공메달

최성희

봄이 왔다.

복숭아꽃, 살구꽃, 연분홍진달래... 온갖 꽃이 거리에도 산기슭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도 활짝 피어 웃고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는 어느해 봄날엔가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어제런듯 귀가에 쟁쟁히 울려와 저도 모르게 장동을 열고 아버지의 군공메달을 꺼내보곤 한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훈장들과 메달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만 보더라도 금빛으로 번쩍이는 영웅메달로부터 국기훈장, 로력훈장, 전사의 영예훈장... 등 수많은 훈장들과 메달들을 꼽아볼수 있다. 그 모든 훈장과 메달들중에서 군공메달은 어찌보면 평범하게도 느껴지는 소박한 훈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는 이 군공메달을 더없는家宝로 간직하고 대를 이어 전해가고있다.

아버지의 고향은 충청남도의 어느 한 농촌마을이었다. 일곱남매의 막내이로 태어난 아버지는 너무도 빈곤한 살림에 쪼들리다 못해 밥술이나 얻어먹을가 하여 먼 친척벌이 되는 자식없는 자작농의 집에 양아들로 들어갔다. 그러나 왜놈들의 등쌀에 나날이 몰락해가는 그 집에서도 남의 피를 받은 《자식》이 귀할리 없었다.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살길이 없어 여기저기 로동관으로 굴러다니다가 8.15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해방의 환희는 대양 건너온 양키들의 군화발에 또다시 무참히 짓밟히었다.

이 과정에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계만도 못하며 짓밟힌 민족의 청춘이 꽃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절감한 아버지는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는 북조선과 같은 세상을 세우기 위해 애국적 청년조직에 망라되어 투쟁하였다.

전쟁과 함께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인민군대를 맞이한 20대의 청춘이었던 아버지의 심장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다시는 노예로 살수 없다, 고향이며 내 기어이 원썬들을 무찌르고 너를 안아일으키리라.

용약 총을 들고 의용군에 입대한 아버지는 한목숨 다바쳐 원썬를 쳐부실 일념으로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해나갔다.

그러던 아버지에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행운이 차례졌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갯도진지를 굴설하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갯도진지굴설작업장을 찾아주셨던것이였다.

뜻밖의 영광에 어쩔바를 몰라하는 전사들의 돌가루 묻은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아버지의 착암모습을 친아버이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었다.

본때있게 해보려고 장한듯이 착암기를 가슴으로 내미는 아버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주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착암작업은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얼마 못한다고 하시면서 손수 착암기를 잡으시었다.

아버지가 당황하여 착암기가 어지럽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착암기는 이렇게 팔을 약간 구부려 펴서 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착암기를 가슴으로 밀지 말고 팔다리에 힘을 주면서 기술적으로 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착암기를 가슴으로 밀면 몸에 진동이 오고 더우기 가슴이 나빠질수 있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었다.

정대각도와 폭파구멍의 각도 등 중요하고도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돌가루가 뿜어나고 기름방울이 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착암기를 잡으신 아버지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아버지와 인민군전사들은 뚫어오르는 경로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알만 하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안타까이 간청을 드려서야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착암기를 넘겨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공병들이 전선에서 싸움도 잘하지만 갯도공사도 잘한다고, 총화를 잘 짓고 모범적인 군인들을 표창해야 하겠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승리한 그날 우리 조국땅에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자면 지금부터 기술을 잘 배워두는것이 좋다고, 전쟁이 끝나면 지하에도 궁전과 같은 구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자고 하시며 래일의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그후 수령님께서서는 별로 크지 않은 아버지의 공로를 평가하시어 아버지에게 군공메달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던것이다. ...

나는 눈곱에 넘쳐나는 뜨거운것을 훔치며 귀중한 군공메달을 쏘어보고 또 쏘어본다.

그러면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사롭고 넓으신 한품에 금시 나를 안아주시는것만 같다.

이것을 어찌 단순한 메달이라고만 하랴!

그것은 이름없는 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떠메고

나갈 앞날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며 이 세상 그 어느 부모의 사랑에도 비길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표적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에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그 군공메달을 품에 안고 한생을 값있게 보낸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전사에 대한 수령의 사랑과 믿음의 응결체인 군공메달은 힘과 열정을 낳는 원천이었다.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아버지뿐아니라 우리

온 가족은 조국이 맡겨준 초소에서 언제나 성실한 땀을 바쳐왔다.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분에 넘치는 훈장들과 메달들을 가슴이 벌개 안겨주시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아버지의 군공메달을 가슴에 꼭 안아보는 이 봄날,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금 맹세를 다진다.

아버지의 세대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나의 온넋을 다 바쳐가리라!...

내 고향 금산리

조일형

그 옛날 돌무리 박힌 땅이라
너를 석박리라 부르며
에서 태어난 사람들 살기도 박해
눈물속에 떠나가버리던
내 나서자란 금산리여

너를 가꾸며 안아보는 행복이 너무도 커
철없이 내 고향이라 부르기 송구스러워
너의 모습 바라보노라니
뜨겁게 어려오는 사랑의 전설 네게 있어
너의 이름 쉽게는 부를수 없구나

한해농사 짓고도 돌농사 지었다
땅을 치며 한탄하던 돌이 밟던 이 땅
태마저도 물을 흠이 없어
돌밑에 묻어야 했던
너를 두고 어이 고향이라부르며
다시 찾아오길 원했더냐

젖을 땀 어린 아기에게조차
쌀밥 한공기 먹이지 못해
감자 몇알 쥐여주던 어머니도
젖달라는 아기 달래며
눈물속에 보듬싸던 그 세월

오솔길마저 덤불에 가리워지고
사람들의 발자취마저 사라지던 이 땅에
빨찌산군복차림새로 찾아오신 수령님
가슴아파 쥐여보신것은
흠이였던가 돌이였던가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버리자고 피흘려 찾지 않았다고
빼기빼기 널려진 피발들
잡관목 무성한 약물산기슭
살치골 수령길도 걸어보시던 그이

그이의 그 사랑 그 손길 있어
돌무리만 남았을 이 석박리
오곡백과 주렁진 금산리로 되었으니
내 진정 태를 묻은 곳
고향의 포근한 한줌 흠이였던가

산기슭 굽이굽이 흘러드는 관개수 보아도
수령님 밟으신 그자욱 어려오고
잘 익은 이삭들 안아올린 들판들
낮은 산 봉이마다 주렁진 과일밭들에도
수령님의 밝은 미소 어려오는 금산리

너는 진정 수령님 작은 수첩에
소중히 적어 품고 다니신 땅이어서
내 밝은 한줌 흠에도
수령님 체온이 어린것만 같아
무심히 밟을수 없거니

내 한생 그 사랑 전하며
대대손손 너를 가꾸며 살리라
수령님 사랑에 태줄을 묻은
이 땅은 수령님의 땅
수령님의 금산리
아, 수령님!
그 부름속에 어려오는
내 고향 금산리여

우리 혁명의 건군사에 바쳐진 불멸의 화폭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에 대하여-

김순림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리동구, 리령철 작)는 해방된 조국에서의 정규무력이 탄생되는 과정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 재현이며 총대력사의 불멸의 서사시적화폭이다.

장편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주체34(1945)년 12월 22일 청진역을 떠나 29일 저녁 평양역에 도착하신 때로부터 주체37(1948)년 2월 8일 마침내 정규무력건설을 선포하는 력사의 그날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외세에 의한 국토 분렬로 정치적혼란이 조성되고있었다. 어데서나 민주세력과 반동들과의 투쟁이 격렬해지고 경제사정은 더 어려웠다. 일제가 패망하며 마사버린 공장들은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있었고 곳곳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쌀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반탁》시위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리승만을 두목으로 하는 우익친미반동세력들이 미제의 사촉으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반대하여 매일같이 시위를 벌리고있었다. 미제는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히 하려고 꾀하였다. 놈들은 민주세력을 총칼로 탄압하기 위해 경찰을 증가하고 여러가지 명칭을 단 무장부대들을 조직했다.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는 이러한 력사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빛나는 활동을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함으로써 총대를 어깨에 틀어쥐시고 선군위업의 개척과 전진을 위한 투쟁에 쌓아올리신 어머니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 당, 대중의 혁명력사와 그 투쟁로정에서 마련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은 사회정치적집단의 력사적뿌리이며 그 운명을 담보하는 초석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싸워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를 형상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시고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으로 빛나시는 친위전사로서의 김정숙

어머님의 형상을 감동깊이 창조한것이다.

소설은 해방된 이 땅위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 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주체적인 정규무력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시는 김정숙어머님의 형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구성으로, 하늘이 낸 위인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국의 해방도, 민족의 통성변영도 있다는것을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시였다.

소설에서는 항일의 그날부터 장군님의 안녕을 자신의 제일생명으로 여겨오신 김정숙어머님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평양학원개원식에서 스스로 호위병이 되시여 자신의 위치를 립시로 꾸린 주석단 뒤에 정하시고 장탄을 한 권총을 외투주머니에 넣으시고 서계시는 모습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어머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노리는 적들의 준동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밤이 이슬해지면 매일같이 장탄된 권총을 품고 저택주변을 돌아보신다. 자기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신 두분의 안녕을 지켜 야간순회라도 하게 해줄것을 간절히 바라는 김홍구에게 그러면 밤마다 함께 돌아보자고 하시며 빨찌산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을 위해 목숨바친 투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한 친위전사로서의 어머니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부각시켜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교대없는 경위대원이 되시는 어머니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은 경위대정문에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을 필사호위하자!》의 구호를 써붙이고 경위대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제일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벌려나가는데서도 깊이 형상되였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정규군건설구상과 의도, 거기에 바치시는 심혈을 잘 알고계시는 어머니께서는 현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군건설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불태우신다. 그리하여 경위대사업을 방조할데 대한 분공을 자진하여 맡으시고 몇달동

안에 그 면모를 일신시키신다. 부대의 정문과 《건국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필사호위하자는 구호가 나붙게 되었고 사상교양사업의 거점인 《건국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쌓으신 업적과 해방후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 그이의 건군사상과 전법이 주되는 내용으로 꾸러지게 되었으며 수령결사옹위의 사상이 관통되도록 함으로써 경위대원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하신다.

또한 소설에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경위대원들부터 먼저 불러야 한다시며 글씨가 곱지 못하더라도 《김일성장군의 노래》가사를 써붙여야 한다고 붓을 달리시며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리묘사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 사업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다양한 생활과 기쁨진 세무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수령관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견고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어머니께서 중앙보안간부학교의 터전을 잡으시러 떠나시는 수령님을 모시고 가는 운전사에게 대안리로 가자면 길폭이 좁고 험한 구간을 지나야 하겠는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길바닥이 꺼질수도 있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애용하시던 삽과 곡괭이를 차에 실어주시고는 마당을 떠난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점도록 그 자리에 서시어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축원하신다. 이러한 감동깊은 장면들은 어머니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것인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보위하시는것이 사상과 의지로써만이 아니라 체질로 굳어지신 빨찌산시절 친위전사의 자세와 발걸음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는 김정숙어머니의 형상은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구감으로서 우리 천만군민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예로 힘있게 이끌어주는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의 귀중한 사상예술적성고가 있다.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는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키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형상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창조하고있다. 여기에 또한 작품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가 있다.

여기에서 소설은 그 어떤 선언이나 주관적인 해설의 로출로써가 아니라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키우는 혁명의 어머니의 내면세계를 그지없이 소박하면서도 깊이있게 파고들고있다.

특히 군기를 만드는 사업을 자신께서 직접 맡으시고 붉은 천을 다듬이질하시는 내면세계의 묘사는 매우 성공적이다. 주체혁명위업을 선군의 총대로 역세계 계승완성해나가실 백두산장군을 키워가시는 위대한 어머니께서는 끝없는 생각에 잠기신다.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셨었던 《ㄷ. ㄷ》의 기발, 안도의 소사하 토기점필등판에서 대오를 정렬한 첫 유격대앞에 나뭇긴 기발을 만드셨었던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니와 다정히 마주앉으셔서 군기를 만드시는 환영에 사로잡히기도 하시고 청춘의 붉은 피를 결전장에 뿌리고 쓰러진 전우들의 넋과 색조가 오리오리에 스미고 배이기를 바라시는 숭고한 감정은 사랑하는 아드님에 대한 추억과 기대로 더욱 승화되고있다. 총소리를 자장가로 들어오신 아드님께서 《어머니, 우리 집 지붕에는 왜 붉은기가 언제나 걸려있나요?》라고 물으실 때《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엔 늘 붉은기가 나뭇긴다.》라고 대답해주시며 어서 커서 그 붉은기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이 어린 군기를 메고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길 바라시던 어머니이시였다. 그날을 추억하시는 어머니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으로써 간고하고 시련에 찌던 조선혁명의 력사와 영광스러운 전통이 깃든 군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을 따라서 혁명의 머나먼 길을 곳곳이 걸어가시는 조선의 장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어머니의 념원을 붉은기에 깃든 숭엄한 감정속에서 철학적깊이가 있게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형상은 우리 혁명의 붉은기의 력사, 총대력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심원한 의미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있고 감동적으로 안겨오는것이다.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의 사상예술적성고는 다음으로 우주공간인 못별들이 태양의 열과 빛을 전하는 해발을 받아 광채를 뽐내고있듯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사랑어린 빛발을 받아 모두의 삶이 별처럼 빛난다는 종자를 틀어쥐고 사상예술적으로 확증해주는데로 어머니의 형상에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켜 위대성을 부각한데 있다.

장편소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총대로써만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신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로선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력을 아낌없이 바치시는데 형상의 기본을 두고 모든 형상을 여기에 집중시킴으로써 제기한 문제에 훌륭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직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하루빨리 정규무력을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는데로 작품의 사건과 인간성격, 인간관계 등의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켜 정규무력건설의 성과와 의의를 끝까지 파헤쳐 펼

쳐보이고있다.

특히 소설에 설정된 백두산3대장군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관계는 수령과 전사, 정도자와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관계로 평범한 생활화폭에 펼쳐면서도 대대손손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애국, 애족, 애민의 혁명적가풍을 곳곳이 이어가시는 조선의 첫 총대가정을 훌륭히 부각시키는 데로 힘있게 지향됨으로써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를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소설에는 김정숙어머님께서 만경대일가가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바치는 헌신의 과거와 오늘이 새삼스레 가슴에 마쳐오는것을 느끼시는 장면이 있다.

《장군님의 부모님과 삼촌, 동생... 그분들은 일찌기 항일전에 목숨을 바치셨다. 늙으신 조부모님들도 몸과 마음을 다바쳐 항일전을 후원하시였다. 이역땅과 국내의 감옥에서 련이어 날아오는 희생의 비보에 그분들이 흘린 눈물은 얼마였으랴. 나라를 찾는 성업에 목숨을 바쳤으니 무슨 한이 있으랴만 한 가문에서 그처럼 값높은 희생을 련이어 가져온 전례는 없을것이다. 해방된 오늘에도 조국과 민족의 수호를 위해 만경대일가는 남먼저 총을 메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 수호전에서 또 다시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은 수난많은 우리 나라의 현대사가 만경대가문의 어깨우에 얹어놓은 숙명이 아닐가? 문득 자신도 그 가문의 장손며느리로 지녀야 할 력사의 의무를 의식하시였다.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건군위업에 나로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기여할수 있을가?...》

이 감동적인 형상은 혁명의 총대가정의 가풍을 곳곳이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건군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려는 김정숙어머님의 고결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품진 화폭이다.

소설에서 인간관계는 어머니의 위대성을 돋구어줄수 있도록 작품의 형상생리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되고있다.

김책, 김성국, 최용진, 차영환, 강상호 등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은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혁명동지적관계, 가장 가까운 전우관계로 맺어지면서 시대적, 력사적화폭속에서 어머니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의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김홍구와 춘심아, 원명철과 송금 등의 인물들은 김정숙어머님과 운명적인 관계로 설정되고 있으며 인간의 자주적인 운명개척에서 총대의 의미를 절감하게 하는 형상으로 창조됨으로써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인간학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하고있으며 어머니의 위대성을 진실한 생활화폭으로 훌륭히 부각하고있다.

또한 정신옥, 한동훈, 림정하, 서분영, 러운형, 원득규 등 어머니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각계층

인물들의 설정은 뜨거운 인간사랑과 포용력으로 건군위업실현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우시는 어머니의 위인상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특히 김정숙어머님께서 정구군건설의 나날에 각이한 경력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건군로선의 정당성을 론증하시고 그들모두가 새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제기한 기본문제를 진실하게 해명하고있다.

여기에서 중앙녀맹부위원장 정신옥의 형상은 매우 특색있게 되였다.

정신옥은 정구군건설에 대한 옳지 못한 견해와 관점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대표적인물형상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신옥은 간단치 않은 경력을 엮어온 녀자였다.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때부터 독립운동에 나섰다. 《애국부인회》의 주역으로 거기에서 모금한 돈을 《상해립정》에 날라가는 일도 하였고 신간회 부녀회에서 활동을 벌리기도 하였다.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서울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아들딸들을 총알받이로 내보내지 말라는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7년의 중형판결을 받고 옥살이도 하였으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치고는 좌우익을 물론하고 정신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소설은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정신옥이지만 정구무력건설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을 여러가지 사건들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생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는 러운형의 영향을 받아 《평양학원》에 가려는 아들 기한이에게 오늘이 우리의 나라 형편에서는 어느쪽이나 군대를 조직하는것이 당치 않은 일이다, 어깨에 총을 메우자고 너를 키우지 않았다, 민주개혁과 생산에 앞장서 나서는것이 청년들의 옳은 좌표이고 진정한 애국의 길이라고 하면서 길을 막는다. 그의 이런 견해와 관점은 편집기에 성토문을 보낸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당시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것처럼 그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좌우익의 리념대립이 벌어지는 지금의 형편에서 저마끔 군대를 세우면 동족상쟁의 류혈이 있을수 있다고 하면서 왜놈은 당하고 세계 최강의 쓰미랑군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있는데 누가 감히 덤벼든단 말인가고 열기를 띠고 주장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이런 그를 찾아가시여 현실자료와 사리정연한 논리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피상적으로 보면서 해방으로 우리 나라에 영원한 평화가 도래했다고 말하고있는 그의 견해를 바로 잡아주시며 건군로선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론증하신다. 군복을 생산하는것보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면서 건군위업을 리해하지 못하

는 그를 두고, 그토록 애국에 열렬하고 과감하면서도 굳건설, 군력강화에 진정한 애국이 있다는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를 두고 안타까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애국의 기개와 《범할머니》로 불리우리만큼 도고한 투지가 건군위업에 지향되기를 바라시는 김정숙어머니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는 총대의 진리를 깊이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로선관철에 앞장서 목화기증운동을 열렬히 호소하던 정신옥의 딸 서분영이 원쑤의 총탄에 피를 뿌리며 쓰러져 희생된 다음에야 건군로선의 정당성을 절감하는 정신옥, 해방된 조국에 새로운 원쑤가 나타나는 준엄한 현실을 볼줄 모르고 왜놈들에게서 빼앗은 총을 인민이 다시 들어잡아야 자기의 생존과 존엄을 지킬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어머니라고 자신을 질책하며 때늦게나마 아들에게 총을 메도록 하는 정신옥, 마침내는 일제군경에게서 빼앗았던 32자루의 총을 바치고 사랑하는 아들딸들과 남편들의 어깨우에 총을 메우라!고 건군위업에 호소하는 글을 잡지에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은 이처럼 건군설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바로서지 못한 정신옥의 뒤생활을 깊이 파주면서 그를 건군설로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군사교육에서 사대주의적립장을 고집하는 한동훈을 옳바른 길로 이끄시는 과정을 통하여 정규군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면불휴하시는 김정숙어머니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께서는 학원창립을 앞두고 제일 절박한 문제의 하나가 전문병종교원이 부족한것임을 간파하시고 이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이신다. 쏘련에서 나서자라 붉은 군대 기계화사단의 참모로 있었던 한동훈의 집을 찾으시여 아버지로부터 열렬한 애국의 피를 이어받은 그가 전문군사기술지식을 우리의 건군위업에 바치도록 이끌어주신다.

어머니께서는 강력한 쏘련군대가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고있는데 무엇때문에 정규군건설을 서두르는가고 말하는 그에게 나라의 방위를 외세에 맡긴다는것은 예측을 의미하고 망국을 의미한다고 깨우쳐주신다.

포병학강좌장인 그가 붉은군대의 포병학을 배워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것으로 하여 일군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떠나갔을 때도 어머니께서는 외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고 그 나라 군대의 전투경험을 쌓은 그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같을수 없는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것이라고 하시며 그래도 조국의 정규군건설에 자기가 쌓은 지식과

청춘을 바치려고 하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는것을 굳게 믿으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해방된 조국이 품에 안아서 옳게 이끌어주어야 할 조선청년이라고 하시면서 정규군건설은 새 인간을 키워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고 일군들에게 간곡히 가르쳐주신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에 오시여 처음으로 인연을 가진 청년인 김홍구를 자신의 곁에 두시고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조선인민군군관으로 키워주시는 생활을 통해서도 군건설위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어머니의 형상을 한껏 부각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오직 한마음 위대한 장군님의 건군로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어머니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작품이 제기한 문제성을 더욱 강화하고 어머니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돈구어주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팔래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건군사업을 좀 더 도와드릴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신다. 이리하여 어머니께서는 군관가족들과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시고 그들이 남편에 대한 궁지와 안해된 자부심을 안고 사랑하는 남편들과 함께 학교의 번영을 위해 힘쓰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신다. 그리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군복대량생산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다 바치신다.

참으로 어머니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로선을 결사관철하는 빨찌산녀장군의 모습 그대로이며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친위전사의 모습그대로이다.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의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가장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과 인정미가 있으며 포용력이 뜨거운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풍부한 생활화폭속에서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그려낸것이다.

어머니도 혁명가이기 전에 인간이고 녀성이고 한가정의 주부이다. 소설은 조국에 개선하신 어머니께서 체험하시는 새집들이 첫불세부, 만경대 일가의 장손머느리로서 정성껏 준비하여 고향집으로 가져가신 술과 잉어를 할아버님과 원주동지에게 대접하시는 생활세부, 팔래세부 등 여러 장면들에서 어머니께서 지니신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후더운 인정미를 생활적으로 친근하게 잘 보여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자신을 언제나 평당원으로, 평민으로 생각하시는 겸허하고 소박한 성품을 지니고계시였다. 작품에 형상하고있는것처럼 어머니께서 평범한 한 당원으로서 당조직앞에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 모습, 정신옥이 찾아와 중앙녀맹위원장의 중임을 맡아달라고 진정서를 내놓을 때 정선생과 같이 일정하게 년세도 있고 명망도 높은분들이 맡으셔야 한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겹혀성, 밥상우에 놓인 잡곡이 섞인 밥과 고추장, 부루와 풋마늘... 농군들의 밥상과 다름없는 검소한 식사, 눈이 녹자부터 저택 주변의 공지를 밭으로 만들려고 돌을 취내시어 100여평의 밭을 새로 일쿠시며 흘리시는 구슬땀, 머리에 수건을 쓰시고 검정색치마허리를 노끈으로 질끈 동이고 밭일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맨 밭에 신은 고무신으로 흙밥이 쓸어들었지만 아랑곳없이 일손을 다그쳐 많은 이랑을 지어놓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실로 감동이 없이는 읽을수 없는 생동한 생활화폭이다.

소설에 그려진 어머니의 인정미는 숭고한 도덕의리와 혁명적동지애로 충만한 인정미이다.

앓고있는 손실을 보고 그냥 온 차영환의 처사를 비판하시며 그의 집을 찾으시어 불도 지펴주시고 미움도 켜서 먹여주고 의사를 데려다 제때에 손을 쓰게 하시고 며칠동안 밤마다 그를 간호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차영환내외에게 성의껏 음식을 차려주고 결혼식에 나누지 못한 교배주를 나누도록 하시고 후에 꼭 반살미를 약속하시는 어머니의 인정의 세계는 한없이 깊고 따사롭다.

해방전 몸건사조차 할수 없어 상여를 보관하는 상두막에서 빌어먹던 김홍구를 소원대로 곁에 두시고 학습장과 연필도 사주시면서 글도 배워주고 무명양복도 사입히고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키우신 어머니께서는 총대의 진리를 새기고 평양학원으로 떠나는 그를 위해 군복을 지어 입히시고 역사앞에 나오시어 도중식사와 세면도구, 목달개

가사

등을 마련해주신다. 한동훈이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사교육일군으로 성장할수 있는것도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미이다. 어머니께서는 그들부부의 남다른 정과 외국생활풍습을 고려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문제와 생활조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국땅에 묻혀있는 그의 아버지의 유해를 조국으로 옮겨오도록 하시고 손수 제상까지 차려주신다.

참으로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에 형상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모습은 끝없이 자애롭고 다심한 어머니의 최고귀감이시고 가장 고결한 인물도덕과 미덕을 지니신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조선녀성의 전형이시다.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는 총서형식의 위대성주제작품의 생리에 맞게 사건선과 인간관계, 인물선들이 김정숙어머니의 형상을 창조하는데로 생명유기체와도 같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있으며 구성이 감정조직으로 되어있고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정서가 안겨오는 담담한 묘사와 필치로 하여 시종일관 극적전인력을 가지고 독자들을 끌어당긴다.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는 사람들에게 총대의 력사와 전통을 깊이 새겨주며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선군으로 기어이 열어제끼려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끝없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무한대한 정신력의 귀중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평양은 어머니사랑이였네

전수철

꽃피는 만강의 못 잊을 그 봄날
수령님 부르시던 사향가 들으시며
어머니는 마음속에 소중히 새기셨네
만경봉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
아 못 잊어 꿈결에도 그려보신
평양 평양은 어머니사랑이였네

해방의 봄빛길은 보통강기슭에
수령님 건국의 첫삽을 뜨실 때
어머니는 헌신의 땀 아낌없이 바치셨네

민주수도 새 모습 그려보시며
아 숭고한 애국의 뜻이 어린
평양 평양은 어머니사랑이였네

어머니 그 념원 이 땅우에 꽃피며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 수도평양
장군님손길아래 더욱더 번영하리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수도로
아 천만년 그 품에 함께 있을
평양 평양은 어머니사랑이였네

어머님 우러러 따라서는 길

서봉제

진달래 꽃잎아

한걸음이면 뛰어건들

압록강이건만

아 조국아

투사들 피로 헤쳐

네 기슭에 닿았다

그 길이 그리도 멀어

빨찌산의 녀장군 김정숙동지

여기 5호물동가의 진달래에

더운 불을 묻었더냐

더운 눈물 쏟았더냐

바위도 얼어뼉던

엄동의 백날을 이겨왔기에

꽃이 핀 고국산천, 이끼푸른 절벽도

눈가에 흐리어 젖어들었던가

날새도 굳어 떨어지던

그 모진 눈보라속에서도

조국애로 끓던 마음

불같이 간직하신 어머니

꿈에서 밟던 이 땅, 이 기슭에

감격의 뜨거운자욱 없으셨나니

아 송이송이 연분홍 꽃잎아

그날에 흘리신 어머니의 눈물

너의 일세 어느 갈피에 간직했느냐

진달래, 너를 보니

어머님생각이 절로 나

너는 꼭 우리 어머니를 닮은듯싶어...

—5호물동가에서—

무성하는 청봉

서녘하늘에

노을이 물든 저녁

사령부작식터옆에

어머님 정히 샘물을 파시였네

샘가에 피는 노을

영영 없어둘수 없을까

조국산천의 짙은 향수

영영 담아둘수 없을까

샘을 떠 먹물을 갈고가시던

김정숙어머님

붓대를 굳게 잡으시고

껍질벗긴 나무에 글발을 쓰시였네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고

하루 한밤을

어찌 쉬어서만 가랴

한목숨 짓밟혀 사느니

열혈의 젊음 나라 위해 바치라고

조국산천에 남기신 그 당부

어머님 파신샘

영원한 젓줄기로 빨며

어머님 심장으로 터친 그 호소

푸른 기념비로 새겨안은

무성하는 숲이여

아 어머니의 숭고한 뜻

불멸의 글발로 간직한 청봉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거느리신

백두산무적강군에

자라나는 세대들을 세워주시며

어머님은 오늘도 청봉에 계시네

그날의 붓대를 놓지 못하시고

청봉숙영지에서—

불의 대하 에서 흐른다

대흥단 여기선
땅도 뜨거운듯싶다
옛전장 여기선
하늘도 타는듯싶다

내 우러러 바라보노라
하늘을 찌를듯이
총대로 탑신을 높이 세운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여

드넓은 대흥단수령창에
왜놈들을 무리로 처박던
빨찌산 김대장의 안광엔
오늘도 그날의 증오를 담아
멸적의 서리발 일어라

장백의 혈전만리 그 언제 어디서나
사령부친위전사로 사신 어머니
여기 기념탑의 대돌우에서도
사령관동지를 웅위하시여
비발치는 총탄을 막으시며
어머님은 서계시누나

틀어잡으신 저 권총은
아직도 그날의 불길에 달아있구나
그날에 퍼붓던 불벼락이

오늘도 그대로 쏟아져내리는구나

수령결사옹위의 총대없이
나라와 겨레도 없고
백두산총대를 놓으면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끝장임을
세상에 전하며 높이 드신
위대한 어머니의 총대

항일의 불길속에서 익힌
총대의 제일가는 사명
백설광야에서 피로 새긴
혁명군총대의 그 철리를
천만심장의 박동에 얹어주며
오늘도 손에서 내리우지 않으신
어머님의 총대에서 불이 흐른다

오 항일의너장군 김정숙어머님
백두에서 추켜드신 저 총대를 잡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지켜갈
수령결사옹위의 불의 대하
에서 흐른다
어머님의 총대아래서 흐른다!

—대흥단벌에서—

전설

진달래

진달래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여온 꽃이다. 그것은 진달래가 추운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제일먼저 알려주는 꽃으로서 마치 봄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붉게 피는듯 하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진달래와 관련한 노래와 시작품들을 창조하여왔지만 여러가지 전설들도 창조되어 전해오고있다. 그 가운데 백두산일대에서 창조된 전설도 있다.

백두산일대에서도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봄철이 오며는 연분홍색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 한벌 덮이군 한다. 그중에도 특히는 5호물동과 삼지연못가, 대흥단등관 등지의 습지와 같은 곳에서 더 많이 자라 만발하고있다.

이런 곳들에서 진달래가 무성하게 핀 유래에 대하여 백두산일대사람들은 이렇게 전하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많은 군사들은 험한 백두산일대를 넘나들며 담과 용맹도 키우고 전장으로 나가고 들어오곤 하였다.

그러면 마을의 로인들과 녀인들이 멀리까지 따라나서 군사들을 배려했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도 또 그렇게 멀리까지 나와 맞이하였다.

이것은 백두산일대의 생활풍경이었고 또한 생활관습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경과 관습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전승을 바라거나 그것을 환영하는 생활로 하여 굳어진것만이 아니었다.

백두산일대는 고산지대이나 습지가 많아 곳곳에 진펄이 펼쳐져있는곳이다. 그래서 백두산일대의 로인들과 녀인들이 싸움터로 떠나거나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멀리까지 나와서 보내거나 맞이하는것은 험한 길을 헤치며 가고오는 군사들이 혹시나 길을 헛갈리어 진펄에 들어서지 않을가 하는 걱정에서 생겨난 풍경이고 습관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봄이었다.

대흥단의 어느 한 마을에 시집을 온 한 새각시가 초조한 마음으로 이 봄을 맞이하고있었다. 그는 백두산일대의 류다른 생활풍경과 생활관습을

알고있는데다가 시집온지 얼마 안되어 싸움터로 나갔던 남편이 이 봄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나저제나 남편이 돌아올 시각을 초조히 기다리던 새각시는 어느날 아침 마을로인들이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으러 떠난다는것을 알고 그들을 따라나섰다.

《소녀도 같이 나서도록 하여주소이다.》

《허허, 하긴 새서방을 기다리는 새아기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나. 허허. 어서 따르게.》

새각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로인들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다.

한낮이 기울도록 수림을 헤쳐온 로인들은 어느 진펄가에 이르러 주변의 길을 찾느라고 살피고있었다. 이러한 사이에 새각시는 덕지골짜기의 습지에 내려가 진달래를 한아름 꺾어가지고 올라와 진펄가에 꽃아나갔다.

이것을 본 로인들이 물었다.

《새아가, 그 꽃을 왜 그리 꽃느냐?》

《이 꽃은 습지를 좋아하지 않소이까?》

《그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꽃을 여기에 꽃으면 돌아오는 군사들이 이곳이 진펄이라는것을 대뜸 알수 있지 않을것이 아니오이까.》

이 말을 들은 로인들은 놀래였다.

《그래?! 그러면 돌아오는 군사들이 길을 헛갈리어 진펄에 들어서지 않을가 하는 우리들의 걱정이 없게 될것이란 말이지?》

《그렇소이다.》

《허, 파시 영특한 생각이로다!》

《그러면 매번 꽃을 꺾어다 꽃아놓을것이 아니라 저러 그 꽃을 떠다가 심어놓는것이 더 좋을게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하겠소이다.》

이날 진달래꽃으로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님을 반갑게 맞이한 새각시는 이후부터 여가가 있는대로 진펄가에 올라와 진달래를 떠다 심곤 하였다.

이 소문이 한입, 두입 전하여 널리 퍼지자 싸움터로 님을 보내고 맞이하는 녀인들이 떨쳐나서 매해마다 곳곳의 진펄에 진달래를 심어나갔다.

이런 진달래는 싸움터에 나간 님을 그리는 녀인들의 마음의 발현이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님을 반기려는 녀인들의 심정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녀인들의 이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하여 몇해가지 않아 백두산일대의 진펄가는 모두 연분홍의 진달래꽃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러한 진펄의 연분홍진달래꽃밭은 싸움터로 오가는 군사들에게 고무와 신심, 기쁨을 주었을뿐 아니라 어려운 싸움터마다에서 사랑하는 고향마을과 애뜻한 안해의 마음을 그리게 하는 화폭으로 되었다. 하기에 싸움의 시각을 기다리는 때이나 달 밝은 깊은 밤에 고향을 그리는 군사들은 서

로 이렇게 속삭이곤 하였다.

《진펄에 달래각시들이 심은 꽃밭들이 눈앞에 삼삼하구만.》

《그 달래각시들의 기특한 마음에 보답을 위해서라도 잘 싸워보세.》

《어서 승전가높이 돌아가서 그 꽃밭에 안겨 즐겨보세나.》

군사들은 이처럼 처음에는 진달래꽃을 진펄에 달래각시들이 심은 꽃이라고 불려왔다.

《달래각시》라는 말에서 《달래》는 녀인들이 머리를 쪽지울 때 그 모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다른 머리칼을 틀어 덧엮곤 하던 달비, 또는 다리라고 일러오는것을 가리키기도 한 말이었다. 그리고 《각시》라는 말은 새색시라는 말로서 각시집을 온 녀인들을 두고 이르던 말이었다. 하여 옛날에는 처녀들이 시집가는 일을 두고 머리를 엮는다고 일러왔다. 한것은 처녀들이 시집갈 때 땅아내려드리웠던 머리태를 이마우로 틀어올리어 달래를 넣고 쪽짓는것이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새색시를 《달래각시》라고 일러왔던것이다.

이처럼 새색시들이 싸움터에 나간 남편을 그리며 백두산일대에 심었던 꽃을 처음에는 《진펄에 달래각시들이 심은 꽃》이라고 일러오다가 후세에 와서 이 말을 생략하여 함축해 부르게 되면서 그 꽃의 이름을 《진펄》에서 《진》을, 《달래각시》에서 《달래》를 주리며 《진달래》라고 불려왔다 고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8(1939)년 5월 18일 이른새벽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5호물동으로 강을 건느시여 조국땅에 진출하신 뒤에 유격대원들과 함께 5호물동 등판에서 잠시 휴식하시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오시였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5호물동등판에 만발한 진달래꽃밭에 들어서시여 조국의 향취를 가슴뿌듯이 안으시면서 조국의 진달래! 비바람도 이겨내고 눈보라도 이겨내고 끝끝내 피여났군요! ... 봄이 꼭 오리라는걸 믿지 못했다면 이 진달래는 영영 눈속에 파묻히고 말았겠지요, 우리 유격대가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땅에 진군하리라는것을 진달래는 굳게 믿었을거예요, 전체 인민들이 장군님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듯이 말이예요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은 5호물동에 세워진 김정숙동지의 말씀비의 비문에 새겨져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김정설

다시 만난 견우와 직녀

김달수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에 나는 도안의 로동계급과 시내 주민들이 야유회를 펼친 레성강발전소 언제를 찾았다.

울긋불긋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바다와 파아란 물결바다는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어 정말 장관이었다.

눈썹리 아득히 펼쳐진 대인공호수의 언제우에서 앞을 바라보니 산기슭의 밭들과 우불구불 뻗어있던 길들은 자기의 보기 흉한 자태가 부끄러워서인지 이제는 물속에 숨어버렸었다. 그저 눈앞에는 바다같은 호수가 있을뿐이다.

물이 차오른다. 설화산과 문안산줄기의 량쪽 봉우리사이에 일떠세운 레성강발전소언제우로 태고적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이제는 영원히 자기의 흐름을 멈추고 으쓱으쓱 차오른다.

지난해에도 나는 이 건설장에서 몇달동안 현실 체험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는 이 언제도 한창 키돋움을 하며 솟아오르고있었고 수문들과 발전기실도 건설중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공된 발전기실에서 올려오는 발전기의 고르로운 동음만이 잔잔한 수면위로 뻗어가고있을뿐이다. 감회도 새로와 사색속에 언제우를 걷던 나는 호수기슭에 앉아있는 한 로인을 띄어보았다. 뜻밖에도 작년 현실체험때 낯을 익히었던 강로인이었다.

이 고장에서 한생을 살아온다는 그는 발전소건설이 시작되자 자기도 건설장의 한 성원이라며 집에서 기른 돼지와 염소들을 가지고 자주 찾아오곤 하였다.

그는 언제우의 알른알른한 차돌옆에 앉아 물속에 손을 잠그었다꺼냈다 하며 자기 생각에 골똘해있었다. 그가 손을 쳐들 때마다 은구슬같은 물방울들이 사방으로 튀어난다. 그러자 하늘나라 세상보다 지상이 더 좋아보였던지 파아란 물속에 들어있던 둥근해가 얼굴을 찡그리며 자기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듯싶다.

《로인님, 무슨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내가 다가가며 이렇게 묻자 고개를 돌린 그는 주름잡힌 얼굴에 반가운 빛을 띄우며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작가선생이구만. 또 오셨구려. 난 지금 이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의 상봉을 보고있네.》

《네?》

나는 의아해졌다. 오작교라니, 그리고 견우와 직녀의 상봉이라는건 또 뭐가.

로인은 잠시 말이 없이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설화산 수림속에서 한마리의 꿩이 날아올라 반대편 문안산쪽으로 사라졌다.

《선생은 이런 날이 오면 기쁘지 않겠소. 그것도 몇백년을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도 만나지 못하던 두 련인의 상봉이 이루어졌다면 말ियो.》

로인의 말에 나는 부쩍 호기심이 동했다.

《누가 련인이라는겁니까?》

《저 봉우리들의 이름이 뭔지 아오?》 그는 발전소언제로 이어진 량쪽봉우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다.

《?》

《이쪽은 견우봉이고 저쪽은 직녀봉이라오.》

로인의 말에 나는 발전소언제로 이어진 두 봉우리들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올해 정초에 이곳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레성강발전소가 위치도 좋고 설계도 잘 되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나도 발전소가 정말 명당자리에 자리잡았다고는 생각해왔지만 두 봉우리들의 이름은 모르고있었다.

놀람이 어린 나의 얼굴을 바라보던 로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옛적에는 여기에 강이 없었다. 그저 산골짜기들을 따라 자그마한 실개울만이 흘렀다고 한다.

바로 그옆에 몇집 안되는 농가들이 자리잡고있었다. 관가의 눈을 피해 살길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긴 마을이었다. 거기에 서로 죽자살자 사랑을 약속한 총각과 처녀가 살았다고 한다.

해토가 시작될 무렵, 관가에서 인물꼬고 잘 생긴 처녀들을 끌어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여기에까지 퍼져왔다. 온 마을이 뒤숭숭한 속에 두집 부모들은 부랴부랴 모여앉아 맹물을 떠놓고서라도 그들의 성례를 치러주자고 걱정하였다. 화전이라도 두겨 한해 농사를 지어놓고 잔치상을 차려주면 좋으련만 야속한 세상은 보잘것없는 그들의 이 소원도 이루어질수 없게 하였던것이다. 하여

서둘러 성례를 치르었고 다음날에는 너자집에 문안을 갈 차례였다. 그런데 그날밤 난데없이 폭우가 쏟아져 온 마을이 물에 잠겼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총각과 처녀는 서로 량쪽 산기슭에 올랐으나 범람하는 강물때문에 만날수가 없었다. 서로 목메여 소리치며 안타까와했으나 야속한 강물은 하루, 이들이 지나도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어나기만 하였다. 끝내 처녀와 총각이 죽더라도 서로 만나보자고 사품치는 물속에 들어섰으나 불어날대로 불어 그 흐름이 횡포해진 강물은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여기에 강이 생겼다. 그리고 총각과 처녀가 들어섰던 강기슭에 두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솟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견우봉, 직녀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저 하늘의 견우, 직녀는 1년에 한번씩 칠월칠석날이 되면 오작교를 건너 서로 만나곤 하였지만 오작교가 없는 땅우의 견우, 직녀는 수백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번도 만날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 견우봉과 직녀봉뒤의 산들을 설화산, 문안산이라고 하였지. 총각의 집에서는 문안을 가려다 못 가고 처녀의 부모들은 자기 딸이 불쌍해 하루밤사이에 머리칼들이 모두 눈썹처럼 하얗게 세어버렸으니까.》

정말 의미심장한 전설이었다.

《그러던 견우, 직녀가 오늘에 와서 이렇게 다시 만났구려. 이 발전소언체의 오작교를 타고서 말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소. 수백년동안이나 바라고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었으니...》

작가선생, 바로 이런것을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하지 않겠소. 정말 꿈같은 일이야.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하늘의 견우, 직녀도 부러워할 땅우의 오작교를 이렇게 세우주셨구려.》

로인은 제 흥에 겨워 또다시 아이들처럼 찰싹 찰싹 물장구를 친다.

나는 머리를 들었다.

물축제 한마리가 호수우에서 푸른 하늘로 한껏 나래를 펴며 까마득히 오르고있었다. 아마 땅우의 견우직녀가 서로 상봉한 소식을 저 하늘의 견우직녀에게 알려주려는 모양이었다.

멀어지는 물축세를 점도록 바라보는 나의 눈굽은 어느새 축축히 젖어들었다.

선군시대의 《오작교》전설을 낳은 레성강발전소.

여기에 깃든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를 되새겨보느라니 내 가슴은 어느덧 후터워올랐다.

하나의 강줄기, 자그마한 산봉우리들에도 내 나라를 살기좋은 무릉도원으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새겨져있다.

여기 레성강반에 발전소를 세우도록 하시고 여러차례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빠른 기간에 완공할수 있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지금까지 이 강은 물살이 급하고 암질조건이나빠 사나운 강, 길들이기 힘든 강으로 알려져있었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놈들도 여기에 언제를 쌓으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구실로 공사를 철회버리고말았었다.

조국이 해방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레성강을 잘 다스려 전기도 생산하고 황해북도의 물문제도 풀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몸소 레성강발전소의 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까지 보내주시였으며 올해 정초에는 조기조업한 청년1호발전소를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수십수백년동안 제멋대로 범람하던 강이 오늘 선군시대에 와서 길들여졌다.

하여 쓸모없이 흐르던 이 강에 사랑의 《오작교》가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것이다. 정녕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담력과 사랑에 의하여서만 생겨날수 있는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홍열홍열 코노래를 부르던 강로인이 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선생, 내 나이 지금 일흔이 넘었지만 좀 더 오래 살아야겠네. 그래서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하늘의 견우, 직녀를 꼭 봐야겠네. 그렇지 않은가?》

순진하게 웃는 로인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한껏 어려있었다.

《예, 이 오작교를 거닐며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허허허.》

《하하하.》

맑고 파아란 강물이 나의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거기에 견우봉과 직녀봉을 나란히 이어주는 《오작교》가 비껴있었다.

나는 그 《오작교》우에서 행복에 겨워 웃고떠드는 오늘 우리 시대 《견우》, 《직녀》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물이 차오른다. 행복을 담고 웃음을 담고 사랑의 《오작교》우로 맑고 파아란 물이 차오른다.

그것은 분명 가까이 다가오는 강성부흥의 조국에서 살게될 우리 인민들이 아름답게 받아안을 크고큰 행복의 모습이였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결정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다시 만납시다!》

김일규

그들의 말은 길지 않았다.

작가일반이 그러하듯이 시켜서 말을 듣기란 조
런치 않다. 자기 스스로 하고싶은 말은 세계정치사
로부터 체험지의 그 어느 집 다사한 아낙네의 뒤
생활까지 허구를 불허가며 끝없이 말하면서도 자
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려 하지 않
았다.

작가의 말은 작품이 대신한다는것인지. ...

필요없는 미사여구로 자신들을 변명하고싶지
않다는것인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
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공동사
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하나인 북창화
력발전련합기업소로 달려나가 첫 전투를 진행한
작가들 모두의 가슴가슴에 얼마나 벅찬 흥분과
하고싶은 말 또한 많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을 직접 체험하여 많이 알아야 좋은 작품
을 쓸수 있습니다.》**

현실효험! 그것은 오늘날 작가들에게 있어서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다.

대지를 떠난 허공에 꽃을 피울수 없고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처럼 현실을 떠난 작가의
성공은 물론 그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지난 시기에도 이곳 평안남도안의 모든 작가들
은 언제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수많은 좋은 작
품들을 창작발표하였지만 올해의 잡도리는 시작
부터 달랐다.

현지전투조를 책임진 소설가 김상현은 그저 느
물느물 웃기만 하다가 거듭 간청해서야 겨우 입
을 열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무슨 자랑거리
가 있겠습니까.》

역시 그의 대답은 길지 않았다.

어느때같으면 흥분을 앞세우며 청높은 목소리
로 남에게 말할뜬도 주지 않을 시인 박상민도 류
다른 체험의 흔적인듯 허물이 많은 손등만 어루

쓸며춤처럼 말쑥지를 떼지 않았다.

소설가 김광남, 홍남수, 안명국, 번역작가 남해,
아동문학작가인 김성현도 자신들이 한 일은 말이
아니라 원고지에 있다는듯 손에 든 원고들만 매
만지고있었다.

그러니 현지합평회의 격식도 필요없고 작품들
을 놓고 총화하자는것이다.

현지전투조의 유일한 녀성소설가인 송혜경동무
는 마치도 첫날 새색시처럼 다소곳이 숙인 머리
를 들줄 몰랐다.

수집음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받아안은 벅찬 흥
분을 가라앉히느라 자신을 다잡고있는지...

마음이 조급해났다. 이러다간 이들에게서 현지
에서의 활동정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을상십
지 않았다.

시장기를 못 참아 김치국을 곁에 놓고 떡부러
삼키다가 목메인 신세가 되었다.

한때 착암기소리 높은 탄광막장에서 일하던 때
의 습관인지 언제나 곁에 사람을 두고도 소리치
듯 내뱉는 안명국동무의 말이 잠시 어색해진 좌
중의 분위기를 흔들었다.

《총알이 나가야 총이구 글을 써야 작간데 뭐
다른게 있습니까. 우선 작품들에 대해서나 말해봅
시다.》

그가 먼저 두툼한 단편소설원고를 앞에 내놓았
다. 실화문학 《발전소의 어머니》, 단편소설 《공
격수 1번》.

그 체명에서부터 현실냄새가 물씬 풍겼다.

《뭐 이거 글이 됐는지...》

안명국동무와는 대조되게 속삭이듯 조용히 말
하며 원고를 내놓는 김성현동무의 얼굴엔 알릴듯
말듯 주저하는 기색이 연한 홍조로 비졌다.

《이건 그저 현지에서 받은 충격을 그대로 옮긴
서정시, 벽시들인데 발전소 여러 구내에 전시했던
작품들입니다.》

박상민동무가 원고를 내놓으며 하는 말이였다.

《이번 첫 전투에서 나두 뭐 빈손으로 온건 아
닌데 우리 작가들이야 다른 말 할게 있습니까. 좌
우간 다 내놓고 총화해봅시다.

다 했다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승패야 이

원고들이 증명할게 아닙니까.》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홍남수동무의 말에 모두들 가볍게 웃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선생님앞에 시험지를 내놓는 아이들처럼 긴장하고 우려하면서 심박한 표정들이었다.

《송혜경동무는...》

그때까지도 한쪽옆에 조용히 앉아 머리를 들지 않고있는 송혜경동무는 몇번 독촉을 받고서야 겨우 말을 떼는것이였다.

《전... 좀 후에... 다시 정리해서 합평회에 내놓겠습니다.》

힘들게 말하고는 다시 머리를 숙이며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그러나 손에 든 두툼한 종이묶음 같은것을 다시 어루쓰는것이였다. 그 어떤 귀중한 물건처럼 손가락을 곧게 펴서 문대는 그 모습에 우리의 호기심은 더욱 동했다.

우리가 그의 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자 그의 문을 풀어주련듯 다시 말을 이었다.

《이건 작품은 아니고 현지체험기록장입니다.》

그의 말에 우리의 호기심엔 더욱 불이 달렸다.

어떤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체험하며 기록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려고하는지, 그 기록장을 보면 작가의 관점과 자세에 대하여 얼마간이나마 느낄수 있을것 같았다.

몇번이나 거듭 청해서야 힘겹게 그 기록장을 내밀었다.

너성의 섬세한 손새가 느껴지게 묶은 두툼한 기록장의 첫장을 펼치니 붉은색으로 줄을 치고 표시를 뚜렷이 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정문정면에 모신 교시로부터 발전소건설터전을 잡아주시던 때로부터 그 운영과 원료보장문제, 노동자들의 생활조건보장과 뒤산에 나무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발전소의 역사를 다 말해주는 강령적지침들이 또 박박박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발전소의 능력과 련관부문들의 실태...

발전소의 전경과 매 직장들의 특징...

발전소구내의 새벽, 저녁, 밤풍경묘사...

청년직장의 사무실과 매 사람들의 인물묘사...

정말 없는것이 없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휴게실옷걸이에 걸려있는 작업복 하나를 놓고도 그 주인의 나이며 성격까지 제나름대로 분석묘사한 대목들이 인상적이었다.

심지어 어떤 기술서적의 접힌 부분이 무슨 대목이며 무엇을 위해 이 책을 보다 어디 갔겠는가 하는 상상묘사며 재털이의 담배꽂초까지도 그의 관찰기록에는 무심한것이 없었으며 그 모든것이 이곳 전력생산자들의 투쟁모습과 정신세계를 반

증하는 중요한 소설적세부들로 기록되어있었다.

한장한장 기록장을 번질수록 작가의 진지한 탐구심이 안겨왔다.

매 기대들의 조작과 관련한 기술적문제와 함께 무심히 오고간 노동자들의 한마디한마디의 말도 작가적인 안목으로 분석한 기록들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불러주었다.

이 하나의 기록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현실에 깊이 들어가 진지하게 사색하고 노력했는가를 엿볼수 있었다.

한광우위원장동무는 조용하나 힘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올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그날부터 우리는 깊이있고 진지한 자체학습과 토론, 협의회를 조직하고 우선 잡도리부터 든든히 하고 나섰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전투장은 어디인가.

올해의 총공격에서 우리 작가들이 서야 할 위치는 어디며 창작에서 어떤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가. ...

우리는 그 무슨 계획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작가적량심으로 받아안고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북창의 대동력기지로 첫 전투장을 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이어 현지책임자였던 김상현동무는 우리에게 많은 말을 들려주었다.

한마디한마디 들으면 들을수록 뜨거운 감동과 흥분을 건잡을수없었다.

매 직장별로 자기의 전투장을 따로따로 정한 작가들은 우선 취재나 실무적인 체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노동자들과 똑같은 차림새로 땀흘리며 함께 일하는 파정에 저도 몰래 가슴을 치는 충격을 안고 밤이나 낮이나 작가들의 일파에는 휴식이 없었다.

특히 열보수직장에 자진해들어간 박상민동무의 체험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기계공장의 용접공경력을 가지고있는 그로서는 열보수직장이 제일적합한 곳이었다. 그는 스스로 보수대상을 맡고나가 자신의 용접기술로 그곳 노동자들을 놀래왔다. 비좁은 배관들의 사이사이로 들어가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용접도 다 해냄으로써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한것은 물론 그때 용접티들로 인한 허물들이 그의 헌신적인 현실체험을 다 말해주고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류달리 어색한 인상으로 자주 손을 엇바꾸어 가리며 매만지던 그 허물자욱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참된 애국의 땀자욱을 현실에 새긴 작가의 고귀한 체험의 흔적이

였다.

이들모두는 올해의 첫 전투를 평범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단순히 원고지나 그 어떤 작품아래 쉽게 자기의 이름을 새기자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조국청사에 참다운 생의 흔적을 남기는것, 총공격전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호응하여 나선 우리 작가들의 열정과 신념은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진하게 스며인 현지창작품들이 다 말해주는것이다.

그들의 작품을 한편한편 볼수록 비상한 애국적 열의와 창조정신을 가지고 분발해 떨쳐 일어날데 대한 올해공동사설을 심장에 새기고 자나깨나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위훈으로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명작창작을 위해 헌신한 고심어린 나날들이 다 어려웠고 말로는 하지 않은 그들의 힘찬 대답이 우렁차게 들려왔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나팔수가 되고 혁명적대고조예로 불려일으키는 선도자가 되어 안온한 책상에서가 아니라 들끓는 전투장에서 창작된 이들의 작품들에서는 진한 땀냄새, 기름냄새가 났다.

단편소설 《공격수 1번》, 실화문학들인 《성장의 법칙》, 《직선주로》...

수필 《조국을 위하여!》...

수십편의 시가작품들...

이들의 작품에 아직은 더 기대할것이 많았지만 우리는 새해의 첫 전투에서 흘린 땀방울처럼 한 자한자 옮겨 현지특집란에 편집했다. ...

추고를 끝낸 작가들이 마치고 새로운 임무를 받아안고 나서는 병사들처럼 또다시 현지로 떠났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만납시다!》

얼마나 가슴 흔드는 약속인가.

또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또 얼마나 벅찬 흥분을 안겨줄 작품들이 우리의 지면에 오를것인가.

그들의 마지막말도 짧았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길지 않은 말속에서 어머니조국의 60년사에서 위대한 역사적전환이 아로새겨질 올해에 몇몇한 작품을 안고 또다시 만나자는 심장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다.

출근길

차명숙

새날의 려명과 함께
새로운 결의도 쏜듯
대동력기지—북창의 이 아침
저 하늘에
우리의 마음처럼 노을도 불타누나

나이드 모습도
서로 다른 수천의 얼굴이건만
마음은 하나
하나의 노을빛에 물들어
공격전의 돌파구를 여는 전투장으로
굽이쳐 흘러가는 힘찬 모습이어

수천의 자욱이여도
하나의 일념으로 새기는 발자욱 발자욱...
저 3대혁명붉은기직장
타빈운전공이며
전기직장 화학직장 처녀들의 눈빛에도
운영직장 기계공들 가슴에도
하나같이 맥박치는 열정의 숨결이 흐르누나

우리는 전기생산자!
그 자각이 가슴속에 불길처럼 뜨거워
만부하의 동음은
먼저 피줄속에 뛰고
맥박치나니

새날이 밝아도 만부하
날이 저물어도 만부하
꿈속에서도 만부하의 동음만
안고사는 그대들이기에
이 아침의 눈빛에도 그 맹세
힘찬 발걸음도 그 신념 새기나니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그 맹세
그 신념으로
출근만 있고 마음속 퇴근이란 없는
아, 여기 북창—대동력기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지켜
총공격전의 숨결 드높은
아침출근길이어!

직선주로

김성현

이른아침부터 기업소정문에서는 방송차의 경쾌한 선동음악소리와 방송원의 힘찬 목소리가 발전소구내를 들었다놓고있었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출근길에 들어서고있는 전기직장, 운영직장, 자동화직장 전투원들!

발전설비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전력생산을 높여야 한다는 올해공동사설 관철에서 앞장서 나가고있는 이들의 심장마다에는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할…》

대렬을 지어 자동화직장사람들과 함께 출근길을 다그치던 기봉은 김영호초급당비서의 정겨운 시선과 마주치자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오, 기봉동무로구만. 이제 후문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없겠지?》

초급당비서의 능청스러운 말에 함께 오던 직장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와 웃음을 터뜨렸다.

자동화직장 직장장 김윤식이 기봉을 감싸주려는듯 한눈을 깜적이며 말했다.

《후문이 아니요? 정문직선주로로 타고 질풍같이 달리는데요.》

직선주로!… 그 말속에서 기봉은 문득 얼마전 기술혁신의 나날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1

급수펌프축이동보호장치의 현장도입시운전이 저녁녘에 있었다.

치차처럼 맞물려진 전력생산에서 어느 한 공정만 튀어나가도 발전기는 멎고만다.

그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급수펌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하여 연구를 거듭한 끝에 축이동보호장치를 착상하였는데 드디어 시운전을 하게 된것이였다.

분석작업반 담당기사인 지춘아바이의 착상으로 설계된 보호장치의 기본장치가공을 직장에서는 기봉이에게 맡겨주었다.

직장에서 그의 기술이 그중 팬참은것으로 평가되고있는데다가 전망이 기대되는 그를 적극 내세워주자는 론의가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몇분 돌지 못하고 기봉이가 맡은 장치부분품의 가공오작으로 시운전은 실패하고말았다.

가공공구도 변변치 못한데다가 일찍 퇴근해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할 생각으로 서둘러 가공한 것이 끝내 일을 친것이였다.

시운전을 보려고 검사원격으로 나왔던 공업시

험소 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가버리고말았다.

펌프수리를 맡고있는 수리반장이 한숨을 쉬더니 짐짓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자넨 새세기영웅 김기봉동지와 이름만 같지 일본새는 영 판관이군그래.》

기봉은 꿀꺽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행히 예비펌프를 돌려 큰 사고는 없었지만 김윤식직장장은 기봉을 호되게 질책했다.

《고급기능공이 했다는게 그게 다요? 급수펌프가 멎으면 발전기 한기가 멎을수 있다는걸 모른다 말이요? 수만크바의 전력생산이 순간에 끊어진단 말이요.》

직장장의 엄한 추궁에 기봉은 가슴이 뜨끔했다.

큰 사고로 번졌으면 어쩔번 했는가.

기봉은 기가 질려 고스란히 욕을 먹었다.

저녁늦게 집으로 돌아온 기봉은 기술서적이 몇권 들어있는 가방을 벗어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아무래도 오늘 일이 체기를 받은것처럼 속에 매달려 내려가지 않았다.

기술혁신을 하는 과정에는 실패도 있기 마련인데… 이거야 너무하지 않는가. 공연히 나섰다가 오늘처럼 욕벌이나 할바에는…

자리에 누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척거리는 데 안해의 걱정어린 말이 들려왔다.

《좀전에 춘남동무가 왔다갔어요. 해주에 사는 삼촌네 집에 간다면…》

《뭐라구?!…》

불쑥 한작업반에 있는 춘남이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빈기술혁신조에 망라되어 창의고안을 하다가 몇번 실패를 하게 되자 사람들의 뒤소리가 듣기 거북하다면서 해주에 있는 어느 기계공장으로 갈 궁리를 하더니 끝내…

기봉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는 안해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다음날부터 기봉은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저어했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접이든 꼴을 보여주기가 싫었던것이다.

다음날부터 기봉은 될수록이면 정문으로 다니는것을 피했다.

2

직장장 김윤식은 지춘아바이와 실패의 원인을 놓고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제는 장치의 정밀도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한데 정밀가공공구도 변변치 않았고 여러가지 자재들을 구입하기도 어려웠다.

《보다 중요한것은 실패했다고 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을 할 때까지 끝까지 내밀어야지요. 그런데 기봉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현장에 나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춘아바이는 잠시 말을 끊고 뭔가 주저하는듯 하더니 인차 속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직장장동무, 기봉이를 너무 다귀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운전이 실패한데는... 제 잘못이 더 크지요. 정밀가공공구가 없어 애를 쓰는것을 보면서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했으니...》

지춘아바이의 자책어린 말에 직장장은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작업반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일에 제일처럼 원심을 써주고 무슨 일이든지 제가 책임지려는 지춘아바이의 모습에서 직장장은 믿음의 마음을 한껏 느꼈다.

3

저탄장쪽으로 나있는 좁은 담장사이로 들어오면 기봉은 공교롭게도 물관이 새여 흠뻑 젖은 석탄구덩이에 신발이 빠졌다.

《에잇, 아침출근부터 기분잡치는군.》

기봉은 질적하게 붙은 석탄을 털어버리느라 한참이나 지체했다.

직장에 들어서니 아침모임이 벌써 끝난 상태였다.

그가 작업반 문앞에서 들어갈가 말가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운전실패의 원인이 축가공에 있다면서?》

《오늘 저녁에 사고심의를 있다는데... 괜히 그런데 나서가지구.》

기봉은 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다.

제나름으로 쥘고까불던 두사람의 입이 동시에 굳어져 기봉을 바라보았다.

기봉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장에게 다가갔다.

《오늘부터 전 구내도로포장공사장에 나가겠습니다.》

기봉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작업반 휴게실 구석에 놓여있던 삽을 찾아들고는 밖으로 쐩 나가버렸다. 지춘아바이가 따라나와 기봉의 팔을 붙들었다.

《그게 무슨 말본새냐, 너 지금 허튼 생각을 하는게 아니냐?》

오랜 년한과 높은 기술능력을 소유한 지춘아바이를 기봉은 마음속으로 늘 존경해왔었다. 그러나 순간의 격했던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인지 기봉은 비뚤어진 대답을 했다.

《웁아요. 허튼 생각을 했어요. 되지도 않을 창고안이요. 발명이요 하면서 들떠있었었니까요. 난 오늘부터 내 일이나 착실히 하겠어요.》

지춘아바이는 일순 놀라운 표정을 지었으나 기

봉의 속마음을 짚어보았는지 조용히 말했다.

《물론 제 일을 잘하는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발은 어째서 온통 탄투성이냐?》

《물구덩이가 있는줄 모르고... 후문으로 들어오다가 그만...》

기봉이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짐작이 갔는지 지춘아바이는 허허 웃으며 말했다.

《길을 잘못 들었어. 그것보라구. 허튼 길에 들어서면 신세를 그르치기가 십상이거든.》

《내가 아무 길로 다니든 아바이가 무슨 상관이예요.》

기봉은 울곧지 않게 눈을 흘기며 공사장쪽으로 가버렸다.

기업소에서는 직장마다 일부 로력을 조절하여 공장구내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벌렸다. 기봉의 작업반에서도 한명이 동원되게 되어있었다.

기봉이가 자동화직장이 맡은 구간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뜻밖에도 초급당비서가 나와있었다.

초급당비서가 삽질을 걸싸게 해대며 우스개소리를 했다.

《방금 나오면서 분석반에 들려 〈분석결과〉를 들어보니 오늘 점심엔 온도반에서 따근따근한 국수를 준비했다면서...》

초급당비서의 말에 온도반 반장이 역습을 들이댔다.

《하, 그건 잘못 〈분석〉했습니다. 어제 이미 분석반에서 오늘 점심을 내기로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분석계기가 잠깐 고장났었나?... 하하...》

초급당비서의 능청스러운 말에 작업장에는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기봉이가 나온것을 띄여본 초급당비서가 어서 들어가라는듯 손짓을 하며 말했다.

《젊은 녀석이 어깨는 축 처져가지구... 어서 들어가서 지춘아바이를 도와 일을 다그치라구.》

기봉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나 결집에 나온 길을 도로 들어가기도 멋지게 생각되었다.

하는수없이 공장도시설에 가서 보이라급수펌프에 관한 기술서적들을 뒤적거리다가 퇴근시간이 되자 기업소뒤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기봉은 며칠전에 하다가 채 못다한 자전거수리를 끝내보려고 공구들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왔으나 어째서인지 아무 기분도 나지 않았다.

꼭 누구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때처럼 속이 허전했다.

불쑥 춘남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형님, 형님하며 따르던 그가 무척 보고 싶었다.

일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맥이 풀린 기봉은 공구들을 집어던지고 방안에 들어가 벌렁 드러누워버렸다. 그 모양을 보던 안해가 공구들을 제자리에 가져다놓으며 아니꼽게 말했다.

《당신 하는 일이 늘 그렇지요. 끝장을 보는데

없고… 꼭 쟁개비 꿔듯…》

4

그날 밤 밤이 퍼그나 깊어 지춘아바이가 찾아왔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로?…》

기봉은 오늘 작업에 빠진 일이 속이 썩겨 지춘아바이의 눈치만 슬슬 살폈다. 하지만 지춘아바이는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래일 기본장치부분을 다시 가공해야겠는데… 그때문에 좀 토론을 해보자는거다.》

《그 일때문에 왔다면 돌아가십시오. 난 이젠 그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뭐라구?! … 그게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지춘아바이의 말에 기봉은 물동을 터치듯 참고 참았던 분격을 터뜨렸다.

《진심이고 뭐고 함께 있어요? 그런걸 해봐야 욕별이나 했지 얻는게 뭐가 있어요… 만약 실패라도 하면 책임져줄 사람이 있을것 같아요? 나도 이젠…》

그 순간 지춘아바이의 마디굵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방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이녀석, 생각했다는게 고작 그거냐? 뭐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고?!… 오늘 연합에서 사고심의가 있었다. 네 잘못으로 생긴 사고를 직장장과 초급당비서가 추궁을 받았다. 한창 젊은 네가 추궁을 받으면 기가 꺾일가봐… 그때문에 네가 주눅이 들가봐 말이다.》

지춘아바이는 목이 메어 더 말을 못하더니 가지고온 보따리를 풀어헤쳤다. 그속에는 기봉이가 그토록 구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정밀가공공구들이 들어있었다.

《봐라, 네가 집에 들어와 편안히 누워있을 때 직장장은 온 기업소를 다 뒤져내어 이걸 마련했다. 그래도 모자라는 공구들을 구하느라 다른 공장들에 전화를 걸고 수신허길을 헤맸는데 어쩌면 한다는 소리가…》

전등불빛에 반사되어 알른거리는 공구들을 보는 순간 기봉의 머리는 저절로 수그러졌다.

직장일꾼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있는줄을 기봉은 너무도 늦게야 깨달았던 것이다.

기봉은 배은망덕한 자신의 행동이 너무도 민망스러워 지춘아바이의 손을 와락 부여잡았다.

《아바이, 저를 때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덜된놈이었습니다.》

기봉은 깊은 자책으로 하여 마음속으로 흐느껴 울었다.

기봉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지춘아바이는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기계는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있어. 30년세월을 예전모양 그대로 돌고있지.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과학기술도 발전해야 할게 아닌가. 더구나 최첨단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는 청

년기술자들이 저 하나의 편안한 길을 찾으려 길을 에돌아 다닌다면 우린 얼마나 뒤떨어지고 낙후해지겠나.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우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청년기술자들은 높은 과학기술성으로 달려가도 직선주로를 타고 달려야 할게 아닌가 말이네.》

지춘아바이의 말은 기봉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5

참으로 상쾌한 아침이다. 정문앞 가로수 우듬지에 한쌍의 까치가 앉아 새소식을 전하려는듯 풍지를 들까불며 깍깍거리는 소리가 방송차의 선동방송소리속에 들려왔다.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걸던 기봉은 곁에서 걷고있는 춘남을 돌아보았다. 판곳으로 직장을 옮기려던 춘남이도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결심으로 출근길에 오르고있었다.

서로 다정히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일터로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삶의 긍지와 보람이 한껏 어려있었다.

기봉이와 지춘아바이가 합심하여 성공시킨 급수펌프축이동보조장치는 국가에 많은 이익을 준 가치있는 발명으로 평가되어 과학기술축전에서까지 당선되는 영예를 지니었다.

온 기업소의 축하를 받는 속에서 기봉의 어깨에 꽃목걸이를 걸어주던 수리반장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기봉이, 정말 큰일을 했어. 내 이전에 모진 말을 했던걸 용서하라구. 그런데 유감스러운것은 자네 덕에 우리 작업반사람들이 〈실업자〉가 된걸세. 글썄 고장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할일이 없어졌거던.》

수리반장의 말에 자동화직장 사람들이 와 하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즐거운 그 웃음속에는 장한일을 한 지춘아바이와 기봉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짙게 깔려있었다.

발명증서를 수여받던 날 기봉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했다.

《발명은 결코 저희들이 한것이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세라 바로 잡아주고 운명을 책임져주는 동지의 사랑, 그 어디에 있든 모두 한품에 안아선군시대의 땃땃한 청춘으로 삶을 빛내여주는 당의 품이 없었더라면 발명도 없었을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우리는 더 높은 과학기술성으로 오직 직선주로를 달릴것입니다.》

대오가 흐른다.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역센 대오가 보무당당히 정문에 들어선다.

공장구내에는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보이는듯 아침해살이 찬연히 비쳐들고있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자동화직장에서—

전력공의 목소리 (외 1 편)

박상민

쉽게는 말하지 않는다
여기 북창의 전력공은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온 나라가 다 듣는다

장엄하다 그 목소리
북방의 철의 기지 용해장
전기로의 동음속에서 그 목소리 울리고
두줄기 은빛궤도를 달리는 전기기관차
나라의 동맥이 뛰는 기적소리에서 울린다

은은하다 그 목소리

온 나라를 배움의 전당으로 부르며
평양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에서 울리고
아기들의 궁전 평양산원
불밝은 창가에서 자장가로 울리거니

오 전력공의 목소리는
저 거세찬 발전기의 동음소리!
우리 장군님 전선길 굽이굽이에서
정답게 들어주시는 소리!
내 조국의 숨결소리다!

《명 의사》

열설비보수공이여!
그대의 량심이 깨끗할 때
보이라는 튼튼해지고
발전소는 《청춘》을 빛내리

그대의 깐지고 근면한 손은
《내과의사》의 손과 같아

발전소의 보이라를
정성담아 쓰다듬을 때

우리 수령님 세워주신 발전소
우리 장군님 빛내주시는 발전소를
영원한 《청춘》으로 내세우는
조국이 아는 《명 의사》가 되리!

나의 어깨

김봉남

나의 어깨는 크지 않다
허나 내 어깨우에는
크나큰 조국이 실려있다

그래서 나는 금지도 높은
우리 장군님 언제나 제일 먼저 불러주시는
조국의 숨결을 책임진 전력생산자!

새해공동사설 펼쳐들면
더더욱 금지롭다
경제건설전선의 맨 앞자리!

오, 나의 어깨우에서
조국의 숨결이 높아지거니
나의 어깨로 조국을 받든다

《조국을 위하여!》

송혜경

장엄한 총진군이다.

공화국창건 60돐이 눈앞에 있다.

불, 불!... 전기, 전기!... 어디서나 요구되는것은 전기이다.

탄광, 용광로, 철도... 동력은 생명이다.

북창이 숨쉬면 조국이 더 큰 숨을 쉬고 북창의 숨결이 약해지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

기계, 화학, 건재, 립업...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북창의 타빈에 동음을 맞추었다. 인민생활향상의 온갖 기쁨이 북창의 화실에서 꽃피어오른다.

우람찬 타빈, 보이라기계실의 웅좌, 그 앞뜨락에 일떠선 고압전주들의 울창한 밀림... 이것이 북창이다.

여기에는 누가 사는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기본은 운영직장이다.

타빈과 발전기, 보이라, 기계실이 운영직장의 전투장이다.

그 전투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보통크기의 소박한 문이었다. 그우의 공간벽에는 적의 화점을 향하여 육박하는 리수복영웅을 형상한 미술작품 한 폭이 걸려있었다.

대학시절에 강선의 용광로와 김철의 압연장에서 그 화폭을 보았던 나에게는 어쩐지 아담하고 깨끗한 이 방의 분위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아직은 화력발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가늠할수가 없지 않을가 하고 마음속 위안을 하며 나는 그저 보통집 출입문을 열듯이 무심히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웅— 하는 거세찬 진동음이 나를 열풍속으로 끌어당겼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내앞에는 거대한 기계의 산악이 마주서있었던것이였다.

그것은 골짜기가 깊고 메부리가 높은 산악과도 같이 느껴지는것이였다. 올라다보고 내려다보아도 그저 아찔하고 어마어마해서 간담이 서늘해졌다.

벽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이 지나간 증기도관들, 집체같은 고속타빈과 발전기들, 가로세로 뻗어간용수관들과 급유관들... 화차방통같은 석탄분쇄기들이 짹짹 소리를 내며 구울러갔다.

여기서 인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전기를 위하여 가장 격렬하고 세밀한 창조적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속에서 기계를 다루는 인간은 너무도 작게 느껴졌다. 한결같이 노란 안전모를 쓰고 검은 작업복을 입은 로동자들속에는 처녀들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3호타빈 사적기대앞에서 운전공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큰소리로 물었다.

《몇살이에요?》

코밑에 숨털이 보르르한 애송이 운전공총각은 생긋이 덧이를 드러내보이면서 손가락으로 허공에 열아홉이라는 수자를 그려보였다. 애어린 나이에 사적기대를 운전하는 총각이 대견하여 나는 그의 좁은 어깨를 두드려주고나서 작업복 가슴주머니에 꽂혀있는 붉은 빛갈의 탄가루가 묻은 수첩을 손짓해보였다.

《좀 볼수 없습니까?》

또 한번 생긋 웃고난 타빈운전공은 나에게 수첩을 뽐아주었다. 타빈현장운전공의 의무와 운전조작법 등이 깨알같이 기록된 수첩의 첫장에는 누구나 다 아는 리수복영웅의 시가 적혀져있었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리수복

그 시밀에 《리수복영웅과 리진호》라고 자그마하게 쓴 글이 적혀있었다. 나는 자못 이상하게 생각되어 그에게 물었다.

《이건 누구의 이름이에요?》

대견스러워만 보이는 운전공총각은 역시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건드려보였다.

《아, 그러니 이 리진호라는 이름이 동무의 이름이였군요.》

그러자 타빈운전공총각은 처음으로 나의 귀에 대고 소리쳐 말했다.

《우린 영웅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항상 비추어보며 시를 외워보군 합니다. ...리수복영웅의 그 시야말로 우리들의 심장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심장의 고백이라?! ... 것처럼 진동하던 타빈의 거창한 동음이 순간에나의 심혼속에서 정지돼버린듯 했다. 나의 경탄을 자아내면서 위압감을 주던 온갖 기계의 산악은 서서히 눈앞에서 낮아져 버렸다. 대신 그리도 작고 연약해보이던 타빈운전

공총각의 모습이 거인처럼 솟아오르는것만 같았다.

나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타빈, 발전기의 현상이 아니라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의 고지 한복판에서있는듯 한감을 느꼈다. 나의 상상속에서 진호는 적화점으로 육박하는 리수복영웅의 모습과 합쳐졌고 심장의 고백이라고 하던 웨침소리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리수복영웅의 웨침과 공명되어 나의 고막을 울리는듯 했다.

이때였다. 보이라의 판이 터지면서 물이 새여나왔다.

어떻게 할것인가?! 뜻밖의 정황이었다.

나의 눈앞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기계를 세우고 여유있게 수리할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조국은 순간이나마 전진의 결

음을 멈추게 될것이 아닌가!...

그들은 기계를 세우지 않고 리수복영웅이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는 정신으로 고장개소를 수리해내었다.

《조국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복창은 이렇게 견인불발의 의지로 전진하고있었다.

한초 또 한초... 그 넓은 전투장, 석탄이 분쇄되는 깊은 작업장과 보이라의 화실앞, 타빈과 발전기의 앞에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결사의 각오를 품은 순결하고 열렬한 21세기의 리수복—복창의 로동계급이 서있다.

전기는 바로 그들이 심장으로 보내는것이다.

조국이며, 마음껏 설계하고 마음껏 창조하라!

쇠물의 노래

안명애

아이참
뿔때문에 생각할가
함께 일을 해도
다정한 말 한번도
나눈적 없는 그를

다른 교대보다
출강시간 당기지 못해도
배전공 내탓인듯
받으려는 황소갈던 그를

그뿐인가 뭐
제가 쇠물을 알면 얼마나 알가
제대된지 1년도 못됐는데
전압올렸, 내렸
용해장이 훈련장인줄 아나봐

하지만 어쩌면 좋아
남몰래 감추려 해도
자꾸만 그에게 끌리는 마음

가사

처녀가 자존심도 없이
글쎄, 이게 뭐야

능청스러워
그 똑한 성미에도
출강중 울릴 때마다
싱긋
웃음을 던지던 그때뿐일가

난 알아
출강시간 앞당겨
한차지 쇠물이라도 더 내려는
그 불같은 일숨씨
그 불같은 심장에 반한걸

내가 왜 이렇가
빨갳게 단 내 얼굴을
쇠물이 다 보고있는데
아이참
나도 몰라

아버지의 당부

한광우

애어린 그 시절 서투른 솜씨지만
네 그린 소묘엔 송진탑만 솟았구나
조국애 꽃망울 네 가슴에 망울지는
아들아 꿈속에도 그 마음을 키워가거라

학교길 오가는 고향의 언덕에서
발전기 그 동음에 기뻐서 웃는구나

조국을 위하여 큰 희망을 자래우는
아들아 어서 커서 그 희망 펼쳐가거라

더 높이 비약할 조국의 래일에는
너희들 주인될 대동력기지란다
위훈의 대를 이어 조국을 받들어갈
아들아 부모들의 그 뜻을 꽃피워다오

성장의 법칙

홍남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는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중추적역할을 하는 굴지의 화력발전기지이다.

196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당자리를 골라 발전소를 세워주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이곳 발전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전력생산을 위해 자기의 성실한 땀과 량심을 사심없이 바쳐오고있다.

그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송전선으로 흐르는 전류를 타고 지금 이 시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다. 그 가지가지의 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내가 붓을 든것은 발전소에서 조직한 청년돌격대를 소개하고싶어서였다.

첫 인상

—허철남의 이야기(1)—

…사람은 사랑과 우정으로 마음이 오가고 어떤 공통된 지향으로 뭉치는듯싶습니다.

성격도 취미도 리상도 다른 백여명의 우리 돌격대원들이 서로 융합되고 한데 어울릴수 있는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가 아닌지. …

우리 돌격대의 과반수는 아직 현실을 보고 대하는데서 중심이 깊지 못한 20살미만의 청년들로 조직되어있습니다. 이런 애어린 청년들속에서 벌써 2년나마 소대장을 해온 나는 그 누구보다도 돌격대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는 제만의 자부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에 와서 나는 돌격대에 대하여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전만철대장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돌격대에 온것은 몇달전이었습니다.

어느날 발전소책임비서동지한테서 새 대장이 임명되어간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 대장이 온다!…)

모두가 자기나름의 추측과 판단으로 새로 오게 될 대장을 상상해보았습니다.

나는 몇살일가? 제대군인일가? 성격과 취미는…

우리는병실마당에 나와 서성거리며 대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차 병실쪽으로 낮익어 보이는 한 청년이 걸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치떴습니다. 저 동무가 설마 우리 대장으로? … 이름이 뭐더라… 나는 그와 한번도 말을 해보지못했지만 ××직장 청년동맹비서였다

는것은 알고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굴리는동안 그는 곧바로 내앞으로 걸어와 서는것이였습니다.

《함께 일해봅시다. 전만철이라고 하오.》

《…》

나는 얼결에 그가 내민 손을 잡아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별스레 나긋나긋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동무가 대장으로!…)

나는 눈가에 웃음을 짓고 서있는 그를 무안스러울 정도로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늘씬한 키에 처녀들처럼 얼굴이 희다고 느껴질뿐 별로 특징적인데는 엇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녀들처럼 연약해보이는 그가 우리 돌격대를 꽤 통솔하고 이끌어 나갈수 있겠는지 가늠이가지 않았습니다. …

그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작업장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소대단위로 병실앞에 정렬하였습니다.

지휘부출입문이 열리더니 전만철이 나타났습니다.

전만철은 병실앞계단을 성큼성큼 걸어내려와 대렬앞에 섰습니다.

《야, 눈이 다 부시다야!》

《우리 대장이 정말 멋쟁인데…》

《세살난 딸이 있대.》

대렬속에서 저희들끼리 속삭이는 처녀들의 말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처녀들의 말처럼 그의 옷차림은 흠잡을데가 없었습니다. 끈을 가튼히 졸라맨 신발이며 주름발이 선 바지, 하얀 목달개…

나는 슬며시 내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기초구덩이를 파면서 신발에 묻은 흙은 그대로 붙어있었고 바지 한쪽가랑이에는 뜯어져 실밥이 허영게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작업복으로 입는 바지가 그렇지. … 나는 이렇게 자신을 위안했습니다.

전만철대장은 자기가 직접 대렬검열을 하겠다고 말하고나서 우리 소대앞에 와섰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대를 훑어보고는 직방 내 신발부터 내려다보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언뜻 눈길을 들어 나를 마주보는것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종잡을수 없는 표정이 비껴있었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장의 감정을 자극한듯 전만철은 몸을 책 돌려 다음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젠장…》

왜서인지 스스로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어쩌서 그런 웃음을 지었을까? 내가 주눅이 들 까닭이 무엇인가… 작업신발에 흙이 좀 묻을수도 있는거지. …

문득 나는 2소대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느사이엔가 벌써 2소대쪽으로 넘어간 전만철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기때문이었습니다.

《금주동무는 화장을 하지 않았구만.》

《금주동문 손바닥이 부르터 화장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2소대의 누구인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동무들이 대신 해줄수도 있지 않소. 금주동무는 곱게 생겼는데 화장을 하면 더 고울거요. 아름다움이란 자신한테만 필요한것이 아니요. 화순동무가 함께 들어가 해주오.》

키가 호리호리하고 성격이 차분한 차금주는 옷을 때면 랑볼에 볼우물이 살짝 패이곤 하는 돌격대의 혁신자였습니다.

머칠전부터 우리 돌격대가 《명당원》건설을 시작하였는데 차금주는 남자들과 짝패가 되어 맞들이로 혼석을 나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부르터 화장을 못하고 나온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한들 대장이라는 사람이 처녀들의 화장문제에까지 신경을 쓴다는게 나로서는 어지간히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나의 입에서는 부지중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로 온 대장에 대한 실망을 너무도 빨리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오늘보다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어쩌다 차례진 휴식날이었습니다. 나는 이 휴식일에 무엇을 할까 궁리하다가 간밤에 내린 비에 넘쳐난 수로를 보고 물고기잡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슨 비가 이렇게 와…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3소대장이 문턱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들겨렸습니다.

《여, 3소대장동무… 그러지 말구 나가서 고기잡이나 하는게 어때?》 《1소대장은 마음이 편한 모양이구만. 고기잡이생각을 다 하구… 그런데 고기가 어디 있어?》

《저기 수로관속에…》

나는 수로와 도로가 교차되는 곳에 묻어놓은 콩크리트관을 손으로 가리키고나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강에서 흘러나온 물고기들이 수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로 저 수로관속에 숨어있단 말이요.》

나는 즉시로 대원 몇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수로관 옷쪽을 흙마대로 막아버렸습니다. 수로관

아구리가 터지게 쏟아져나오던 물이 서서히 줄며 바닥이 드러나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깔린 물을 따라 물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아 연방 수로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의 기분이란 참!…

《이게 무슨짓이요?》

나는 머리우에서 울리는 소리에 놀라 손에 잡았던 물고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꽤 큰놈이었는데…

고개를 들어 수로쪽우를 보니 전만철이 나를 노려보고있었습니다. 어찌나 흥분했는지 낫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나는 눈을 껌벅거리며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전만철은 나와 더 상대하고싶지 않다는듯 아무말도 없이 몸을 돌려 수로관 옷쪽으로 달려가 제 잡담 수로에 퐁당 뛰어들었습니다.

시뻘건 물이 그의 가슴노리에서 태질했습니다.

《아차!》

나는 그제야 실책을 깨달았습니다. 수로를 막아버려 물이 넘쳐나 우리가 일하던 작업장쪽을 침범하고있었던것입니다.

물속으로 사라졌던 전만철이 몇초후에 불쑥 솟구쳤습니다. 그는 꾹 힘을 쓰며 끌어올린 흙마대를 수로쪽너머로 내던졌습니다.

그때야야 정신이 번쩍 든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

북쪽으로 절레조박같이 흩어진 비구름이 꾸역꾸역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락하게 젖은 옷을 그냥 입은채로 ब्ल크를 깔고 앉아있는 대장한테로 다가갔습니다.

《대장동무, 안됐습니다. 나때문에…》

《난 동무가 그렇게 지각이 없는줄 몰랐소.》

나는 심한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반박하고싶었지만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대원들은 우리 지휘관들의 행동을 순간순간 지켜보고있소. 그래 동무가 이걸 모른단 말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감정이 내키지 않았으나 이렇게 수궁하고 돌아섰습니다.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싫은소리를 듣는다는게 자존심이 상했던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나는 그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작업하다가 남은 얼마간의 세멘트를 손달구지에 실어 읍에 있는 어느 한 집으로 대원들을 시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달구지가 얼마후에 대장의 손에 끌리워 되돌아올줄이야. …

전만철은 손달구지를 곧장 세멘트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대장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대장동무, 어찌자는겁니까?》

나는 울곧지 않게 물었습니다.

전만철은 고개를 나에게로 돌리며 웨치듯 물었습니다.

《동무가 세멘트를 읍에 보냈소?》

나는 그가 뻔한것을 묻자 속이 뒤틀려 엇서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비물에 젖은 쓰다 나머지가 있기에 좀 보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라구?! 뭐가 잘못됐느냐구?...》

그의 날카로운 눈길이 내 얼굴에 구멍을 뚫을 듯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 지나자 예상외로 얼굴을 돌리며 조용히 그러나 그루를 박아 정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썩 가오, 보기 싫소. 쓰다 나머지라구? 지금이 〈명당원〉을 어떻게 건설하고있는지 그대 동무가 모른단 말ियो?》

난 동무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옹화묵과 할수 없단 말ियो.》

《뭐라구요?! 그럼 내가 절취를 했단 말입니까?》

《다른게 절취요? 동문 우리 돌격대에 있을 자격이 없소.》

《대장동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돌격대에서 나가겠소.》

나는 쓰거운 웃음을 던지고 돌아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방향없이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돌격대가 아니라도 난 갈 곳이 많아. 발전소에 들어가 남들처럼 일하면 그만이지....)

생활의 흐름

—전만철의 이야기(1)—

밤!...

나는 점도록 창박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못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돌격대처녀들의 눈동자와 같은... 금주, 화순이...

문득 별들사이로 1소대장의 얼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더군요. 그러자 갑자기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1소대장에게 너무한게 아닐가?... 사실은 그가 우리 돌격대에서 자기 위치를 알도록 해주려고 한것인데...)

사실 나는 그에 대해서 단점보다 우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직선적인 그는 자기의 사생활까지도 툭 털어놓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돌격대에 다른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

던 여러명의 처녀들이 새로 배치되어왔는데 그날 저녁 그가 나를 슬그머니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동무, 한가지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무슨 일ियो?》

여느때없이 심중한 그의 표정을 본 나는 은연중 긴장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은심동무를 우리 소대에 넣어주십시오.》

《아니 왜 하필이면 꼭 그 동무를 넣어달라고 하오?》

《대장동무한테 숨길게 뭐 있겠습니까? 그 동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니다. 부탁입니다.》

《마음에 들다니?!... 동무야 이미...》

《야, 누가... 참 대장동무두, 내가 아니라 우리 동생에게 소개해주려고 그렇니다.》

《아 그렇다면 그렇다고 진작 말할 노릇이지... 동무요구대로 해주겠으니 꼭 성사되도록 하오.》

나는 그에게 얼마전에 군대에서 제대되어온 동생이 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세포비서 서정남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소?》

《대장동무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소?》

나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두툼한 책이 눈에 띄여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책ियो?》

《〈중요한 대지〉라는 문학작품집인데... 읽어보겠소?》

《후에 보겠소. 요즘엔 바빠서...》

《정말 대장동무가 요즘엔 소설책을 보는것 같지 않소.》

그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소설책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질군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입니다.

그가 느닷없이 한숨을 길게 내그었습니다. 그 한숨소리가 웬일인지 이상하리만큼 내 귀를 자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좀전에 1소대장을 건설장에서 봤소. 창고앞에 흘린 세멘트를 쓸어모으다가 날 보더니 피하는게 아니겠소. 그도 아마 내심 뉘우쳐지는데가 있는 모양ियो. 듣자니 그 동문 자기가 어릴 때 한마을에서 살던 한 전쟁로병할머니네 집 창고를 수리해주려고 했던것 같소.》

《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무, 나도 대장동무가 나 어린 술한 대원들을 거느리고 마음고생이 많으리라는것을 알고있소.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해 안됐소. 1소대장일도 내가 관심을 더 돌렸더라면 그를 도와줄 생각도 다르게 할수 있었을텐데...》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정남! ... 나보다 한살 우인 그는 확실히 응심이 깊은 사람

이었습니다. 《이젠 퇴근합니다. 연경이 엄마가 눈이 까매서 기다리고있을거요. 참, 대장동문 연경이 엄마와 련애를 몇년동안이나 했다면서?...》

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포비서가 심각해진 나의 기분을 능쳐주려고 일부러 안해말을 꺼냈다는것을 느꼈기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머리속에 안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정남의 말처럼 나는 안해와 사친지 몇해가 넘어서야 결혼을 하였던것입니다. 그 리유는 안해가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내건 두가지 결혼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혼조건이란 내가 공장대학을 졸업하고 기사가 되는것과 함께 입당을 한 다음에야 결혼을 허락하겠다는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안해의 그 결혼조건을 꽤히 접수했고 정확하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당신의 그 결혼조건이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은 아마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오.》

이 말은 언제인가 안해가 결혼조건을 내세우던 그때를 추억하며 내가 한 말입니다.

《너자들이란 걸으로는 연약하고 단순해보이지만 마음속은 남자들보다 더 웅심깊거든. 내 여담삼아 이야기를 하나 하라오?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오니 장모가 <애아버지야, 또 딸을 낳았구나.> 하지 않겠소. 그래 나는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딸이요?! 좋군요. 내가 바라던대로 됐군요.> 하고 대답했소. 그랬더니 안해가 눈물을 왈칵 쏟으며 벽쪽으로 얼굴을 돌리는것이 아니겠소, 허허...》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오늘처럼 생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적은 별로 없었던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입이 무거운 사람이였거든요. 필경 그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암시하고있었습니다.

(세포비서는 나한테서 무슨 단점을 보았을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할가. ...)

나는 서정남과 함께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못별들이 총총했습니다. ...

1소대장은 벌써 닳새가 지났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소대 대원들은 사기가 한풀 꺾인듯 했습니다. 나는 발밑에 먼지를 풀썩풀썩 일쿠며 1소대장이 넘어간 고개길을 자주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루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고개길에 고즈넉한 어둠이 내려왔을 때면 나는 남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굳게 믿고있을 그의 안해의 얼굴이 떠올라 섣불리 걸음을 내짚지 못했습니다. 나는 1소대장의 안해를 잘 알고있었던겁니다.

그의 안해는 성실하고 소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녀인의 얼굴에 그늘을 지어주는것은 죄라고 생각되었던것입니다.

1소대장이 나타난것은 그로부터도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내가 1소대 대원들과 함께 벽체미장물탈을 이기고있는데 3소대장이 1소대장의 팔을

잡아끌고 내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장동문 아마 모를겁니다. 이 동문 벌써 3일째나 여기에 나타났었습니다. 난 그걸 알고있었지만 우정 못 본척 했습니다. 좀 더 가책을 받으라고말입니다. 제가 가면 어딜 가겠다고... 이젠 정신이 좀 들었을겁니다.》

3소대장은 격한 어조로 말했지만 눈가에는 웃음이 비껴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1소대장의 머리가 3소대장의 가슴을 떠박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3소대장은 몸의 균형을 잃고 비칠거렸습

니다.

《정신이 들었다. 들어도 푹푹히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1소대장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

하더군요.

《대장동무, 날 다시 받아주십시오. 난 돌격대를 떠나선 못살것 같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르르 해지는것을 느끼며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뭘 그러오. 이렇게 왔으면 됐지.》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도 역시

감정이 여린 사람이였습니다. 1소대 대원들이 우르르 밀려와 자기 소대장을 에워쌌습니다.

푸르러 설레는 조국산천에

심어 가꾼 한그루 나무도 없이

...

치녀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름할수 없는 새삼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그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사랑하고있는가. ...

...무연하게 펼쳐진 꽃밭으로 《아버지!》 하며 팔애가 달려왔습니다.

《연경아!》

나도 팔애를 부르며 마주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팔애와의 간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팔애도 안타깝게 아버지를 부르며 쿵쿵 뛰어왔지만 제자리걸음만 할뿐입니다. ...

책상위에 엇갈아엮은 팔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던 나는 누구인가 어깨를 건드리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책임비서동지가?...》

나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좋은 꿈을 꾸셨나?》

책임비서는 사업상문제를 내놓고는 만날 때마다 너나들이로 말하곤 했습니다.

《꿈에서 팔애가...》 하며 나는 뒤통리를 긁적거렸습니다.

《집에서 딸이 기다리는 모양이구만.》

벽에 붙여놓은 긴의자에 앉아 이것저것 묻던 책임비서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움쭉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젠 집으로 가자구. 10시가 넘었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강쪽에서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병실마당에는 책임비서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타라구.》《전 걸어가겠습니다.》

《타라는데...》

나는 하는수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발전소를 빠져나온 승용차는 읍거리를 달리었
습니다.

운전사는 웬일인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힘들지, 대장!》

책임비서는 내 손을 잡아쥐었습니다. 그의 손에
서는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내 언젠가도 말했지만 돌격대는 일만 중시해
서는 안돼. 우리 기업소가 돌격대를 조직하고 많
은 일감을 동무네한테 맡기는것은 순수 기업소에
서 제기되는 급한 일을 처리하자는데만 있지 않
아. 돌격대원모두가 직장들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몫을 당당히 맡아할수 있도록 키우자는데 있소.
이렇게면 돌격대는 <신병훈련소>와 같다고 할수
있지. 그 임무가 동무나 세포비서 그리고 소대장
들에게 부과되어있다고 할수 있소.》

책임비서의 말처럼 우리 돌격대는 특수한 성격
을 띠고있습니다. 나와 세포비서 그리고 소대장들
과 몇명의 기능공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얼마간
의 돌격대생활을 끝마치고야 각 직장들에 배치를
받아 가군 하였습시다.

(그러니 나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

승용차는 낯익은 집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책임비서의 집이었습니다. 운전사가 뒤를 돌아
보았으나 책임비서는 혼자생각에 잠겨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습니다.

승용차는 군문화회관 옆길로 들어섰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승용차는 농민시장쪽으로
나진 길로 곧바로 올라가고있었습니다. 바로 농민
시장 옷쪽에 새로 이사한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대장,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말라구. 사람이 일
을 하자면 충분히 휴식도 해야 해. 그리고 무슨
일이든 잘 안될 때는 혼자서 갑자리지 말고 사람
들과 토론도 하고...》

승용차는 한 고층살림집밑에 멈춰섰습니다.

책임비서는 제먼저 차에서 내리어 고개를 젖히
고 고층살림집을 올려다보는것이었습니다.

《대장네 집이 3층이지? 불이 아직 켜져있구만.
빨리 올라가오. 안해가 기다리겠는데...》

《책임비서동지, 우리 집에 올라갔다 가십시오.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후에 한번 오지. 우리 집에서 로친네가 기다
리고있을거요. 늙으면 금슬이 더 깊어진단니까.
...》

책임비서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승용차가 멀어져가도록 한자리에 서있던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가에는 불빛이 환했습니다. 오늘따라 불빛은
유난스레 밝은듯 싶었습니다. 안해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불을 끄지 않은 했던것입니다.

레사롭게 생각되던 그것이 오늘따라 가슴에 쿵
마쳐오는 까닭은 무엇인지?...

내가 집에 들어서니 그때까지 잠들지 않고있던
안해가 나를 마중했습니다.

《오늘은 못 들어온다고 하더니?!...》

《연경이가 보고싶어 들어왔소. 그리고 당신도
...》

안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나를 유심히 쳐다
보았습니다. 하긴 내가 그런 말을 하기는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을테니까요.

《당신은 저때문에 우정 들어왔군요. 전 일없어
요. 이젠 습관이 된걸요. 전에는 당신이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생각에 고까운 감정도 없지 않았어
요.》

하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 당신이 저
와 연경이보다 돌격대일에 더 많은것을 바치는것
을 기쁨으로 생각해요.》

《여보! 고맙소.》

나는 안해의 손을 잡아쥐었습니다. 형언할수 없
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그들먹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을 끄고 자오.》

나는 쉼근거리며 자고있는 딸애의 모습을 이윽
도록 지켜보았습니다. ...

깊은 호수

—허철남의 이야기(2)—

첫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에 밝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병실마당에서 돌격대원들이 왁작 떠들며 눈싸
움을 하고있었습니다. 이쪽편과 저쪽편이 던지는
눈덩이들이 포물선을 그으며 서로 교차되곤 했습
니다. 어떤 눈덩이들은 공중에서 서로 부딪쳐 마
치 축포마냥 눈보라를 날리며 떨어지곤 했습니
다.

(안해가 병원에 갔을가?)

나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줄곧 안해에 대한 생
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미 만삭이 된 안해는 아침에 나에게 몸이 이
상하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안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돌격
대에 전화를 하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던것이였
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런데 대
장동문 왜 아직 나오지 않을까?)

전만철이 지금처럼 아침출근이 늦어져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남보다 30분
가량 먼저 나와있곤 했었습니다.

그가 휴게실에 들어선것은 한시간가량 지나서
였습니다. 급하게 뛰어온듯 얼굴에 땀이 즐벅하게

내배여있었습니다. 그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만철은 서둘러 작업지시를 주고나서 전화기로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동무, 군병원에 좀 갔다와야겠습니다. 처가 당장 해산을 할것 같은데…》

전화기를 켜 전만철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중으로 내부벽체미장을 끝내야 하겠는데 소대장동무가 없으면 어떻게 하오? 아무 일도 없을테니 걱정말고 대원들을 데리고 작업장으로 나가오.》

나는 아연해져서 한동안 그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걱정말라구?!… 당장 해산을 한다는데 어쩌면…)

나는 저런 사람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고 속으로 한탄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세멘트사건이 있는 후부터 나는 그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사업전개력이나 사물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높은 통솔력… 이것은 그의 커다란 장점으로 보아지는 측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망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수없이 대원들을 이끌고 작업장으로 나갔지만 교통속에 몸부림칠 안해생각으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끝내 나는 참아내지 못하고 부소대장에게 간단히 사연을 말하고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층층계단을 두세개씩 뛰어넘으며 해산실로 올라갔습니다.

해산실앞에 이른 나는 깜짝 놀라 우뚝 멈춰섰습니다. 해산실 문옆에 놓인 의자에 전만철의 안해가 다소곳이 앉아있었던것입니다.

《소대장동무군요. 지금 한창 해산을 하고있는중입니다. 마음놓으세요. 다 잘될겁니다.》

나는 그 녀인의 말을 꿈속에서 듣는듯싶었습니다. 그후에 어떻게 병원문을 나섰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녀인이 내 뒤를 따라나오며 아들을 순산했다고 하던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 난 사람이 아니구나. 대장동무,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소? 너무하오.》

나는 발길이 닿는대로 허둥지둥 걸어가며 실성한듯 중얼거렸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전날 저녁에 세포비서 서정남으로부터 안해의 해산이 림박했다는 얘기를 들은 전만철은 그날 아침 안해의 해산날자를 알아보려고 우리 집에 들렀었다는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가보니 나는 이미 출근을 한 상태였고 안해 혼자서 불편한 몸을 가누며 병원으로 갈 차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놀란 전만철이 급기야 기업소에 연락을 해서 차를 불렀습니다.

차가 도착하자 전만철은 안해와 함께 연경이엄마까지 태우고 병원으로 보내고서야 비로소 출근을 했던것이었습니다. 그의 아침출근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것이었습니다.

내가 돌격대로 돌아가니 전만철은 우리 소대대원들과 함께 맞들이에 몰탈을 퍼담고있었습니다.

나는 성내듯 머리를 수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가 손에서 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맞들이에 몰탈을 외락외락 퍼담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소, 해산을 했소?》

그가 옆으로 비켜서며 물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확 피여났습니다.

《동무들, 1소대장동무가 아들을 낳았소. 우리 모두 축하해줍시다.》

전만철이 내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작업장에 터져올랐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뽕 하고 렬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기적소리마저 나에게는 나를 축하해주는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물이 콧 솟구쳤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속에 내가 살고있구나!…

온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날이 추워 내리는 눈은 녹지 않고 그냥 쌓이군 했습니다. 안해가 병원에서 퇴원한지도 이제 50일 가가와오고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설하여오던 《명당원》은 이미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래일은 휴식일이었습니다. 이 휴식일을 리용하여 나는 그때까지 미루어오던 동생의 결혼식을 우리 집에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읜탓에 나는 동생의 부모구실을 해야 했습니다. 그간 안해와 의논을 맞춰 잔치준비를 하느라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루일이 끝난지라 나는 래일의 잔치준비때문에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하려고 지휘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딜 갔는지 전만철은 방에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 그냥 있기 뒤틀하여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좀 기다려볼셈으로 병실현관에 서서 잠적해졌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함박눈을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이때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주위를 밝히며 승용차전조등불빛이 마당가로 비쳐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승용차를 눈여겨 살펴보니 책임비서동지의 차였습니다. 경쾌한 발동소리와 함께 마당가로 들어와 멈춰선 차에서 뜻밖에도 전만철이 내리는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전만철의 손에는 커다란 트렁크가 들려져있었습니다.

《아, 1소대장동무구만. 아직 퇴근하지 않았구만. 잘됐소. 퇴근했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자, 어서 들어가지요.》

트렁크를 맞들어주려고 다가온 나에게 전만철

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전만철이 《이거 늦어서 안됐소.》라고 말하며 트렁크를 내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뭐니까?》

나는 영문을 몰라 얼떠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동생잔치에 쓸 레장감이요. 물론 레장이라는게 약혼식때 주고받는것이긴 하지만 어쨌겠소. 좀 늦긴 했지만 우리 돌격대원들의 성의로 알고 받아주오. 신부될 은심동무도 우리 돌격대원출신이 아니요. 아, 참... 책임비서동지도 고급화장품이랑 보냈소. 글썄 우리가 준비한걸 제논으로 꼭 보겠다가에 가지고 갔더니 부모없는 그 동무가 뭘 변변히 준비했겠는가고 하면서 화장품이랑 첫날옷감이랑 던놓아주는게 아니겠소. 한번 보오. 색깔들이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소.》

전만철은 제손으로 트렁크의 뚜껑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주먹을 입에 눌러대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고 있던 나는 부르짖듯 말했습니다.

《대장동무, 난 동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만철은 내 손을 가볍게 잡아쥐었습니다.

《소대장동무, 사람은 정에 산다고 했소. 난 요즘에 와서 우리 돌격대원들에 대해 새롭게 느끼는 것이 많소. 그들은 비록 길지 않은 나날을 함께 생활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융합되어있소. 왜 그러겠소. 오늘의 시대와 자기들이 지닌 사명감을 자각하고있기때문이 아니겠소. 그 자각속에 동지들에 대한 사랑도 우정도 움터나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는것이라고 난 생각하오.》

나는 내 손을 잡고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그가 돌격대에 왔을 때 잡아쥐던 그때가 생각키웠습니다. 그때는 아무 감각도 몰랐던 그 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리더니 우리 소대의 녀대원 차금주가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소대장동지, 이젠 우리 처녀들이 준비한것인데... 이 꽃을 결혼식상에 놓아주십시오.》

차금주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생화묶음을 내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금주동무가 발전소온실에서 제일 고운 꽃을 골라 묶음을 만들었소.

철남동무, 동무들을 잊지 말기 바라오. 먼 후날에도 추억할수 있게 영원히 오늘을 기억하오.》

《기억하겠습니다. 생활의 법칙을 알게 한 돌격대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비서동지와 대장동무를, 돌격대원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전만철이 와락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

나는 전만철과 함께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아까부터 내리던 함박눈은 더욱 호합지게 쏟아져내리고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아득한 창공에서 천번 굴고 한번

뒤집히며 쉬임없이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나는 고개를 젓히었습니다. 눈송이들이 내얼굴에 사뿐사뿐 내려앉았습니다. 온밤 그렇게 눈을 맞고싶었습니다.

함박눈은 여전히 펄펄 쏟아져내렸습니다. ...

마감이야기

—전만철의 이야기(2)—

그동안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습니다.

이제 며칠 안있어 일부 돌격대원들은 작별을 하게 됩니다. 헤어질 날은 며칠 더 있었지만 벌써부터 모두가 서운해하는 기색은 력연합니다.

비록 길지 않은 나날 아직은 많은것이 숙제로 남아있었지만 동무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며 인생에 대한, 또 생활에 대한 답을 다소나마 찾을수 있었던 그들이었던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헤어지는 날까지 생활을 책임적으로 해나갔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지키었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일요일을 리용하여 기업소에서는 직장별로 축구경기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돌격대도 한개 팀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축구경기를 하는것보다 사람들을 하루동안만이라도 휴식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전에 문을 연 《명당원》의 준공을 보장하느라 대원들이 너무 지쳐있었던것이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직장들에서는 굶적굶직한 제대군인들을 뽑아 여러날 훈련을 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돌격대는 세포비서와 소대장들을 제외하고 선수로 나갈 사람은 나 어린 청년들뿐이였습니다. 앞치대덜친격으로 나는 전날에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여 발목을 옥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격대원들앞에서 축구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나 어린 동무들이 더 욱욱 거렸습니다.

《대장동지, 우리도 경기를 합시다.》

《길고 짧은거야 대박야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함께 일떠세운 창조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으로 흘러갔습니다.

《명당원》, 4호청사, 자력갱생직장청사, 타빈보수직장청사... 책상물림인 그들이 그 모든것들을 훌륭히 건설해낼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집단의 힘을 믿었던것이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경기를 하자. 꼭 우승을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것이다!)

나의 가슴속으로 이런 결심이 굴뚝처럼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돌격대선수들은 결사전에 나가는 군인들마냥 과감히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리용되는 기업소

운동장이 마치 용광로처럼 끓어번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업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돌격대의 편이 되어 사심없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상대편이 우리편 골문대로 공을 몰고오면 경기장은 일시에 조용해졌다가 우리편이 상대편을 공격하면 일시에 와 하는 응원소리가 터져오르곤 하였습니다.

《야, 정남아! 공을 혼자 몰지 말고 길게 뽐아 청년비서한테 넘겨줘라. 그래, 그래... 좋다. ...》

책임비서는 축선안에까지 들어와 소리치며 우리팀을 지휘했습니다. 거기에 지배인까지 합세해 주었습니다.

《저런... 여, 심판! XX직장이 반칙을 했는데 호각을 불지 않아. 심판이 편심을 하면 안돼!》 온 기업소가 우리 돌격대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골을 넣었을 때에는 책임비서와 지배인이 경기장안으로 뛰어들어와 선수들을 닥달해주곤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기업소적으로 3등을 했습니다. 물론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이 맥없이 경기장밖으로 나오자 그들의 손에 사이다병을 한개씩 쥐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격대가 괜찮아. 전투력이 있거든. 지배인동무, 오늘 우리 같이 돌격대원들과 함께 〈명당원〉에 가서 휴식을 하지요.》

《그렇시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있던 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배인동지와 책임비서동지와 함께 《명당원》으로 갔습니다.

《명당원》문앞에 이르자 지배인동지와 책임비서동지는 우리더러 먼저 들어가라고 이르고는 자기들은 밖에서 서성거리며 읍쪽으로 나진 등성이길을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분명 누구를 기다리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등성이길에 소형 뺨스가 나타났습니다.

《이제야 오는구만.》

책임비서동지의 얼굴이 금시 환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오는걸까?)

등성이길을 나는듯이 내려온 뺨스는 《명당원》앞에 멈춰섰습니다. 책임비서동지가 뺨스로 다가가 차문을 열어제꼈습니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뺨스에서 내려는 세 녀인은 뜻밖에도 저와 1소대장, 3소대장의 안해들이었습니다.

책임비서동지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장은 이 〈명당원〉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와 보지 못했지. 오늘은 실컷 놀아보오. 수영도 하고 탁구도 치고... 자, 우선 〈명당원〉을 배경으로 사진부터 한장 찍지요.》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으며 사진속에 자기들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사진을 찍고 모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자리에 서서 우뚝이 바라보이는 《명당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은 흘러간 어제를 즐겁게 추억하고있다, 래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울것이다, 그 아름다운 래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것이다, 행복은 기다릴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창조해야 한다. ...

×

나는 여기서 붓을 놓는다.

그렇다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내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짧은 이 글속에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과 더불어 계속 이어질것이며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그리고 먼 후날 후대들도 우리 선대들의 오늘을 돌이켜볼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년돌격대에서—

경구, 격언

《작가는 생활의 관찰자, 판단자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

· 《예술가는 자기 나라, 자기 계급의 감정이며 그의 귀이고 눈이고 심장이며 자기 시대의 목소리이다》

· 《작가는 모든것, 적어도 가장 가능한 한 많은것을 알아야 한다. 작가는 훌륭한 인상, 뒤엀킨 잡다한 감정으로부터 객관적인것, 전형적인것을 선택할 능력을 가져야 하며 협소한 개인적인것,

주관적인것, 견고치 못하고 항상 변하며 순간순간 나타났다가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것을 한쪽옆으로 치워버릴줄 알아야 한다》

· 《작가란 무엇인가? 작가란 주위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것... 사람, 자연, 사건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산 거울이다. 사물이 거울로부터 사라지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니다. 작가의 거울에 반영된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여운이 남는 시구들

백인준의 《조국에 대한 생각》 (1980) 중에서

○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 소리는
청류벽밀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여울물소리인가
아니면 어린시절에 들던
모란봉의 그 술바람소리인가

내 그곳에서 태어나 그 품속에서
사랑보다 먼저 조국을 알았고
아버지없는 소년의 슬픔보다
조국이 없는 청년의 슬픔을
더 뼈아프게 가슴에 새겼더라

울밀대의 높은 관간에 올라
고구려의 아득한 옛 판도를
자랑높이 바라보기도 하였고
대성산 옛 성터 깨어진 성돌우에
망국의 뜨거운 눈물을 뿌리기도 하였거니
그곳은 고향이자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이자 또한 조국이였더라

그러기에 내 그 품을 떠나
운명의 먼길에 오르던 그날
오막살이문가에서 눈물지시던
늙으신 어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은
짓밟힌 조국의 슬픈 모습이기도 하였다

-홍현양의 《나의 추억》 (1985) 중에서

○ 토스레웃 한벌 입고
류량의 길 떠나던 소년아
저 아득한 곳에서
너는 나를 보며 웃고있구나
달아오른 먼지길에 맨발이 뜨거워
너는 그 자리에 아직도 서있느냐

○ 아 수양버들 푸른 강변길
아들의 손목에 이끌리는 순간에도
문득 눈에 삼삼한 하나의 모습
토스레웃 입은 소년아

네가 어제날
나였던 말이나

그리움속에 살아
못견디게 부르며 목메이며
불밝은 창가에 찾아오는 모습아

○ 기쁠 때나
힘겨울 때나
내 너와 만난다
눈물속에 자라난 어제날을 잊지 말라
찾아오는 모습아

가난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 가슴에 깨우쳐주며
못견디게 과고드는 그 불덩어리
이것이 바로 추억이 아니던가!

아, 나의 추억이여
자주 찾아와 내 집 문을 두드리며
이 마음속에 깃들어
토스레웃 입은 그 소년이
나였음을 속삭여다오!

김철의 《기뻐하노라》 (1954) 중에서

○ 들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은
이른봄 향기를 가슴가득 풍겨주고
마을 한복판 떠날 차비 분주한 트랙톨결엔
기발들을 날리며 사람들이 모여섰다

검붉은 팔들을 높이 건어올리며
얼굴마다 웃음이 환하게 피는데
상쾌한 아침대기를 흔들며
높이 울리는 아기의 울음소리

싸리울바자를 바람처럼 에돌아
날쌔 치너들이 골목으로 달린다
저편집 대문이 활짝 열리며
《애들아! 아들을 낳았다!》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도록 흔들며
이 땅에 생을 고하는 저 목소리—
아침해와 함께 우리에게로 오는
우렁찬 우렁찬 출생의 목소리여!

○ 아기를 위해 백화여, 만발하라
어머니품에 안겨 젖먹을 창문밑에

새까만 눈동자가 바라볼 벌판에
우리 조합 풍작의 들길에, 언덕길에

○ 종달새여, 네 노래로 하늘을 덮어라
파원이여, 가지가 휘도록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원들아
어서 저 들판으로 나아가자

이 땅에 또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올제면
우리의 기쁨, 우리의 보배들을 위하여
더덩실 커다란 궁전을 세워주자
새날을 향해 무력무력 크게 하자

동기춘의 《인생과 조국》(1986)중에서

○ 조국은 물건이 아니건만
역신들은 뒤거래로 너를 팔았다
한세상 살다 그도 죽고말
개같은 명줄의 향락을 위해
팔던 땀
몇놈이 부귀영달과 바꿨건만

찾을 땐 오, 찾을 땐
민족이 피를 바친 조국

○ 자유가 없인
차라리 죽음이 나았으니
조국은 다만 땅이 아니라
그 자유

했어도 주작봉마루에 서니
찾은 값이 너무 비쌌구나
이 아까운 사람들과 바꾼 땅을 딛고
분함에 억한 가슴을 두드리는 마음아

혁명렬사릉— 여기서
누구든
인생과 조국이 엄숙한 물음앞에 서지 않는가

릉을 찾는 사람들이여
렬사들이 지켜보는 눈앞에
조국을 책임진 맹세로
목숨같은 꽃땀을 놓으시라

큰아버지

박성일

누렁소 햇풀 뜯는 버들방천길에
자전거 한대 멋있게 데리고
읍에 회의갔던 리당비서아저씨
얼굴에 땀뻘뻘 내려서 누나

개울가 풀잔디에 책가방 벗어놓고
고기잡이 자맥질에 해가는줄 모르던
아이들 활활대며 소리쳐 달려온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왔다!》

풀잎문은 아래도리 물 줄줄 흘러며
벌떼처럼 오구구 달라붙는 아이들
붕어잡던 이야기 오디먹던 이야기
참새처럼 재잘대는 귀여운 모습들

하나하나 그 이야기 다 들어주며
싱글벙글 웃던 리당비서아저씨
이제는 큰아버지앞에

오늘 받은 숙제장 모두 펼쳐놓으란다

신나서 책가방 뒤지는 아이
물젖은 뒤머리 뽀뽀 긁는 아이
어느 애 머리는 쓰다듬어주다가도
또 어떤 애 엉치는 철썩 갈기며
굵은 글씨 학습장
찬찬히도 보아주는 리당비서아저씨

줄칸속에 농장벌 작황이 펼쳐진듯
가을궁냥 답이 아이들 수학풀이에 있듯
하루사업 제일 큰일 바로 지금인듯
읍에 갔다온 일도 이때문인듯

마을의 큰아버지
간간한 숙제검열시간에
소슬바람마저 숨죽인듯 한데
여름들판의 곡식들이
호함지게 웃으며 키를 솟구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형의 인간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동반하는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문학에서는 마땅히 그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조적위훈을 높은 경지에서 감명깊게 그려내야 한다.》

《작가는 소박하고 평범한 보통인간이 어떻게 영웅으로 자라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문학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의 본질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우리 문학에 그려지는 영웅의 성격은 사람들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전형적인 환경속에서 형상되어야 한다.》

철의 도시 밤

위명철

한뉘
쇠물밖에 모르는 우리 령감이
이밤 노래련습을 한다오
한생 같이 살면서도 보지 못한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오

밥상앞에서도 밥술을 뜨다 말고
저가락을 두드리오
거울앞에 서서는
굵은 목을 추켜들고
제법 감정을 잡으며
목청을 돋군다오

공장대학 다니는 만아들도
영문 몰라 어안이 빙빙해 섰고
분석실의 만팔도
배를 그려쥘면서도 그 사연 알길 없어하는데
우리 령감 똑한 눈 흘기며
아, 글썄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나간다오

길 걸어도 쇠물생각
꿈을 꾸어도
쇠물꿈을 꾸는 령감이
새빠지게 노래라니
자식들 눈을 피해

령감얼굴 건듯 쳐다봤더니
—쇠물이 저절로 익는데?
특 한마디 내쏘고는
령감은 또다시 목청을 뽑소
별들이야 조울든 말든
밤이야 깊어가든 말든 그제사 알았다오

우리 령감이 전기로에서
어떻게 쇠물을 익혔는가를
페허우에선 《복구건설의 노래》로
천리마 날을 땀 《천리마선구자의 노래》로
또 오늘은 누구나 부르는 《강선의 노을》로

목청을 뽑아야
쇠소리로만 여겨졌던
우리 령감 목소리가
이밤 정답게만 들려와
용해공의 안해로 살아온 궁지
새삼스레 북받쳐오르오

우리 령감 노래로 깊어가는 밤
쇠물이 로에서 어떻게 익는지
강선의 노을이 왜 그리 붉은지
노래로 깨우치는
아, 아름다운밤이여

나의 아버지

-한 여인이 들려준 이야기-

김홍양

뜻밖의 소식

사람들은 흔히 꿈같은 일에 부닥치면 어리둥절해져서 제 몸을 꼬집어보기도 한다고들 합니다.

당해보니 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글썽 조국해방전쟁때 헤어진 아버지를 금강산에서 만나게 된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였으면 좋을지...

감격과 흥분속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90고령이 다 되었을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신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남으로 나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전쟁때 남으로 나간 사람들이 미군놈들의 비행기폭격과 만행으로 태반이 잘못되었다는데 설사 그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해도 그 험한 남녘땅에서 긴긴세월 살아계신다는것이 얼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갓 시작되었던 1950년 6월 어느날 쪽지편지 한장을 남기고 집을 떠나갔다는 아버지!

아버지는 강남갔던 제비들도 다시 찾아오는 춘삼월이 몇십번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였지만 어머니의 기다리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기다리면 꼭 다시 만나게 된다는 믿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몸바쳐 일해야 한다는 결심...

방직공장에서 직포공으로 일하던 어머니는 20여년전 여름 남조선에서 큰물이 나 온 나라가 수재민원호사업으로 들끓을 때 추가천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전쟁시기 미군놈들의 폭격에 몸을 상했던 후유증이 도치여 병원에서 힘겨운 수술을 받은지

몇달 안되었던 어머니였지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내가 한몫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라고 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려 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던 날 그 몸쓸 병마는 끝내 어머니를 쓰러뜨리고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어머니의 얼굴에는 고통보다도 행복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말없이 차분한 눈길로 비가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고있었습니다.

창가에 서면 분계선너머 남녘땅인 삼각산이 어렴풋이 눈에 안겨옵니다.

전쟁때 아버지가 고향땅을 마지막으로 밟으며 떠나갔다는 누런 황토고개길도 보입니다.

주르륵— 주르륵— 지붕에서 떨어지는 락수물 소리가 추억을 불러오는듯 방안에 흘러들었습니다.

《영은아!》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으로 보낼 천을 다 짜놓았으니 한결 시름이 놓이는구나.》

석양녘이어서 때이르게 어둑컴컴해진 남녘하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나는 그만 두손에 얼굴을 묻고말았습니다.

조국통일의 그날을 손꼽아기다리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수는 없을가?

막 안타까웠습니다.

뜨거운 눈물에 젖은 나의 얼굴을 어루쓸어만지던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아끌더니 무엇인가 쥐

여주는것이었습니다.

《이 금가락지는 아버지가 끼워준 약혼선물이다. 이제 네가 간수해라.》

《어머니! 그건 안돼요.》

나는 아연실색해서 손을 뒤로 가져갔습니다.

그게 어떤 금가락지인가.

전쟁의 그 엄혹한 동란속에서도 고이 간직해온 어머니의 귀중품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난 너에게 단순한 금가락지를 주는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내 믿음을 넘겨주려는 것이다.》

어머니는 수십년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았던 금가락지를 뽑아서 내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명심하거라.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본다. 뜻이 높고 신념이 굳은 사람은 죽지 않는 법이다. 너도 아버지를 만나게 될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애써 일하거라. 예로부터 기다리는 마음이 반석같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했다.》

어머니는 조국통일의 그날을 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고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은 이 딸을 판사람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섬약한 인간이 되지 말자. 어머니처럼 굳세게 살리라. ...

그것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생 믿어오시던 아버지와의 상봉이 현실로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쁨과 놀라움, 흥분으로 좀처럼 마음을 다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집으로 달려온 나는 일각대문을 열어제끼며 《어머니—》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면 방안장지문이 드르륵 열리며 《이제야 오느냐?》하며 반겨맞는 다심한 목소리가 들릴것이였으나 텅빈 집안에서는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년전에 군관의 안해가 된 나의 딸은 남편과 함께 먼 동해안에서 살고 아들은 새로 일떠서는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여가서 청년돌격대 참모장으로 일하고있으니 몇년전부터 너렇청한 큰집에서는 나혼자 살고있는 형편이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나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어머니!》하며 몇번이나 찾았습니다.

아버지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 어머니인가.

마당 한가운데 잠시 서있던 나는 따뜻한 봄날이면 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앉아 훈풍에 실려오는 정향꽃향기를 맡으며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던

퇴마루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쪽지편지가 놓여있던 곳이라고 어머니가 들깨기름을 먹이고 극성스레 대우를 내서 다른데보다 더 윤기가 나고 반짝거리는 마루입니다.

추억은 집안의 구석구석 어디에나 깃들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앉은 기분으로 지나간 일들을 더듬어보던 나는 무엇에 이끌리듯 방안으로 들어가서 장농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가보처럼 여기던 그 장농속에는 사진첩과 통일되는 날 아버지에게 입히겠다고 어머니가 철따라 장만해둔 갖가지 의복이며 일기장과 아버지의 유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따라 별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고싶어졌습니다.

사진첩을 번지니 네모진 손거울만 한 아버지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누렇게 퇴색된 그 사진은 아버지가 명덕너고에서 미술교원을 할 때 찍은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나는 오래간만에 젊은 시절의 아버지모습을 눈여겨 바라보았습니다.

너부족한 얼굴에 인상적인 흰칠한 언덕이마, 안경속에서 그 어디를 주시하고있는듯 한 사색적인 눈이며 모난데 없이 두리몽실한 코와 대조되는 선이 뚜렷한 입술, 유표한 조개턱, 한마디로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지성미와 함께 결곡한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운 아버지를 마주보느라니 느닷없이 후드득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얼른 손수건으로 사진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눈물은 또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가슴속에 묻혀있던 사연많은 우리 모녀의 마음의 분출이기도 합니다.

아, 아버지는 어찌하여 어머니와 이 딸을 버려두고 남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입속으로 수없이 되뇌이곤 하던 물음이건만 사진속의 아버지는 침묵만 지키고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비슷한것이라고 할가 사진아래쪽에 연보라빛잉크로 쓴 색이 날아 희미해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철같은 신념을 안고 영원히 붓과 함께 값있게 살자!》

나는 곱게 써놓은 어머니의 글씨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사진뒤등에 써있는 아버지의 글을 옮겨놓은것이였습니다.

무슨 뜻으로 다시 써놓았을까?

많은 의미가 깃든 글이였습니다.

땡- 땡-...

마루기둥에 걸려있는 낡은 벽시계가 밤 열시를 쳤으나 나는 동자질할 생각도 잊고 사진첩을 든 채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밤따라 늦쟁반같은 덩실한 보름달이 떠서 밖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었다는 큰 감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서있었는데 하늘을 짝 채운듯 한 우듬지들이 미풍에 설레이고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새들사이로 가다가다 흘러내리는 유정한 달빛이 마당안 여기저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있습니다.

감회깊은 달밤입니다.

달밝은 이런날, 이런밤에 아버지와 함께 온 집 안식구가 다 모여앉아 계수나무가 비긴 달을 바라보며 밤가는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껴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가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일각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며 어머니와 저를 찾는 환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옛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쟁때 미군놈비행기폭격으로 거의나 불타버린 나지막한 청석기와집을 전후 나라에서 무상으로 원래보다 더 좋게 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꽃나무를 무척 좋아했다는 아버지의 취미에 맞게 집안팎을 옛모습대로 꾸려놓느라고 퍼그나 원심을 썼습니다.

일각대문과 그 량쪽 꽃벽돌담장을 짙레꽃덩굴로 덮이게 하고 앞마당과 뒤울안에는 화초와 함께 감나무, 포도나무, 정향나무들을 심어 봄이면 집이 꽃으로 덮이게 하였습니다.

갓가지 꽃들이 피어난 마당안팎에는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차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 정든 집으로 돌아올념을 하지 않았을까.

당의 품속에서 오늘까지 아들딸에 손자까지 거느리고 근심걱정없이 생활하고있지만 전후 복잡한 때 나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비슷한 감정이 허물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버지가 량심적인 지식인이고 공화국을 받들어 남들이 못하는 큰일을 한 사람이니 끝까지 변함없을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선뜻 믿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헤어진 아버지를 나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때문에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 그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소학교때 어느해인가 국어시간에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게 된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마끔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했지만 나만은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속을 바질 바질 태우다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바꿔쓰고 집에 와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남으로 나갔어?》

그러던 어느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때문에 끝내 상서롭지 않은 일이 터지고야말았습니다.

전후복구건설로 한창 들끓던 때 어머니는 새로 조직된 직물생산협동조합 본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본직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몇달이 지난 어느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는 창고장을 대신하여 며칠동안 본직장 창고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뜻밖에도 창고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삼단같은 불길에 휩싸인 창고는 삼시에 재더미로 되었습니다.

누가 내돌린말인지 《월남자》가족인 어머니가 의식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일수도 있다는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전쟁때 나쁜짓을 하고 남으로 나갔기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등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것을 각오하고 한마디 변명도 없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장의 《노력》으로 어머니는 관대히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조합부업반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찬비가 소리없이 내리는 날 부업지로 가는 소달구지에 이사짐을 싣고 눈물속에 정든 집을 떠난 우리는 해종일 질척거리는 농촌길을 걸어갔습니다.

날이 펴 어두워서 깊은 산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빈집에 도착하였을 때였습니다.

산밑에서 자동차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어롱대더니 누구를 찾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메아리쳐왔습니다.

《순옥아주머니—》하고 어머니를 찾는 소리가 푹푹히 들렸습니다. 웬 사람이 전지불을 켜들고 허겁지겁 올라왔습니다.

《순옥아주머니 있습니까?》

남자의 청음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새로 온 조합당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어머니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가쁜 숨을 쉬며 서있는 우람한 체격의 당위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놀라게 해서 안됐습니다. 지금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밤이 깊었는데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잠시후 이사짐을 옮겨시고 우리를 태운 자동차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제대군관 출신인 당위원장으로부터 차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우리가 사는 분계연선도시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월남자가족들을 잘 돌봐줄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다는것이며 조합분직장창고 화재사고는 자기정체를 숨기고 대렬내에 잠입했던 직장장님의 작간이었다는것도 해명되었다는것이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길한 소문도 이놈이 내돌린 루언비어라고 했습니다.

조합당위원회에서는 우리 어머니일을 심중히 토의하고 자기자리에서 다시 일하도록 결정하였다는것입니다.

아, 그러니 우리 모녀는 길가에 버려진 막돌신세가 아니였습니다.

어둠속에서 바늘을 찾아내듯 절망에 빠져있는 한가정의 운명을 건져주고 지켜주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빛이 있다는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인사는 어버이수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으흠—》

어머니는 물목이 터진듯 소리내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나도 눈물이 솟구쳐나와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날 밤 정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어머니의 일기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그 이튿날 아침 마당을 쓸고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인상좋은 얼굴로 보안소에서 왔다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

나이가 지숙해보이는 보안원은 내가 권하는데로 마루에 걸터앉더니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을 전후한 시기 아버지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대답이 궁했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것이 너무나도 많았기때문이였습니다.

나는 막연하긴 하지만 좀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참, 이 집이 전쟁시기 명덕너고아래동네에 있었다던 그 청석기와집인가요?》

《그래요.》

《혹시 아버지가 쓰던 붓과 미술도구들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것이 있습니까?》

《네. 어쩌면 그걸 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장농속깊이 보관해두신대로입니다. 보여드릴까요?》

《됐습니다. 다음에 볼 기회가 있을겁니다. 그럼...》

그는 무슨 급한 일이 있는듯 흥분한 기색으로 움쭉 일어났습니다.

그를 바래주고 들어온 나는 의문속에 파묻히였습니다.

우리 집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잘 알까?

청석기와집과 붓에 대해서는 왜 물어볼까?

저녁에 퇴근해온 나는 보안원의 부탁도 있고 해서 장농속에 있는 어머니의 두툼한 일기책을 꺼내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면 어머니의 일기책에 의거하는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전쟁전에 쓴 일기책은 미군놈폭격에 불에 타서 다 없어졌지만 어머니는 전후부터 다시 쓰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고나면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보람찬 로동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희열과 생활에서 얻은 교훈, 앞날의 새결의들로 엮여져있었습니다.

남다른점이 있다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정전직후 어느해 여름날 무더위도 바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는 분계연선도시에 오셨을 때 남편이 남으로 나간 한 녀성을 만난 자리에서 주신 교시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한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동무들이 월남한 남편을 그리워한다는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굳세게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

안심하고 건강하여 일 잘하시오. 동무는 남편을 꼭 만나게 됩니다. ...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일하고 생활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대로 아버지는 과연 강철같은 신념을 안고 영원히 붓과 함께 값있게 살아오셨을까?

착잡한 마음을 안고 일기장을 넘기던 나는 한 곳에서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1957년 1월 X일 눈이 옵.

나는 오늘 영은이의 작문을 두고 생각이 깊어졌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원망하고있구나.

나도 마음의 상처가 헤집어진듯 쓰리고 아팠다. 영은이는 아직 아버지께 대해서 다 모르고있다. 그러나 세월이 모든것을 증명해줄것이다.

나는 어머니로서 이렇게 대답해줄수밖에 없다. 깊은밤 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다.

딸애는 어머니의 심란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군잠에 푹아떨어졌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것인가.

나는 영은 아버지가 사진뒤에 써놓은 글을 사진앞면에 옮겨써넣기로 했다.

영은이가 자라면서 사진첩을 펼치면 첫눈에 볼 수 있게 똑똑히 썼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영은이가 당신에게 야속한 생각을 품고있어요. 아무쪼록 사진에 써놓은 글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적고 과묵한 사진속의 남편은 오늘따라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담고있는듯싶다. 물음에 대한 대답인지. ...

그러나 그 웃음속에서 나는 남편이 집을 떠나면서 이번에 큰일을 한 붓과 미술도구들을 잘 간수해달라고 하던 절절한 당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영은 아버지의 부탁은 안해인 나의 의무로 되었다. 그래서 1년에 한두번씩은 꼭꼭 붓들을 꺼내서 좀이 나지 않게 해빛을 쬌이고 좀약을 쳐서 보관하곤 하였다.

나는 장농밑에서 남편의 귀중품꾸러미를 꺼내었다. 그속에는 미술도구함과 소묘판, 유화구통, 조색판이며 봉어형태로 된 도자기연적, 대나무붓통이 들어있었다.

이 미술도구는 집에 남아있는 남편의 유일한 유물이자 가보였다.

대나무붓통뚜껑을 열자 좀약냄새가 확 풍기는 그속에 한줄이나 되는 크고작은 여러가지 형태의 붓들이 꽂혀있었다.

나는 영원히 붓과 함께 값있게 살자 라던 글이 생각나서 탐스러운 황모붓을 하나 뽑아들었다.

그 언제인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화관을 멘 영은 아버지와 함께 선죽교공원을 거닐면서 주고받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평생 영원히 사랑할 물건은 이 붓이요.》

붓을 사랑한다는것은 미술에 대한 애착이고 그것은 곧 자기 직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일것이다.

그러나 그 붓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에 따

라 미술가의 명예와 가치가 결정되는것이다.

영은 아버지는 전쟁을 겪으며 비로소 이 신념을 실천에 옮기게 된것 같다.

어느때인가 영은 아버지가 들려주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각난다. ...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있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기 몇해전 여름 일제의 징집령장을 받은 리화(영은 아버지)는 몸을 피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수룡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신하였다.

그곳 산속 움막집에 약초를 캐며 살아가고있는 먼 친척벌되는 늙은 내외가 있었다.

어느날 리화는 수난자가 된 겨레의 운명을 통탄하며 심심풀이삼아 《울밑의 봉선화》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나무군차림의 나이지숙한 사람이 움막을 찾아왔다가 그의 그림을 눈여겨 살펴보다더니 지게를 벗어놓고 곁에 다가앉았다.

《선생은 그림을 참 잘 그림니다.》

《원 별말씀을... 배우는중입니다.》

리화는 붓을 계속 놀리며 심드렁히 대답했다.

《울밑의 봉선화라—》

나무군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면서 조끼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었다.

《실례오만 그 좋은 재간을 가지고 울밑의 봉선화보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리화는 붓을 든채 의아해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무군게 생각지 마시우. 내 이집 로인을 통해서 선생의 처지를 알게 되었는데 왜놈들의 총알받이노릇을 피한것도 장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긴 처지를 앓아서 한탄이나 하고있을 때가 아니지요. 왜놈들이 망할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에?!》

나무군이 그저 범상한 사람같지 않아 리화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허허... 그쯤 알아두시우. 나는 저 산너머에 사는 나무군인데 요즘 들리는 말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술한 군대들을 거느리시고 왜놈들을 쳐부시고계시니 머지않아 조국이 해방된다고 들 합디다. 그러니 미술가선생은 조금도 낙심말고 조선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시우.》

리화는 그 사람의 됬됨이며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

더우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는 젊은 그의 마음을 틀어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후부터 그 사람은 움막에 자주 들리곤 하였

다. 들러서는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친숙해지자 어느날 그 사람은 붓과 먹을 좀 빌려줄수 없겠는가고 물었다.

《무엇에 쓸려요?》

《예. 좀 쓸데가 있는데… 차라리 미술가선생이 좀 도와주지 않으시려우?》

《무슨 일인지 붓으로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지요.》

《예. 그럼 나와 함께 잠깐 다녀옵시다.》

그리하여 리화는 그 사람을 따라 수룡산 수림속으로 들어갔다.

아름드리 참나무가 무성한 어떤 바위절벽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손칼로 나무껍질을 벗기면서 기다리고있던 한 청년을 만났다.

낯선 사람을 보자 저르기 긴장해지는 그 청년에게 그 사람이 설명해주었다.

《아, 강동무! 미술가선생을 데리고왔으니 놀라지 마우. 이 선생이 우리 일을 도와줄거요.》

이리하여 리화는 강동무라는 그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들의 요구는 껍질을 벗긴 나무에 먹으로 구호를 쓰는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이미 몇그루의 껍질벗긴나무에는 구호가 씌어져있었는데 먹과 붓이 시원치 않은 탓인지 글씨가 뚜렷하지 못하였다.

《조국광복군인, 김일성대장 만세!》

리화는 붓에 먹을 묻혀들고 정성껏 구호를 덧쓰기도 하고 그들이 불러주는대로 새 나무에 글을 쓰기도 하였다.

두 《나무군》이 김일성장군님슬하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것을 짐작한 리화는 그들이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젊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느 도시의 리발판에 들리시여 리발을 하시고나서 남대문에 그림한장을 붙이고 가셨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였다.

장군님께서 그려붙이셨다는 그림에는 소 스무마리와 새 세쌍이 그려져있었다.

누구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한 유식한 로인이 소 스무마리는 《소화 20년》(일제의 년호, 1945년에 해당됨)을 뜻하고 새 세쌍은 《새 세상》을 의미하니 결국 《소화 20년에 새 세상이 온다》는 예언이라고 해석하였다.

소화 20년에 온다는 새 세상이 과연 무엇인지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으나 왜놈들은 스스로 절망에 몸을 떨었고 조선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한줄기 밝은 해빛을 감득하면서 희망에 넘쳐있었다.

리화는 수룡산에서 돌아온 후 김일성장군을 칭송하는 글을 쓴 붓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면서부터 마음속에 큰 믿음과 용기를 안고사는 사

람으로 변하였다.

풍경화와 인물화를 전공하던 미술교육자로서 예술과 후대교육밖에 모르던 사람이 점차 대가군세고 자부심이 높은 사람으로 변해갔다. …

일기에는 해방후에 있는 사실들이 계속 씌어져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다음해 어느 봄날이라고 생각된다.

그날 한밤중에 밖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호각소리가 어지럽게 나는데 누가 갑자기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깜짝 놀란 나는 공포에 질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서 나가보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대문을 여는 순간 나는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 하였다.

희뽐한 달빛속에 피투성이가 된 웬 사람이 문밖에 쓰러져있었다.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영은 아버지가 어느새 뒤따라나왔다.

《아니, 이거 강동무가 아니요? 옳구만.》

남편은 달빛속에서도 대뜸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무작정 끌어안았다.

놈들의 추적을 당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요즘 시내거리들에 날마다 베라들이 나붙고 경찰서까지 습격당하는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강동무》라는 사람을 부축해서 거울에 화초들을 보관하는 뒤울안 움속에 숨겼다.

조금 지나서 누가 대문을 쿵쿵 두드리더니 《문 열라.》 하고 소리쳤다.

영은 아버지가 불안에 떨고있는 나를 놀려왔히더니 태연히 마당으로 나갔다.

문여는 소리와 함께 경찰 두놈이 혈떡거리며 들어섰다.

《집으로 빨갱이가 들어오지 않았어?》

《우린 모르오.》

《흥, 모른다면 다야? 빨갱이를 숨겨두면 어떻게 된다는거야 알테지. 야, 뒤져라.》

놈들은 집안밖을 돌아쳤으나 헛물만 켜고말았다. 화초움은 묘하게 위장되어있어서 무사했다.

놈들이 돌아가자 우리는 움속으로 들어갔다.

신음소리를 내고있는 강동무는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인지 손에 권총을 들고있었다.

《강동무가 끝내 우리 집을 찾아왔구만, 찾아왔어.》

영은 아버지는 목멘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그를 조심히 껴안았다.

《리화선생! 고맙습니다.》

《별소릴 다… 강동무는 정말 장하오.》

알고보니 그는 경찰서를 습격한 지하공작원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우리는 성의껏 치료를 해주었다.

그러나 강동무는 우리 집에 계속 있을수가 없었다.

놈들이 때없이 동네를 싸다니며 수색소동을 벌렸기때문이었다.

하루는 영은 아버지와 강동무가 집에 찾아온 웬 사람과 함께 한것이 넘도록 무슨 의논인가 하더니 한밤중에 집을 떠나갔다. 영은 아버지는 어느 절간에 가있겠으니 안심하고 있으라는 말만 남기고 갔다.

그 이튿날 아침 남편이 보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쌀과 이불보침을 싸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갔다. 남편은 시내에서 삼십리가 넘는 산속절간에 가있었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골짜기에 자리잡고있는 절간이었는데 그들은 묘하게 생긴 자연동굴에서 생활하고있었다. 영은 아버지는 만나자바람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집에 남겨놓은 미술도구들을 수고스러운대로 다시 돌아가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몹시 흥분된 얼굴이었다.

집으로 달려온 나는 미술도구들과 함께 인삼담뽀이며 찰떡 등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갔다. 절간 아래에 있는 느리나무밑에 나와있던 늙은 주지가 아버지를 찾아서 내보냈다.

《여보! 난 요즘 정말 사는 보람을 느끼오. 사람답게 사는것 같소.》

남편은 등에 업혀있는 딸애를 안아주며 열기띤 목소리로 말하였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뻐해요?》

《이제 모든것을 알 때가 올게요. 붓이 큰일을 하고있다는것만은 알아두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몰라도 좋았다.

자랑스러운 웃음을 담은 환한 얼굴... 이즈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녀인들은 남편의 웃음이 비친 얼굴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런데 나에게에는 한가지 걱정이 있었다.

밀짚모자를 쓴 안경쟁이 사복형사가 자주 집에 와서 남편이 어디 갔는가고 따지며 행패질을 하곤 하는것이였다.

나의 근심어린 말을 듣고난 영은 아버지는 요즘 딸애도 앓고있다는데 촌에 있는 본가집에 당분간 가있으라고 했다.

한달후 나는 본가집에서 조국해방전쟁과 함께 우리가 사는 도시가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반동통치하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 영은이를 업고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는 시내로 들어오니 거리마다 펼쳐나온 사람들이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환영하고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물결속에서 영은 아버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오후에 공설운동장에서는 인민군대를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있었다.

나는 공화국기를 들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주석단정면에 정중히 모신 대회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청년들의 대렬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선두에 높이 모시고 대회장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는 군중들속에서는 열화같은 함호와 감탄의 목소리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아! 저분이 일제침략자들을 쳐이긴 전설적영웅이시고 만고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구나!

온 겨레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목마르게 기다리며 뵈고싶어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신가!

영명하신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뵈는 순간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영은 아버지도 이 군중대회에 참가했으면 어디에 있으련만 아무리 둘러보아야 보이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오니 마루우에 웬 쪽지편지 한장이 놓여있었다. 영은 아버지가 써놓은것이였다.

《...집에 급히 들렸으나 만나지 못하고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남으로 나가오. 해방된 지역에서 미술가인 내가 할일이 많소. 보람찬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되는것 같소. 귀여운 영은이가 보고싶구만. 먼길에 짐이 커지면 불편할것 같아 미술도구 일부를 집에 두고가오. 이번에 큰일을 한 붓들을 잘보관해주오. 나의 가슴에는 이 붓으로 하여 비로소 강철같은 신념이 자리를 잡았소. 잘 있소. 안녕히.

당신의 리화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채 헤어졌다.

이것이 마지막리별로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인민군대의 전략적일시적후퇴로부터 재진격이 시작되어 고향땅이 다시 해방되었을 때까지도 그토록 기다리는 영은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다.

어떻게 되었을가. 안타깝다.

1972년 4월 X일 (마당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오늘 아침방송에서는 남반부의 어느 항구도시에서 한 미술가가 시청건물벽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구호를 대담하게 모시었다는 희한한 소식을 전하였다.

미술가는 경찰들한테 끌리워가면서도 조국통일만세를 웨쳤다고 한다.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한 그 사람이 영은 아버지라고 믿고싶다.

조국통일을 위해 붓으로 싸우고있는 영은 아버지!

정녕 잠들수 없는 밤이다. ...
어머니의 일기내용은 대체로 이러하였습니다.

강동무의 회상

금강산으로 떠나기 며칠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까치가 감나무우에서 유정스레 깍깍 우는데 대문밖에서 《계십니까?》 하며 두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전에 찾아왔던 낯익은 보안원과 진회색중절모를 쓴 풍채좋은 로인이 그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꽃밭에 물을 주고있던 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까치가 우는걸 보고 이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보안원동무가 그런 사람으로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허허... 거 비슷한 소리같습니다.》

나는 보안원을 마주보며 웃다가 눈짓으로 뒤에 서있는 로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아주머니를 찾아온 강정훈로인입니다. 오래간만에 청석기와집을 찾아 평양에서 이렇게 먼길을 오셨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먼저 인사를 하자 뺨시있는 지팽이손잡이에 두손을 얹고서서 감나무를 잠시 올라다보고 있던 로인이 《강정훈입니다.》 하고 마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인상에 점잖은 인품이 느껴졌습니다.

《로인님은 전쟁전에 이 청석기와집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뭐라구요?》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그렇소. 그때 이 집 뒤울안 화초움신세를 졌드랬소.》

나는 로인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며 흥분을 터뜨렸습니다.

《강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강선생님이 어떤분이라는걸 전 잘 알고있어요.》

《아, 그러니 그때 그 젓먹이 영은이가?... 아, 세월이란...》

반가운 미소가 어렸던 로인의 주름많은 얼굴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윽고 로인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쟁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뜻을 같이한 동지였지요. 50년이 지나서야 찾아오니 참 생각이 깊어지는군요.》

강정훈로인은 저의 손을 잡은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추억을 더듬는듯 청석기와지붕과 짙레꽃생울타리며 감나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옛모습 그대로구만. 잊을수 없는 집이요. 이집 뒤울안에서 어린 영은이를 안고 앞날을 축복해주던 일이 생생히 기억되오.》

나는 친부모를 만났을 때처럼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나는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자리를 권하고 둘러앉았습니다. 나는 쌓이고쌓였던 정회에 휩싸여 강로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리화선생과 전쟁때 헤어진 다음 다시 만나고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소. 전후에도 군복을 벗지 않고있던 나는 제대후 당의 배려로 아랍의 어느 한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오래동안 사업하게 되었지. 하루는 그 나라 신문에서 남조선에 있는 리화라는 한 미술가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붓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고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소. 리화선생이 끝내 후퇴를 못했구나, 그렇다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모를것이 아닌가. 외국에 나가있을 때도 그랬지만 조국에 돌아와서도 선생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소. 가족들이라도 만나고싶더군. 그래서 이곳의 보안기관에 편지를 띄웠던거요.》

보안기관에서 보내온 회답편지에는 어머니는 이미 사망했고 청석기와집에서는 현재 딸이 혼자 살고있는데 전쟁때 헤어진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르고있다는것이였소.

나는 자책하지 않을수 없었소. 찾아가서 자세히 알려주는것이 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영은이! 아버지는 붓으로 큰일을 한 미술가였소. 조국해방전쟁의 시작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 이 도시에서 인민군대를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렸을 때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 초상화를 처음으로 그려모신 사람이 바로 영은동무의 아버지였소.》

《예?! 그게 정말입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이 도시에서 제일 먼저 그린 미술가란 말인가?!

참으로 꿈같은 일이였습니다.

아! 기쁨이라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행복이라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녕 감격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강로인은 그때의 일이 눈앞에 떠오르는듯 잠시 말이 없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적구에서 활동하던 강정훈이 속한 지하조직은 미제와 리승만역도가 북침전쟁준비에 미쳐날뛰자 그에 대처

하여 인민항쟁을 준비하는 한편 김일성장군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였다.

환영준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인민들의 가슴속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미술교원이었던 리화가 자질로 보나 정신적준비 정도로 보나 이 일에 적임자라고 생각한 강정훈은 어느날 그를 찾아갔다.

그때 리화는 앉고있는 몸이어서 자리에 누워있었다.

김일성장군환영준비를 해야 할 일을 말하자 리화는 앉아누웠던 사람같지 않게 눈빛이 밝아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결으로 바투 다가왔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강동무, 나같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장군님앞에 백성된 도리를 다할수 있겠소?》

《그거야 심장이 시키는대로 해야지요.》

《강동무!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주오. 지금껏 암흑의 세상에서 살아오면서도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속에 우러러모신 덕분에 힘을 얻고 놈들의 온갖 수모와 천대를 견디어냈는데 장군님의 환영을 준비하는 일에 어찌 가만히 앉아있는단 말이요?》

강정훈은 이제 고향도시가 해방되면 큰 군중대회같은것도 하게 되겠는데 그 대회장에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높이 모시여 사람들도두에게 그이의 빛나는 영상을 뵈옵게 하는 일이 이번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귀뜸해주었다.

그러자 리화는 무릎을 치면서 벌떡 일어서기까지 했다.

《강동무! 그 일은 내가 맡겠소. 재간이 미숙하지만 모든것을 다 바쳐 그 일만은 꼭 해내겠소.》

《않는 몸인데 일없겠습니까?》

《아니요. 내 몸 같은게 다 뭐겠소. 그 일만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소. 당장 래일부터 시작하겠소. 나는 유화가 전공이고 더구나 인물화가 기본이니까 안정맞춤이요. 여러말 할것이 없소.》

리화는 벌써 다 결정된듯이 흥분과 기쁨으로 높아지는 숨결을 툇아올리고있었다.

《리화선생! 그 일은 놈들의 눈을 피해 극비밀리에 해야 하는 일인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장소며 시간이며 그밖에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해야 합니다.》《글쎄 넘려마오. 그런 각오가 없이 말으려는게 아니요. 모든 일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인 안을 세워보십시오. 래일 다시 의논해봅시다.》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 리화는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한 안을 내놓았다.

시내에서 30~40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자리잡은 절간옆에 큰 바위굴이 있는데 그안에서 일을

하되 잘 아는 주지에게 부탁하여 밤낮으로 망을 서고있다가 외인이 나타날 때 미리 알려주도록 하면 안전하게 일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정훈은 조직의 동의를 얻어 리화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릴 과업을 주었다.

행사가일을 예측 못하는 조건에서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할수는 없으나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면 행사를 성과적으로 조직할수 있었다.

리화는 결사의 각오로 일을 벌릴 잡도리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을 처음 받아들던 순간의 리화의 모습이였다. 두손으로 정중히 사진을 받아들던 리화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기만 하였다.

그 눈빛이며 얼굴표정이며 숨결이며 온몸이 뜨거운 환희와 감탄과 경모의 정으로 불타는듯 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리화는 강정훈을 바라보며 《아! 이분이시군요. 마음속으로만 그려오던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은 파시 그 이름대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태양같은분이시군요. 내 미술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술한 명인들의 인물화를 보고 그렸지만 아직 이처럼 절출하신 위인의 초상을 그리게 될줄은 몰랐소. 내 한목숨 다 바쳐서라도 이 중대한 일을 꼭 이루어 놓겠소.》

그는 강정훈의 두손을 꼭 부여잡고 놓을줄을 몰랐다.

자연동굴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전투》가 벌어졌다.

함께 일하는 젊은이가 전해온데 의하면 리화는 때없이 몰려오는 피로와 동통을 씹어삼키면서도 붓을 놓지 않는다고 했다.

어둑컴컴한 동굴속에서 낮에는 큰 거울들로 햇빛을 반사시켜주는 속에서, 밤에는 초불과 함께 온 마음을 불태우며 정열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없이는 볼수 없다는 것이었다.

좀 쉬라고 권고하면 《아니요. 백두산에서 수십 성상 싸워 나라를 찾아주신 영명한 김일성장군님의 해빛같은 영상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주는 일을 하는 지금 이만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백성된 도리를 다 한다고 하겠소.》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드디어 초상화가 완성되자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그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

조국해방전쟁의 발발과 함께 고향도시가 해방되었을 때 리화는 강정훈과 한 정치공작대에 망라되어 인민군대를 따라 남진의 길에 올랐다.

눈코뜰새없이 바쁜 나날들이 흘러갔다.

해방지역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리서 모시는 사업과 새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에

간판을 써서 걸고 거리에 구호들을 써붙이는 등 리화에게는 언제나 할일이 태산같았다.

매일 함께 자고 깨지만 강정훈은 어떤 날에는 그와 말 한마디 나눌새가 없을 때도 있었다.

전략적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놈들의 추격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리화를 먼저 후송시키고 공작상 필요에 의해서 적구에 떨어지게 된 강정훈은 그후 그의 소식을 더 알수없었다. ...

《오늘 늦게나마 리화선생이 해놓은 일들을 영은이에게 전하게 되었으니 정말 시름이 놓이는구만. 아버지는 부상당한데다가 군사분계선이 막히여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남녘땅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몸바치고 있을줄 아오. 붓을 가지고 말이요.》

강로인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잊을수 없다고 몇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속에 나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봄눈녹듯 말끔히 녹아버리는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있게 될 아버지와의 상봉을 앞두고 말 못할 위구심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어쨌든 만나면 모든것을 알게 될것이었습니다.

상봉

나는 금강산에서 아버지와 상봉하던 일을 여기서 다 털어놓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따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다른 이야기라고 할가요. ...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기념품준비에 은근히 원심을 썼었습니다.

나는 기념품에 깊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싶었습니다.

미술가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딸인 나도 공예미술가로 자란것만큼 특색있는 공예작품을 준비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고려청자꽃병을 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기념품의 형태와 장식구성에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아한 매화병형태에 웃면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앉히고 중심에는 김일성화, 김정일화와 목란꽃을 비롯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인 만경대 고향집과 백두밀영고향집을 새겨넣었습니다. ...

상봉하던 날 이 기념품을 드리자 오래오래 감상하고난 아버지는 기쁜 나머지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보기도문 걸작이군, 걸작이야!》

그러시면서 이 청자기는 그 어떤 값진 보물과

도 대비가 안되는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기념품보다도 공예미술가로 성장한 딸이 대견해서 더 그랬을줄 압니다.

아버지는 몹시 늙으신 몸이었지만 활력에 넘쳐저의 손을 다정히 잡았습니다.

《혈육이어서 피만 같은줄 알았더니 공냥도 신통히 갈구나.》

나는 그 말뜻이 얼른 리해되지 않아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답대신 빙그레 웃으시며 붉은 비로도천에 싼 물건을 원탁우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익은 대추빛이 도는 나무함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뚜껑을 열고 함속에서 비단보자기에 싼 물건을 조심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뽀얀 우유빛이 도는 경질청화백자꽃병이었습니다.

부너간에 서로 약속이라도 하고 만들어서 가져온것 같은 도자기공예품이었습니다.

공예전문가인 나로서도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관록있는 미술가의 솜씨가 달랐습니다.

눈처럼 흰 백자바탕에 조선지도를 형상한 그림 가운데 새겨진 커다란 김정일화는 한쪽의 청담한 조선화였습니다.

세련된 형태에 선조들이 사용하던 천연안료와 천연색무기색감들을 배합하여 섬세한 조선화수법으로 장식한 꽃병은 보면 볼수록 나의 눈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다.》

《정말 훌륭해요, 아버지!》

《파찬의 말이다. 성의껏 하느라고 고심을 했다만 아직 멀었다. 미흡한 점이 많아.》 《어떻게 되어 아버지는 유화미술가인데 공예작품을 창작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지.》

검버섯반점으로 얼룩진 황이 든 얼굴에 추운한 빛을 담고 창밖을 내다보던 아버지는 나의 손을 이끌고 쏘파에 가앉았습니다.

《남녘땅에서 홀려간 이 아버지의 생활은 파란곡절의 한생이었다. 기막힌 처지였지... 부상당한 몸으로 후퇴의 길에 올랐던 나는 놈들의 추격으로 또다시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채 어느 깊은 산속에 있는 숲구이막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늙은 내외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몸이 좀 회복되었을 때에는 고향이 다시 해방된 뒤였다. 고향으로 가려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림진강나루까지 찾아갔던 나는 분계선때문에 정든 곳을 지척에 두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었지. 불편한 몸으로 이

곳저곳 떠돌아다니던 나는 서해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어느 도기회사 기업주에게 고용되어 도자기 공예미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

들을수록 남녘땅에서 흘러간 아버지의 한생은 눈물겹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비판하지 않았다. 가슴속에 뜨겁게 안고사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지.》

순간 나의 뇌리에서 번개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철같은 신념을 안고 영원히 붓과 함께 값있게 살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뒤에 써놓은 글이 생각나세요?》

《오냐, 생각나구말구. 그 신념의 글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정으로 쏘아서 새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바위에 새긴 글처럼 말이다. 그리구 내가 비록 남쪽땅에서 살고 있지만… 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가지가지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들었던다. 그것이 내 한생의 마음속 기둥으로 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참 난 〈김정일장군의 노래〉도 알고있단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도요?!》

《그렇다. 참 좋은 노래더구나.》

나는 아버지가 한없이 돋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육체는 변했어도 신념은 변하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걱정을 억누를수 없어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보시나요. 한생 아버지를 원망하던 이 딸이 오늘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용서하세요. 아버지의 신념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가슴은 오가는 혈육의 정과 기쁨으로 후덥게 설레이었습니다.

마감이야기

금강산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니 떠나기 전에 친 전보를 받고 딸과 아들, 손자들이 모두 와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인민군대군관인 사위는 정세가 긴장해서 딸과 함께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은 명절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들 물방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어보는데 정신이 얼떨떨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딸과 손자애들을 진정시킨 다음 넓은 방에 빙 둘러앉히었습니다.

《나의 〈귀환보고〉를 듣기 전에 할아버지의 기념품을 먼저 보기로 하자.》

모두들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들 남진이에게 둥근 탁자를 들어다 가운데 놓게 한 다음 아버지의 기념품을 올려놓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함속에서 청화백자꽃병을 꺼내놓자 조선지도를 형상한 그림가운데 새겨진 커다란 김정일화가 찬연히 빛났습니다.

《이 기념품은 할아버지가 만든 보기드문 공예 미술작품이다.》

도자기에 새겨진 김정일화를 보는 순간 집식구들은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집안식구들은 김정일화를 바라보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기념품을 두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해방된 고향땅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처음으로 그려서 높이 모시였던 그때처럼 우리 민족과 온 겨레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 잘 모셔야 통일의 지름길이 마련된다는 철의 신념을 안고 그 길을 따라 역세게 걸어왔고 오늘도 그 길에서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북남겨레가 서로 열싸안게 될 그날이, 삼천리강토가 활화산처럼 끓어번지고 통일의 환호성이 하늘땅에 차넘치게 될 그 시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아서 흥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보아 알겠지만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분 이시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변심을 모른다. 어제 날이나 오늘날이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겨레의 앞날에 영광과 승리가 온다는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아오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자신은 물론 자식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진첩에 써놓은 글을 잊지 말어라. 〈강철같은 신념을 안고 영원히 붓과 함께 값있게 살자!〉 이것은 우리 가문의 좌우명이다. 앞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 부딪친다 해도 이 신념의 맹세를 저버리면 참담하게 살수 없다. 우리모두 할아버지와 함께 변심없이 참되게 살자꾸나.》

나는 아들과 딸의 달아오른 손을 굳게 부여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념품인 청화백자꽃병에서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더불어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나오는 듯싶었습니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와 민족적기질

-지난해 《조선문학》 축전상을 받은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천재규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얼굴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이다. 이러한 전형적형상의 창조는 언제나 시대적특질을 민감하고 진실하게 재현하는것을 주요과제로 내세우게 된다.

시대적특질을 구현한 소설형상창조에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는 선군시대에 보다 뚜렷한 양상으로 활짝 꽃피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기질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특색있게 그려내는 것이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에서 민족적기질의 적극적인 반영은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근본요구인 동시에 우리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박한 시대적과제이기도 하다.

이 측면에서 지난해에 창작된 단편소설들은 일련의 결실을 가져왔다. 민족적기질은 일반적으로 전통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이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부단히 발전하며 새로운 기질이 발생공고화되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20세기 초엽 《ㄷ. ㄷ》의 기치아래 닳을 올린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투쟁로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성격적책으로, 독특한 민족적기질로 되었다.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스스로가 자부하고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공인하는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특질이다.

충실성과 함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 역시 오늘 우리 민족의 이채로운 특질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념과 의지, 배짱에서 우리 수령님을 따를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시였을 뿐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시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녀성들의 기질적특징을 외유내강으로 일러왔다. 이것은 강의성이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기질이라는것을 실증하는 단적인 실례이다. 하지만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초행길을 열어나가시던 그때로부터 새로운 성격과 양상을 띠고 확고하게 특징지어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기질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녕 20성상을 헤아리는 항일혈전,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쳐야 했던 새 조국 건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 간고분투로 이어진 사회주의건설과정은 문자그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 배짱이 온 세상에 과시된 자랑찬 로정이였다.

이런 의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신념과 의지의 력사, 배짱의 력사라고 특징지으시였다.

우리의 문학작품들을 일별하건대 지난 시기 주인공을 비롯한 궁정인물들의 형상창조에서 신념과 의지, 배짱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형상화여온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장장 수십성상에 걸쳐 억만자루의 품을 들여 심어주고 가꾸어오신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민족적기질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일관하게, 보다 밀도높게 형상창조에 구현하는것이다.

단편소설 《반격》(박운 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예지로 빛나는 작전적방침과 인민군전사들에 대한 불변의 믿음에 의해 조국해방전쟁에서는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었다는 력사의 진리를 밝히고있다. 이 과정에 작가는 우리 수령님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이 바로 어떠한것인가를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확증하였다.

소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미제침략군의 정형고지에서의 이른바 《시범전투》가 다음날 새벽으로 예견되는 긴박한 극적정황을 설정하고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기실에 들어선 두 장령—오창목과 박천정찰국장의 대화에서도 《순간이 만사를 결정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실로 전선의 판가리를 두고 분초가 초긴장속에 흐르는 초조한 력사의 순간순간이였다.

하건만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전실에 들어선 장령들에게 자리를 권하시고나서 자연부원조사단성원들로부터 개마고원과 백무고원일대 그리고 서해안간척지의 조사사업정형을 하나하나 보고받으시며 담소하시는가 하면 장령들과 여담도 나누신다.

그이께서는 몹시 긴장한 낯빛들로 둘러서있는 지휘성원들의 심중과는 무관계하신듯 뒤이어 들어선 문화선전상의 보고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신다. 순간의 긴박성과는 인연

이 없으신듯싶다.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이 배포유하신 위인상의 기저에는 과연 무엇이 깔려있는가.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이 금수강산 삼천리를 제더미로 만든 《가혹한 현실을 자각한 인민의 힘》, 《조선의 이 힘》에 대한 확신과 《군인대중의 힘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이라는 믿음이며 여기에 적들의 기도를 천리혜안으로 한손에 거머쥐신 자신의 예리한 판단의 확고성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찰자료가 종합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미제침략군놈들이 어떻게 덤벼드는가 한번 봅시다.》하고 신념에 넘쳐 여유작작하게 말씀하신다.

이런 최고사령관의 슬하에서 담과 슬기를 키운 인민군전사들이기에 그들은 그들대로 후방병원에서 치료중인 열아홉살의 영웅전사마저 미국놈들이 《당지만 컸지 영 맹물》이어서 《백놈은 문제없》다고, 《미제침략군땅크가 한갓 딱정벌레만큼도 생각되지 않았》다고 신이 나서 그이께 말씀올리는것이다.

최고사령관과 우리 군대, 우리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혼연일체, 이 반석같은 기반위에 최고사령관과 우리 군대,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 배짱이 하나로 융합된 응결체—바로 그것이 조국해방전쟁사의 갈피에 길이 전해지는 정형고지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담보한 결정적인 요인이였으며 나아가서는 반미항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온 비결이였다는것이 이 소설에서 보여주려는 작가의 미학적주장이다.

이처럼 단편소설 《반격》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과 의지, 배짱에 대한 자랑찬 송가로 되고있다.

신념과 의지, 배짱은 만경대가문의 기질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에 대한 신념과 배짱, 불굴의 혁명정신은 우리 만경대가문의 기질인것 같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귀순》시켜 보려고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를 백두산과 만주 일대로 데리고다니며 온갖 행패질을 할 때마다 녀사께서는 네놈들이 김장군의 할미를 다쳤다가 무사할줄 아느냐, 우리 손자가 가만두지 않을것이라고 호령하면서 놀라운 배짱으로 적들을 전률케 하였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실담이다.

《지원》의 뜻을 안으시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기상으로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자제분들에게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비분강개

한 유언을 남기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놈들에게 체포되여도 결사의 투쟁으로 불굴의 기상을 떨치신 김형권선생님, 조국해방의 길에 꽃나이청춘을 헌헌히 바치신 그지없이 담대하신 김철주동지...

만경대가문은 나라찾는 길에서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어들줄 모른 신념과 의지의 강자, 무서운 배짱가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질, 만경대가문의 기질은 곧 조선의 기질, 조선의 기상이다.

이러한 현실적바탕에 기초하여 창작된 단편소설 《백산의 종소리》(한정아 작)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고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는 그 길에 아드님과 이 나라 애국청년들을 따라세우신 조선의 어머님 강반석녀사의 심원하고 강인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쟁업적을 열렬히 찬미하고있다.

소설의 밑바탕에 저류처럼 런던히 굽이쳐 흐르는 작가의 미학적주장은 신념이 굳건하고 의지가 강할 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으며 혁명가로서의 참삶을 빛내일수 있다는것이다.

《나라의 독립을 찾자면 계몽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겨우 교편이나 잡아본》 도시처녀 은영이가 혼자몸으로 서울을 떠나 혁명의 길에 나선 애인 김상백이 활동하고있는 무송에 올수 있는 용단의 기저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조선의 어머님 강반석녀사와 같은 위인들의 슬하에서 인생의 참삶을 누리려는 순결한 갈망인 동시에 조선녀성들의 위대강한 품성을 《항거의 절개, 반항의 절개》로 만들라고 한 애인의 뜻을 따른 고결한 정신적축적이었다.

소설에서 추구한 신념과 의지의 형상과제는 조선의 어머님 강반석녀사의 형상에서 보다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인 해명을 보게 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별세하신 그 불행한 순간에 무송에 도착한 은영은 눈앞이 아찔하고 캄캄하여 오열을 터뜨렸다.

앞일이 막막한 총중에도 분명 자리에 누워계실 어머님앞에 나타날 일이 그지없이 송구스러웠다.

헌데 어인 일인가? 어머님께서는 상제결이 아니라 백산학교에 나가 은영이 거처할 방을 꾸리고계시는것이 아닌가. 그이처럼 슬픔이 크실분이 어디 있으랴만 연약한 처녀가 청운의 뜻을 품고 불원천리 찾아온 소행이 하도 대견하시여 터질듯한 심장속의 슬픔을 누르시고 오히려 고생했겠다고 그를 위로하시며 반겨맞아주시는 어머님...

《...성주 아버님이 저 시에 쓴것처럼 뜻을 멀리

두고 우리 대를 이어 성주대, 손자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를 찾구 우리 조선을 남부럽지 않게 세계에 우뚝 세워야 하네. ...》

상백이와 은영이에게 조용히 하시는 이 말씀속에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을 자신의 신념으로 새겨안으시고 독립의 락관속에 슬픔도 다 묻어두시며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는 강반석어머님의 강의한 의지가 용솟음치고있다.

그러한 어머님이시기에 김형직선생님의 상례를 치르던 날 독립군대장들이 만아드님을 두어달 집에서 가사를 돌보다리다가 화성의숙에 보내기로 락착한 사실을 아시고는 며칠후에 당장 떠나게 해야 한다고, 그것이 성주아버님의 뜻이라고 강경히 말씀하시는것이다. 그리고 묘소를 지켜 3년간 상복을 입겠다는 상백이도 김성주동지와 함께 화성의숙에 가도록 권유하시며 꾸짖듯 타이르신다.

《적은이, 내 언제인가 말했지만 가장 큰 효도는 나라를 찾는 애국이라고 생각하네. ... 성주 아버님의 뜻대로 성주를 그 길에 내세우고 아들이 가는 길을 천만리라도 따라가며 도와서 꼭 독립을 안고 시부모님을 뵈는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네.》

마디마디에 굳건한 애국의신념이 어려있고 기어이 독립을 이룩하는 길에서 아드님과 투사들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불굴의 의지가 고백되고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일행을 화성의숙으로 떠나보내신 길로 몸소 백산학교의 종소리를 울리신것도 대를 이어가며 기어이 나라를 찾고 장차 조선을 세계앞에 우뚝 내세우시려는 웅지에서였다.

소설은 무척 인자하고 강의하시며 도량이 넓고 배심이 크신 어머님의 고매한 모습을 숨결이 통하는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인상깊게 형상화하였다.

어머님의 형상에서 발현된 신념과 의지는 나라와 민족을 기어이 구원하고 번영케 하고야말리라는 원대하고 웅심깊은 위인의 지향에서 출발한것으로 하여 매우 숭고하고 심원하게 안겨오는것이 특징이다.

전후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김영희 작)가 공감을 주는 것도 주인공이 지닌 신념의 과녁을 현실성있게 설정하고 그 실현과정을 진실하고 정서깊게 그린 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주인공인 할아버지(일명 《왜가리령감》)는 로년기여서 농장원도 아니지만 제스스로 《새벽별을 이고 대문을 나섰다가 저녁별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한생 정을 들인 고향의 산과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전쟁통에 보급자리를 탄 곳으로 옮긴 왜가리떼가

다시 깃을 들일수 있기때문이었다.

한갓 미담에 머무를수도 있는 이야기거리이다. 하지만 작가는 《피로써 지킨 땅을 피보다 더한결 쏟아부어 가꿔야》고향산천이 더 아름답고 풍요해지며 그 산천을 위해 목숨바친 조국의 아들딸들의 넋도 지키게 된다는 숭고한 애국의 신념을 주인공의 사상정신적대로 설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도 있고 사상적지향성도 높으며 사색적인 철학세계도 있는 형상화폭을 창조할수 있었다.

주인공은 무척 소박하고 평범하다. 그러나 향토의 기념비처럼 돋보이면서 독자들의 뇌리에서 좀처럼 사라질줄 모른다.

선군시대 현실을 반영한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리평 작)는 사나운 폭설과 눈보라로 하여 온통 길이 막힌 속에서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눈치기를 다그친 어느 한 광산의 운광사업소 기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의지와 영웅적기상을 폭넓은 생활화폭으로 인상깊게 보여준 작품이다.

직장장으로부터 기사장으로 임명된지 몇달밖에 안되는 최석은 아직 사업경험은 어리지만 거울진 체구에 치밀한 조직력과 실력, 배짱으로 신망도 높고 기대되는 일군이다.

헌데 수십년래의 폭설과 광란하는 눈보라로 백리쇠돌발이 통채로 눈속에 묻히자 순간이나마 당황한 그의 머리속에는 아태일군들의 사업적인 허점부터 크게 확대되어 떠올랐다.

성급하고 건망증이 심한 제1직장장 조철호, 만사에 태평스러운 제7직장장 박대평, 노상 웃음이 헤폰탓에 도무지 실속이 있어보이지 않는 《룽구선수》(그는 룽구장에 한번도 들어서본적은 없다.) 제3직장장... 과연 이들과 함께 엄청난 자연재해를 제때에 극복해낼수 있을것인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문화회관 관장 리성옥은 아예 썸에도 없었다. 그러나 폭설의 피해를 가시는데 3일은 실히 걸리리라고 타산한 기사장의 눈치기전 투작전은 바로 이들에 의해 한나절도 못 걸려 말끔히 끝났다. 기사장으로서의 일종의 《실책》이었다.

열정적이고 믿음직한 지휘능력에 두뇌전을 겸비한 제1직장장 조철호, 자발적으로 기동예술훈동대를 발동하여 로동자대중의 전투사기를 부쩍 올린 문화회관 관장 리성옥, 100t 은 실히 될 연유대형차가 《할딱고개》에서 뒤걸음질치는 위기일발의 순간 배낭에 미리 준비했던 고임목을 더밀며 온몸을 차밀에 던져 위험을 막아낸 제7직장장 박대평(그리고보면 그의 느린 언행은 심도있는 사색과 든든한 배심에서였다.), 힘든 모퉁이마

다를 완강한 투지로 스스로 말아나선 로동계급... 그들은 조직력과 실력으로 명망이 높은 기사장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기적을 창조한것이다.

자기가 설자리를 정확히 차지할줄 아는 지휘 일군들과 로동자대중의 자각된 힘의 시위였다.

기사장 최석이 얻은 교훈은 컸다. 그것은 매개 일군들의 장끼와 로동계급의 무진장한 정신육체적잠재력을 믿고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그 어떤 난관도 성과적으로 헤쳐나갈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이것은 소설이 제기한 문제성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성과작으로 평가된 단편소설들은 레외없이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지고 일관을 벌려나갈 때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은 보다 앞당겨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안겨주는것으로 하여 현실적의의가 크다.

기질은 개인에게도 있고 민족에게도 있다.

개인고유의 기질은 일반적으로 선천성을 띠면서 사회와 집단생활과정에 공고발전되게 된다면 민족공통의 기질은 후천성을 띠면서 사회적집단생활, 민족집단생활과정에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다.

이 모든 기질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특히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교양과 혁명적실

천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가꾸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적들과의 대결은 신념과 의지, 배짱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였고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는 신념과 의지, 배짱을 예로부터 정의감과 의지가 강했던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그대로 닳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이다. 신념과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배짱이 없으면 온갖 풍파를 헤치며 나아가야 하는 혁명을 할수 없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피눈물의 언덕을 넘으며 가슴에 새기신 철의 진리이다.

시련많은 혁명의 불길속에서 민족적기질로 소중히 다져진 우리 군대, 인민의 신념과 의지, 배짱을 매개 작품의 형상생리에 맞게 독창적으로 구현하는것은 새로운 시대성격, 자주적인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모든 작가들은 앞으로도 김일성민족의 기질인 신념과 의지, 배짱을 적극 살리기 위한 실리성있는 형상방도들을 탐구모색함으로써 선군혁명문학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자.

처제와 쏜아의 초상묘사

톨스토이, 레브 니콜라예비츠(1828. 8 — 1910. 11.)가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를 창작하고있을 때였다. 어느날 나 어린 처제가 톨스토이의 집에 온적이 있었다. 톨스토이는 한동안 이상하리만치 처제의 이모저모를 살피고나서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였다. 아저씨가 자기를 이상하게 관찰하고 필기장에 자꾸 적어나가는것을 본 처제는 호기심이 동해서 물었다.

《아저씨 무얼 그렇게 열심히 쓰시나요?》

《너에 대해서 쓴다.》

처제는 저으기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한테 뭘 쓸만 한게 있나요?》

그러자 톨스토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이건 내 몸에 배인 습관이다. 그래 너는 우리 집에 와서 공짜로 목을줄 알았니? 나는 너의 일거일동을 놓침없이 다 적었다.》

톨스토이는 매우 흡족해하며 처제의 불우물을

꼭 눌러주었다.

처제에 대한 소묘는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쏜아의 초상묘사에 그대로 옮겨졌다.

《쏘나는 호리호리하고 작은 몸매에 머리가 검은 처녀인데 부드러운 눈매는 그의 기다란 속눈썹으로 하여 서늘해보이고 검고 진한 머리채는 이중으로 따서 올렸으며 얼굴과 특히 파리해서 혈관이 들여다보이는 가느다란 아름다운 손목과 목의 피부는 누런색을 띠고있었다. 민첩한 동작과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짧은 사지와 약간 교활해보이며 경쾌한 그의 거동은 아직 완전하게 자리잡힌것은 못되다치더라도 앞으로는 훌륭한 고양이로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 새끼같았다.》

레브 톨스토이는 어느곳에 가든지 주위사람들을 세밀히 관찰하였으며 박물관, 도서관에 가서 서류와 기록들을 부단히 연구하고 필요한것은 부지런히 적었다.



숲에 깃든 빛

백명길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농림대학 립업학부를 졸업하고 사모산지구 산림기사로 배치를 받았다.

배치장을 받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나를 이끌고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다름령으로 향하였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숲은 바람에 설레었다.

좌—

산새들도 날아오르기 저어하는 다름령마루, 그 아래 깊고깊은 계곡을 휩쓸며 서늘한 가을바람이 숲의 바다를 파도마냥 휘저어놓았다.

아버지는 설레이는 숲을 바라보며 웃고있었다.

땀뽕 흐르륵—호르륵 쪽.

이나무 저나무 옮겨앉으며 이름모를 새들이 청아하게 우짖고 강철같은 부리로 벌레를 쫓는 딱따구리의 소리는 투박하나 위엄있게 들려왔다.

쪼르륵 쪼르륵.

어느쪽에선가 물소리가 들려왔다.

산속의 웅달샘, 차고 시원한 샘물로 단가슴을 식히고싶은 충동이 불쑥 솟았다. 어느쪽이었던가. 나는 사방을 둘러보며 물소리나는쪽을 찾았다.

《저 소리는 물소리가 아니다. 교활한 여우놈이 먹이감을 홀리려 내는 소리다. 잘 기억해두었다가 다신 속지 말아라.》

아버지는 년장자답게 타이르듯 말했다.

숲은 신비한 동화세계를 펼쳐놓은듯 나의 온 정신을 강그리 앗아갔다. 아름다리스릅나무를 짝뿔은 머루, 다래덩굴을 오가며 다람쥐며 청서들이 배부른 흥정인듯 잘 익은 열매를 땅밑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 반면에 두더지며 고슴도치들이 해묵은 락엽을 뿌지며 도토리과 밤알을 줏느라 부산을 피웠다. 숲은 풍만한 열매로 가득차있었다.

아버지를 따라 산을 오르던 나는 산중턱 높이 않은 벼랑밑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해묵은 락엽이 덮인 잠풍한 곳에 모독하니 다래무지가 쌓여있었다. 나는 고개를 쳐들고 우를 보았다.

하지만 다래덩굴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오르던 아버지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허허… 그래 자세히 보라.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느냐?》

누구의 소행인가. 나는 산짐승들의 겨울나이먹이창고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부지런한 다람쥐 아니면 꾹빠른 청서무리들이 한짓일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눈비를 가릴수 없는 이런 공지에?…

《이건 욕심많은 결구놈의 숨씨란다. 메돼지란 놈이 다래나무 한덩굴을 말짱 건어내려 익지 않은 다래를 게걸스럽게 먹고는 소화를 못 시키고 배설해버린것이란단다.》

나는 입을 항 벌리고말았다. 배설물치고는 너무도 생생한 다래무지였던것이다.

《이제 비에 젖고 서리를 맞느라면 저 진득진득한 분비액이 깨끗이 씻어진단다. 그러느라면 첫눈이 올게다. 그때 가선 이 다래는 쪼들쪼들 시들게다. 그때 맛을 보면 참 별맛이란단다. 그렇지만 이 다래도 운수가 좋아야 맛을 보지 허기진 메돼지에게 피우면… 한알도 남기지 않고 말짱 먹어버릴테니 말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노라니 입안에 저절로 군침이 돌았다. 참 흥미있는 사실이었다. 그러고보면 자연이란 얼마나 신비한가. 아버지는 한생을 이 숲과 벗삼아 살아왔으니 그 자연의 오묘한 리치를 속속들이 꿰뚫고있었다. …

할아버지의 묘소는 다름령정점에 자리잡고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묘소에 정히 술을 붓고 깊숙이 절을 했다. 조국해방전쟁전 어느해 봄날에 찍었다는 색날은 사진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익힌 나였다. 아버지와 나는 묘소옆 큰 너럭바위우에 앉았다. 아버지는 조용하나 저력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석민아! 이젠 내 나이 칠순을 넘겼으니 이 숲을 넘겨받아라. 보라, 숲이 얼마나 기름졌느냐. 이 산밭을 짝 채운 나무들을 그저 자연이 준 혜택으

로만 여기지 말아라. 이 숲에는 너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스며여있단다.》

아버지는 추연한 눈길을 들어 숲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

1

해발고가 천여메터가 넘는 사모산은 술하에 올망졸망 술한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처럼 열개도 넘는 산봉우리를 거느리고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져있다. 동쪽으로는 박달령이, 서쪽으로는 함지령과 자매령이, 남쪽으로는 삼치령과 차돌령이 려려히 뻗어있다. 또 북쪽으로는 마식령산줄기와 잇닿은 다름령이 높이 솟아있어 그 지경이 수백리가 넘는다. 그 많은 령들중 다름령은 산세가 제일 험하고 높아 다릅나무, 느릅나무, 피나무, 참나무와 같은 귀한목재들이 많이 자랐다. 그 많은 나무들중에서도 다릅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하여 이 령을 다름령이라고 불렀다.

그 령밑에는 추너가 낮은 토벽집들이 양지쪽을 향해 열댓채가량 있었는데 그 집들중 유독 한 집만이 나무로 지은 귀틀집이었다. 심산에 어울리게 우물정자로 사귀를 물려지은 토색질은 귀틀집이었다. 그 집이 바로 이 마을 토배기로 자처하는 목침장사 박제경의 집이었다.

박제경의 가문이 심심산골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지가 딱히 어느때부터인지는 그자신도 아버지도 몰랐다. 그저 이곳에서 태를 묻고 자란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니 박제경이 이 고장 토배기라는 것은 분명했다.

다름령밑을 감돌며 맑은 시내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 개울물을 따라 30리쯤 내려가면 자가면소재지가 나지는데 면사람들치고 목침장사 박제경을 모르는 사람이 별반 없었다.

박제경이 유명해진것은 그 하찮은 목침때문이었다. 자가면집들에 가면 목침이 없는 집이 거의나 없다. 이제는 지경을 넘어 이웃군 면들에까지 퍼져갔다. 박제경은 면에 큰 장이 설 때마다 지게 다리가 휘도록 목침을 지고 나가 별로 값도 따지지 않고 녹거리로 팔곤 했다. 그 값이래야 동전 한잎 아니면 두잎정도였다. 그런 덕에 박제경의 후한 인심은 면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도 박제경은 저녁녘이 되어 파장때가 되자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술집으로 들어가 호기있게 술을 청했다.

《이 목침장사 술 한상 주오.》

감때사나운 채벌꾼들도 움작 못하게 만드는 왕드살이술집로친이 박제경을 반기며 술상을 차려주었다. 그러면 박제경이 마주한 술상앞으로 면식있는 술꾼들이 어슬렁어슬렁 모여들곤 했다.

인심 후한 박제경의 술상에 다가들면 손해는 없었던것이다.

《로친, 술 서너상 더주오!》

《그만두게. 그러다 저 쉬파리같은 자식들에게 목침판 돈을 말짱 털리우겠네.》

왕드살이로친은 질기기가 소힘줄같은 술꾼들을 아니꼽게 쓰아보았다.

《로친, 내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요.》

박제경은 베잠뱅이주머니에서 시뻘건 지폐 두장을 꺼내놓았다.

왕드살이로친의 두눈이 금시 화등잔만 해졌다.

한뼉 동전 몇잎밖에 넣어본적 없는 가난뱅이의 주머니속에서 지폐가 나오다니…

《아, 아침에 장거리에 나와 목침을 퍼놓기 바쁘게 기모노를 입은 왜년이 게다짜를 달썩달썩 끌며 내앞에 와서 묻질 않겠소. 약장사가 어디 있는냐구요. 그래 둘러보니 약장사 나온게 보이지 않길래 아직 약장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해주었소. 그런데 갈줄 알았던 그 왜년이 내굴먹은 암고 양이상을 하고 그냥 서있지 않겠소.》

내 그래 대관절 웬일로 아침부터 약장사를 찾느냐구 물었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서방놈의 오입쟁이버릇을 떼줄 약을 사려고 그런다길 않겠소. 그래 내 시치미를 뻑 따구 이게 바로 그런 병을 떼주는 소문난 다릅나무목침이라구 했지. 그러자 그 왜년의 입이 대번에 함박만 해져 값을 묻기에 이렇게 불렀지요. 동전 두잎이라구 말이지요.》

박제경은 두손가락을 펴들었다. 박제경의 애기에 정신이 빼앗긴 술꾼들은 엉치를 들썩거리며 그에게로 더 바싹바싹 다가앉았다.

《했더니 그 왜년은 그 두손가락을 펴든게 2원이라는 소리줄 알았던지 1원짜리 두장을 아깝지 않게 꺼내주지 않겠소. 흐하하… 글썄 제 서방놈이 지독한 오입쟁이라나요, 흐하하…》

《흐하하…》

술집안에 웃음폭포가 터졌다. 술꾼들은 물론이요, 봉이 김선달도 못 웃긴다는 왕드살이로친도 게걸스럽게 웃어댔다. 그날 박제경은 왜년에게 목침판 돈을 말짱 털어 술꾼들에게 먹였다.

술기운이 거나해지자 박제경은 술상밑에 덩굴고있는 기름때가 반질반질한 목침을 집어들었다.

《이 다릅나무목침 허술하게 대하지 말라구요.》

박제경은 목침을 깔고앉았다. 그리고 술꾼들에게 또다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우리 가문은 이 다릅나무와 떼여놓을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있다네. 그게 뭐고하니 우리 12대선조부께선 이름난 목수였는데 왕이 앉는 통상도 만든적이 있었다네. 글썄 그때 왕이 다릅나무가 좋다는걸 어떻게 알았는지 꼭 다릅나무로 통상을 만들어 올리라지 않았겠나. 그래 그걸 우리…》

《거짓말! 자네 룡상을 보거나 했나?》

《됐지. 서울 가면 경복궁이 있는데 거기에 있네. 그뿐인줄 아나. 우리 9대선조부께선 소문난 암행어사 박문수가 차고다니던 마패도 이 다릅나무로 제손으로 깎아주었다네. 그래 그통에 우리 고을 군수도 파직을 면했다는걸 아마 자네들은 모를걸세.》

박제경은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인지 진말인지 모를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다.

《흐하하... 자넨 봉이 김선달 찜찜먹겠네.》

《자넨 박선달일세, 하하...》

또다시 웃음판이 터졌다. 한바탕 술판을 휘젓고 난 박제경은 거나해서 술집을 나왔다.

술기운이 온몸에 퍼진지라 기분은 높이 뜬 구름처럼 붕 뚫다.

박제경은 호기있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침을 사소 목침을 사소
홀아비설을 위해주고
령감님들 로친정 잇게 하는
에헤라 다릅나무목침 어서들 사소
...

취흥에 불려대는 흥타령은 듣는 사람들마다 병글병글 웃게 했다.

박제경은 해가 합지령마루너머로 지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어도 만사태평으로 팔자걸음을 했다. 어깨에는 빈 지게가 메여져있고 그 지게다리 우에는 훌쭉한 베자루가 걸려있었다. 그속에는 좁쌀 한되밖에 엇가락 몇개가 들어있었다.

집에는 에미없는 열살짜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있었다.

박제경의 안해는 이태전 학질을 앓다가 서론도 못살고 비명에 저세상으로 가버렸던것이다.

그런 홀아비설음을 위해주는것은 술밖에 없었다.

각근한 이웃들이 그들 부자의 정상이 하도 가궁해 착실한 과부라도 맞아들이라 권고했지만 박제경은 그때마다 도리머리를 저었다.

《싫수다. 내 신세가 어째서요. 나에게는 저 다릅령과 다릅나무가 있는데 난 그 숲과 함께 사는 게 평생 락이지요.》

그랬다. 사람마다 제나름의 락이 있는 법이다.

다릅나무는 박제경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라고 할만큼 귀중한것이었다. 하루 세끼 조밥이라도 근근히 먹여주는것도 다릅나무요, 또 숲을 가꾸다가 입은 상처나 여러가지 병을 낫게 해주는것도 바로 다릅나무였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목침을 만들어도 다릅나무원줄기가 아니라 목침감이 될만 한 가지를 골라 찍군 하였고 그 수많은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자기의 온넋을 바쳐 가꾸어주곤 하였다. 게다가 다릅나무가 있는 산중턱 양지바른 덕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었다. 언제적 조상때부터 선산으로 되였는지는 딱히 모르지만...

언제인가 돈푼이나 있는 놈이 일꾼들을 시켜 죽어 천당에 갈 때 쓸 관을 짜겠다고 다릅나무원대에 도끼질을 한적이 있었다. 이때 숲을 돌아보던 박제경은 그놈의 멍살을 잡고 이렇게 말했었다.

《이놈아!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걸 모르느냐? 흥, 이 진귀한 다릅나무로 개뻥다구같은 네놈의 관을 짜겠다고 이지랄이나?》

박제경은 놈에게 가차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 덕에 그는 경찰서류치장맛을 톡톡히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직도 그의 얼굴에는 그때 경찰서에서 매를 맞아 생긴 상처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토록 그는 다릅령의 숲과 다릅나무를 제 살붙이처럼 소중히 여겼던것이다.

박제경은 어둠이 깃들었을 때에야 집에 당도했다.

2

《영운아! ... 영운아...》

집은 비어있었다. 박제경은 뒤집 분너네 집으로 갔다. 희뿌연 광술불빛에서 아들과와 분너가 재미있게 노는 모양이 문창호지로 내비쳐보였다.

분너는 아버지가 없는 과부집 딸이다. 몇년전 돈을 벌어온다고 금전판으로 갔던 아버지가 갱이 무너지는통에 생죽음을 당했던것이다. 그 애의 집도 박제경의 집과 별반 차이없이 궁색했다. 그래도 분너는 엄마없는 영운이보다 나았다. 다심하고 살뜰한 어머니의 손길이 분너의 몸을 풀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덜통한 아버지의 사랑에 정붙지 않아서인지 영운이는 째만 있으면 분너네 집으로 가곤 했다.

박제경은 일순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저 어린 아들이 오죽이나 에미품이 그리웠으면 저러랴. ... 엄마의 온기가 흐르는 집, 그 집이 분너의 집이여서 영운이는 썰렁한 제 집을 비우고 늘쌍 이곳에서 살다싶이 한다.

《정경...》

인기척을 느낀 검정강아지가 야무지게 짖어댔다.

이윽고 부엌문이 열렸다. 바깥동정을 살피던 분너 어머니가 삐딱문앞에 서있는 박제경을 띄여보고 반색하며 말했다.

《영운아, 아버지 오셨다.》

영운이는 분너와 떨어지기 아쉬운듯 뜨직뜨직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영운아, 이걸 아버지에게 드려라.》

분녀 어머니는 문밖을 나서는 영운이의 손에 좁쌀떡이 담긴 그릇을 쥐여주었다. 분녀 어머니가 영운이 아버지뚱으로 남겨두었던 떡이었다.

박제경은 코마루가 시큰해졌다. 참 고마운 녀인이었다. 이른봄 햇나물을 뜯어도 영운이네 뚱을 갈라 보냈고 어쩌다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꼭꼭 분녀의 손에 들려보내곤 하는 인정깊은 녀인이었다. 아, 부자집 조난가리처럼 차곡차곡 쌓아지는 분녀네 집 신세를 무엇으로 갚을고. …

박제경이 분녀네 모녀를 기껏 생각했다는게 뭘 나무 서너집 저다 준것밖에 없으니 말이다.

박제경은 이번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

다음날도 박제경은 목침을 깎았다.

아직은 이른봄인지라 음달진쪽에는 해묵은 눈이 모독모독 쌓여있어 해퍼지기 전이면 추웠다.

하지만 박달령마루에 빠끔히 해가 솟으면 따스한 봄기운 실은 해빛이 자글자글 몸을 간지럽혀 누구나 허리를 쭉 펴고 오금을 놀렸다.

그때면 박제경은 삼으로 엮은 질긴 멍석을 마당에 깔고 두닥두닥 자귀로 목침을 깎았다.

청신한 아침공기에 어울려 싹싹한 다릅나무 냄새가 마당을 짙 채웠다. 다릅나무는 박달나무 못지 않게 재질이 굳다.

또한 연밤색나무결무늬가 이름난 도색공이 한 품들인것만큼 정교했다. 하여 목재로는 손에 꼽힐 정도로 고급이었다.

다릅나무로 가구를 만들면 백년이나 이백년이 가도 그 모양새에는 변함이 없었고 집안의 별례까지도 모두 몰아낸다고 한다. 그런 나무로 깎은 목침이어서 그 수요가 높았고 또한 그만큼 박제경이 유명해졌던 것이다.

툭탁, 툭탁…

투박한 자귀질소리가 아침공기를 해가르며 울려갔다. 마당 양지바른 한구석에는 영운이와 분녀가 다정하게 앉아 각시놀음에 정신을 팔고있었다.

《요건 새서방 조구만찬감.》

분녀가 깨진 바가지조박에 모래밥을 담아 영운이앞에 놓았다.

《이건 새색시 좋아하는 기장밥.》

영운이도 어디서 주어왔는지 금이 간 자그마한 웅배기그릇에 나무밥을 가득 담아 분녀앞에 놓았다.

《아니야. 새색시 밥그릇이 너무 커.》 《흥, 새색시 배 불췌 먹어야 조발김 많이 매.》

《흥, 나 먹보가 아니야.》

분녀가 뽀로통해져 영운이앞에 웅배기그릇을 밀어놓았다.

《나 새색시 안할래.》

《나도 새서방 안할래.》

《미웁쟁이!》

《새침데기!》

악의없는 입싸움이 시작됐다. 겨금내기로 너한마디 나 한마디 재잘거렸다.

박제경은 일손을 놓고 아이들의 놀음을 지켜보았다. 영운이와 분녀는 오손도손 놀기도 잘하고 티각태각 다투기도 잘한다.

《영운아, 분녀 말이 옳다! 새각시가 미웁하게 밥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 뚱기뚱기 조발김 못 맨단다.》

영운이 아버지가 자기의 편을 들자 분녀는 발췌 웃으며 영운이앞에 나무밥을 쏟아놓았다.

《씨, 아버지 분녀밖에 몰라.》

영운이는 불이 잔뜩 불어가지고 돌아앉았다.

분녀는 눈치빠르게 영운이를 얼렸다.

《영운아, 우리 손벽치기 놀음하자.》

《응.》

영운이는 순간에 노여움을 풀고 분녀와 마주앉았다. 박제경은 온갖 시름 다 잊고 아이들 노는 모양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영운이와 분녀가 어른으로 자라 새색시, 새서방이 되어 사슴처럼, 원앙새처럼 의종게 살아가는 모양이 선히 떠올랐다. 그때면 초가삼간 알뜰한 집에서 목침도 깎고 손주녀석을 업고 마당을 거닐겠으니…아, 생각만 해도…

한동안 상념에 빠졌던 그는 허구뜨게 웃어버렸다. 아직 새알같은 아이들을 놓고 별생각을 다한다는 쑥스러운 감정이 들었던 것이다.

다시 자귀를 쥐려는 아버지에게 영운이가 느닷없이 말했다.

《아버지, 분녀 어머니 시집간다.》

《?...》

《분녀, 맞지!》

《응! 외삼촌이 나에게도 새 아버지가 생긴대요.》

박제경은 일시 몸이 굳어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엄마가 시집을 가는것이 좋은 일인지 또 새 아버지가 생기는것이 기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철없는 것이었다. 보면 본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쨌쨌거리는 것이 동심이 아닌가.

그러니 금방 내뱉은 소리가 헛소리가 아닌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다.

《외삼촌이 새 아버지한테는 아이가 없대요.》

분녀는 며칠전 눈 깜빡 자는척 하면서 엇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어머니가 시집을 가는것이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듯…

《분녀야, 그래 어머니는 뭐라던?》

박제경은 서운한 감정을 애써 감추며 물었다.

《어머닌 이제 시집을 가면 고생이래요.》

《외삼촌은 뭐라던?》

분녀는 입을 오물거릴뿐 말을 못했다. 아마도 여기까지만 귀동냥해듣고 고만에야 쿵쿵 잠을 잔 모양이었다.

박제경은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그리고는 마라초를 굵게 말아 물었다. 영운이와 분녀는 말없이 아버지를 뻔히 쳐다보고있었다. 크나큰 시름을 실은듯 박제경의 두툼한 입술새로 담배연기가 풀풀 나갔다.

박제경은 두쌍의 맑은 눈동자를 대하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얼른 손에 자귀를 쥐고 목침을 깎았다. 그래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아, 어인 일로 이렇듯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인가? ... 이태가 넘도록 앞집뒤집 홀아비과부가 궁색하게 살면서도 뒤시비 한마디 듣지 않고 살아온 두 집이었다.

박제경은 창황중에 헛 자귀질을 했다. 마음속엔 별의별 생각이 짝 차있었다.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언제인가 한마을에 사는 포수령감이 찾아와 뒤집 분녀네와 가정을 합치라고 웃으며 말할 때 큰일난것처럼 길길이 뿔 그였다. 내 주제에 이 꼴 해가지고 무슨 럽치로 그렇듯 알뜰한 너자를 데려온단 말인가고...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듯 못된 감정만 불끈 불끈 솟는고...

박제경은 다 타버린 담배꽂초를 훌 내뱉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에끼 못난 놈!)

그리고는 채 깎지 못한 목침을 토방에 던져버렸다. ...

3

박제경은 다름령주변에서 자라는 다릅나무는 하늘이 준 덕으로 누구나 망탕 찍을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나무로 여기고있었다. 허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얼마전 사모산지구 산림간수로 새로 부임되어온 마즈다는 너편네가 장거리에서 사온 다릅나무목침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이 귀한 나무로 목침을 깎다니?)

너편네는 침대에서 폭신한 오리털베개를 내리고 딱딱한 목침을 놓으며 종알거렸다.

《오늘부턴 이 목침을 베고 자요. 그러면 당신이 오래 살수 있대요.》

마즈다는 아무 대답도 없이 목침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그날 밤 마즈다는 너편네의 속궁냥은 알지도 못하면서 밤새껏 익숙되지 않은 목침을 베고갔다. 마즈다는 그 다음날로 면장을 앞세우고 사모산지구를 편답했다. 그러던중 놈은 다릅나무 숲을 발견하고는 입이 함박만 해져 씨벌여대었다.

《흐흐... 이건 돈산이다, 돈산!》

마즈다는 너무도 흥분된 나머지 윈다리를 갑작 갑작 떨었다. 놈은 관동군에 징집되어 중국남부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된 후 총독부에 줄을 놓

아 이곳 산간벽지로 돈벌이를 온것이였다.

웃도 군대에서 입던 누런 군복차림 그대로였다.

상은 수염이 텅수룩한게 꼭 절구상통이였다.

뺨뺨 깎은 절구통같은 머리에 군모가 삐딱하니 우습강스럽게 걸려있었다.

《면장, 우리 부친께서 경영하는 가구회사는 오사까에만도 세개나 된다. 이제 저 다릅나무를 찍어 일본에 실어가면 일확천금을 할수 있다.》

《마즈다상은 운수가 좋소. 조선속담에 〈엎어저도 떡함지라〉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지요. 헤헤...》

간사하기 이룰데 없는 면장이 마즈다의 턱밑에 다가붙으며 아양을 떨었다.

《래일부터 인부들을 동원해 나무를 찍어야겠다. 그리고 이 다릅나무에 손을 대는 놈은 콩밥을 먹일테다.》

마즈다는 칼자국이 흉하게 난 볼따귀를 실룩거리며 말했다. 이때 산등성이에서 나무짐을 진 박제경이 내려오고있었다. 마른 삭정이 한집에 목침감 몇대를 찍어오는 길이었다.

마즈다는 먹이감을 만난 승냥이처럼 박제경을 노려보았다. 놈은 박달나무로 깎은 훈련용격검채를 지팡이삼아 짚고 고아댔다.

《네놈이나 다릅나무나 찍어오는가?》

박제경은 웬일이냐는듯 나무단을 진채 마즈다를 쳐다보았다. 면장이 마즈다의 귀에 대고뭐라고 속살댔다. 마즈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제경에게로 다가왔다.

《네놈이나 목침장사인가?》

《그렇소.》

박제경은 태연하게 응대했다.

《그렇다?!》

마즈다는 먹이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박제경의 주위를 맴돌았다. 《네놈이나 누구의 승인을 받고 나무를 찍는가?》

《...》

《허가없이 나무를 찍으면 콩밥먹는줄 네놈이나 모르는가?》

《흥!》

박제경은 코방귀를 귀었다.

《네놈이나 나무짐을 내려놓고 엎드려라!》

《못 내려놓겠소. 그래 제 집 선산에 가서 나무한집 해오는데 웬 성화요?》

박제경은 나무단을 추어올리며 대들었다.

《뭐, 제 집 선산!》

《그렇소. 이 산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 선산이요.》

《뭐 선산, 빠가야로!》

마즈다는 격검채로 박제경의 머리를 내리쳤다.

《앗!》

무방비상태로 서있던 박제경은 머리를 싸쥐며

나무단을 진채 나뒹굴었다.

마쁘다는 피를 본 승냥이마냥 달려들어 박제경을 사정없이 발길로 걸어찼다.

《네놈이나 선산이 없다는걸 모르는가. 죽어봐라!》

박제경은 마쁘다에게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마쁘다는 쓰러진 박제경의 몸을 구두발로 밟고 뇌까렸다.

《네놈이나 다시 다릅나무에 손을 댔다가는 죽여버리겠다!》

마쁘다는 본때를 보였다는듯 면장을 앞세우고 기기양양해서 산을 내렸다.

박제경은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렸다.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였다.

《개놈들, 어디 두고보자!》

박제경은 전신의 힘을 모아 산을 내렸다.

가까스로 집까지 당도한 박제경은 목침을 베고 쉼없는 방 한가운데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영운이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영운이가 알렸는지 분녀 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들어왔다.

《아버지, 정신차려요. 분녀 어머니가 왔어요. 영영...》

영운이가 안타깝게 아버지를 흔들어서야 박제경은 무겁게 감았던 눈을 떴다.

분녀 어머니는 부엌에 내려가 소랭이에 물을 떠들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수건에 적서 박제경의 얼굴에 묻은 피를 조심조심 닦아주었다.

살뜰한 너인의 손길이 거치른 박제경의 살결에 따스히 와닿는다. 박제경의 어글어글한 두눈에서 대추알같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프나요?》

박제경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머리를 저었다.

《아니우다. 아파서 우는게 아니우다.》

《...》

분녀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박제경의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고있음을 느꼈던것이다.

분녀 어머니는 집에서 가져온 쌀로 미음을 쑨어 박제경의 입에 떠넣어주며 밤새워 간호를 했다.

다음날 아침 《팅...팅...》하는 궁글은 도끼질소리가 박제경의 집 피창가로 날아들었다.

박제경은 그 도끼질소리가 뼈를 깎아내리는것만큼 아팠다.

벌써 마쁘다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다릅나무를 찍기 시작했던것이었다.

그날 밤 박제경은 공복에 술 한사발을 마시고 집을 나섰다. 매맞은 어혈에 술기운이 합쳐져 비틀비틀 몸을 가눌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분노가 그를 더는 누워있을수 없게 하였던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릅령으로 올랐다. 어디선가 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와스스— 숲이 설렁거렸다. 아니, 숲도 상처를 입고 몸부림치며 흐느끼고있었다.

어둠의 장막, 먹물을 뿌려놓은듯 한치도 분간키 어려운 산길을 뚫으며 박제경은 목침노래를 불렀다.

목침을 사소 목침을 사소

몸쓸 놈 대갈통까지 좋고

...

설음을 씹고 삼키면서 부르는 노래소리는 바람을 타고 어두운 밤하늘로 처량하게 울려갔다.

박제경은 숲에 들어섰다. 다릅나무, 피나무, 느릅나무, 참나무가 짝 들어찬 기름진 숲이었다.

비틀, 박제경은 어느결에 아름별게 자란 나무를 부여잡았다. 손끝에 미쳐오는 얇은 나무껍질, 그것은 다릅나무였다.

박제경은 어머니품에 안겨들듯 다릅나무를 짝 그러안았다. 두볼로는 눈물이 샘처럼 흘러내렸다.

《다릅나무야! 오록이 성성해가지고 너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놈을 부디 용서해다오, 흑, 흑...》

박제경은 실성한듯 비틀비틀 잡초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한줌 움켜쥐면 와삭와삭 바스러질만큼 마른 잡초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삽시에 화약처럼 번져갔다. 삼단같은 불길은 동풍에 실려 닿는 곳마다 불길을 일으켰다.

《하하... 잘 탄다! 하하...》

박제경은 미친듯이 웃어댔다. 그러다가는 웬일인지 허우적거리며 불붙는쪽으로 달려갔다 달려오곤 했다. 산불은 무섭게 번져갔다. 박제경은 울고웃으며 미친 사람처럼 멍청히 서있었다.

너편네의 성화에 못이겨 딱딱한 목침을 베고 이리궁깃 저리궁깃 잠을 청하던 마쁘다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자 깜짝 놀라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돈난가리에 불이 달렸다. 불을 끄라!》

그 이튿날 아침 마쁘다는 칼찬 순사들을 앞세우고 박제경의 집에 달려들었다.

박제경은 모든것을 각오한듯 태연한 자세로 서있었다.

《저놈을 묶어라!》

마쁘다는 걸구상통에 분기를 잔뜩 담고 소리쳤다. 순사들이 박제경을 묶으려 하자 아들 영운이가 달려왔다.

《아버지!》

《영운아!》

박제경은 와락 아들을 품에 안았다.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한덩어리가 되어 울었다.

《요놈의 자식! 너도 콩밥을 먹을테냐?》 마쁘다는 영운이의 귀쪽을 잡아당겼다.

순사들이 박제경에게 오라를 지웠다.

《아버지, 가지 말아요!》

또다시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영운이를 마쁘다가 발길로 걸어찼다.

《이놈아, 내 아들은 다치지 말아!》

순사들이 박제경을 잡아끌었다.

《잔말 말고 어서 걷기나 해. 불한당같은 놈.》

울며 발버둥질하는 영운이를 분녀 어머니가 품에 안았다. 순사들에게 떠밀려 울박을 나서던 박제경은 개바자 한옆에 서있는 분녀 어머니앞에서 툭 떴었다.

《아주머니, 우리 영운이를 부탁하우다.》

그를 바라보는 분녀 어머니의 얼굴로 진액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박제경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진정 하고싶은 말이 많았다. 이런 일이 아니었던들 박제경은 결단코 오빠의 혼처를 마다한 그 녀인의 손목을 자기 집으로 이끌었을것이었다. 박제경은 뉘어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무겁게 걸음을 내짚었다.

《영운이 아버지, 영운이 걱정은 말고 부디 살아 돌아오세요! 흑, 흑...》

박제경은 분녀 어머니의 그 말속에 담겨진 뜨거운 사랑의 정을 가슴에 새겼다.

박제경은 순사들의 발길에 채워 끌려가면서 《목침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침을 사소 목침을 사소

홀아비설음 위해주고

...

순사놈들이 미쳤다고 아부재기를 쳤다. 했던만 박제경은 그냥 노래를 부르며 끌려갔다. 피를 토하는듯 한 노래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며 멀리로 울려갔다.

4

10년형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갔던 박제경은 조국의 해방과 함께 7년만에야 감옥에서 나왔다.

지옥같은 옥살이, 그 긴긴 7년세월 어느 한지도 잊어본적 없는 고향이었다. 그 정든 고향으로 박제경은 살아돌아왔던것이다.

이제는 다 자라 젊은이가 되었을 영운이와 분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분녀 어머니는 각박한 세월에 영운이까지 먹여 살리자니 고생인들 얼마나 했을가, 아마도 그 굶던 얼굴에 주름살이 고랑처럼 졌을지 모른다. 이제 만나면 그 고마운 녀인에게 큰절을 드리리라.

하지만 박제경이 품었던 상봉의 그리움은 줄지에 허물어졌으니 그를 마주한 마을사람들은 너나없이 반기면서도 쿵쾅쿵쾅 울고있었다.

그래도 마을의 좌상인 포수령감이 자기 집으로

제경을 데리고 들어가 큰술을 몰아쉬며 말했다.

《후— 이 사람! 마음을 크게 먹게. 자네 살붙이는 없네.》

박제경은 무슨 소리냐는듯 한 표정으로 포수령감을 바라보았다.

《영운인 분녀 에미가 말아 잘 키웠지. 그런데... 몇해전 여름에 글썽 큰 장마가 졌지. 비두 끔찍스럽게 내립데. 사흘낮 사흘밤 꼬박 퍼부어대는데 이거라구야. 그날 영운인 분녀와 함께 읍에 있는 외삼촌집에 심부름을 가고 집엔 분녀 에미 혼자있었네. 글썽 그날 밤 일이 났지. 대줄기같은 비가 몇올만 하니까 다름령중턱에서 천둥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사태가 나지 않았겠나. 순식간에 분녀네 집과 이웃집 몇채가 사태에 묻혔네. ... 후, 줄지에 에미를 잃은 분녀와 영운이는... 어찌겠나. 외삼촌이 키우겠다며 분녀와 영운일 데려갔다네. 그후에 들리는 말이 분녀 외삼촌이 온 가족을 데리고 살길을 찾아 동북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여적 중무소식이야.》

포수령감은 다 타버려 불이 죽은 마라초를 빼꼼빼꼼 빨다가 증이 난듯 버렸다.

박제경은 가슴이 답답해져 포수령감의 집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직도 울타리밖에 모여서서 눈굽을 짚고있는 사람들속에서 그리운 모습들을 찾아보려는듯 두리번거렸다. 그러던 그는 피곳 눈길을 들어 다름령을 바라보았다. 큰 나무라고는 한대도 보이지 않는 벌거숭이산이 눈에 안겨들었다.

박제경은 눈을 습벅이었다. 꼭 판고장에 온듯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옛사람 그대로인데 산천은 이다지도 변할수 있단 말인가. 순간 그의 눈앞에는 삼단같은 불길이 떠올랐다.

(아, 내가 그때 왜놈때문에 불질을 했으니 사태가 났구나.)

《아이쿠, 내가 분녀 에미 죽였소! 흐흑...》

박제경은 가슴을 치며 황소의 영각소리같은 통곡을 터쳤다.

《이 사람, 진정하라구. 집으로 들어가세. 자네 얼굴이 퉁퉁 부었네. 어서 감옥소독을 뿔아야지 죽네, 죽어.》

포수령감은 박제경을 부축하여 집안으로 이끌었다. 인심이 후한 포수령감내외는 친아들처럼 박제경을 위해주었다.

로친은 감옥밥여독을 뿔는데는 순두부가 제일이라며 매끼 두부를 앗아주었다.

차츰 가면서 몸은 추세워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고 커만 갔다. 밤마다 산사태에 묻힌 분녀 어머니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곤 했다.

어느날 박제경은 지팽이를 짚고 다름령에 올랐다. 여기저기 다 썩고 불탄 나무등결만이 안겨왔다. 박제경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7년전 마쁘다를 복수하려 내가 다름령에 불을 놓은게 과연 옳은 처사였던가. ... 아니, 아니다.

분풀이를 하려면 마쓰다의 대갈통을 까부셔야 했을 것이다. 숲이 그대로 있었다라면 역센 나무뿌리들이 있어 산사태도 안 났을 것이고 또 분너 에미도 죽지 않았을게 아닌가.

와스스— 바람이 불었다. 그래도 숲은 숲이라고 상상한 나무가지들이 술렁거리었다.

박제경에게는 그 소리가 숲의 흐느낌처럼 들려왔다. 그랬다. 숲은 상처를 입고 슬피슬피 울고있었다. ...

해방된 이듬해, 그 한해를 거의 자리에 누워있 다싶이 하며 감옥독을 뽑고난 박제경은 그 다음 해봄에야 다소 원기를 되찾았다. 몇번이고 부었다 내렸다 하던 얼굴이 이제는 제 모양이 잡혔다. 제 모양이라야 관골이 툭 빠져져나온 뺨뺨한 살결에 주름살이 간것뿐이었다.

십신이 안정된 어느날 박제경은 구경삼아 면소재지에 있는 장거리로 갔다. 면소재지는 해방의 열기에 봄기운까지 더해져 어디 가나 환희로 들끓고있었다. 마쓰다놈이 틀고앉아있던 왜놈산림경영소자리에 면인민위원회가 자리잡았다.

박제경은 천천히 장거리에 들어섰다. 이제는 아득한 옛일로 된 그 시절 박제경은 목침장사로 사람들과 친숙해졌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면인민위원회가 가까이 바라보였다. 박제경은 면인민위원회 앞마당에 웅기중기 모여있는 사람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너로소 술한 군중이 모여서서 무슨 신문인지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있었다. 박제경은 신문을 들고 달려가는 녀학생에게 물었다.

《학생, 대체 무슨 일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처리는 그것도 모르냐는듯 한어조로 제경의 말허리를 끊으며 빠른 말씨로 대답해주었다.

《예...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셨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어요.》

박제경은 너무도 놀라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신문내용을 소리내어 읽어가는 안경 낀 사람결로 다가갔다.

《그래 뭐라고 썼소?》

박제경을 힐끗 보고난 그 사람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어제 평양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시었는데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어야 하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박제경은 또다시 그 자리에 굳어져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손수 나무를 심으시다니... 그 일이 아니고도 얼마나 바쁘시게 몸소 산에 오르신단 말인가. ...)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박제경은 심한 자책으

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지금껏 벌거숭이가 된 다릅령을 바라보며 가슴만 쥐여뜯었지 그 산에 나무심을 생각은 여적 한적이 없는 그였다.

너나없이 해방기분에 싸여 홍타령을 부르고있을 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상처입은 조국의 산과 들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문수봉에 올라 손수 나무를 심으셨으니...나무를 심자! 심고 또 심어 고향산천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만들자.

박제경은 그 길만이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튿날 박제경은 다릅령에 올랐다. 그는 손금처럼 알고있는 산판의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며 툴아올랐다.

그는 동쪽편 크지 않은 벼랑밑에서 한그루의 애어린 나무를 발견했다. 얇은 나무껍질이며 몽실몽실한 가지마디들이 눈에 익었던것이다.

박제경은 나무가지를 꺾어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보았다. 씹새로운 즙이 그의 혀를 텅텅하게 적셔주었다. 박제경의 얼굴에 잔물결처럼 기쁨이 실렸다.

《다릅나무다!》

박제경은 무릎을 꿇고앉아 다릅나무를 어루만졌다. 꼭 잃었던 어린 아들을 만난 기분이였다.

그는 낫으로 나무주변에 뒤엎겨진 잡초들을 베어던지고 번듯하니 자리를 내었다. 그리고는 또령의 여기저기를 훑아보았다.

박제경은 산중턱 여기저기서 애어린 다릅나무를 여러그루나 발견했다. 그는 기뻐다. 그리고 힘이 솟았다. 숲이 살아나려고 막 움쉴음쉴 태동하는것만 같았다. 그 이튿날부터 박제경은 나무심기의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산의 모든 산발들을 메주밟듯 타가며 애어린 다릅나무를 떠다심었다.

그리고 양지바르고 바람새 잠풍한 곳을 골라 양묘장을 만들고 다릅나무의 뿌리를 갈라 나무모를 키우기 시작했다.

박제경은 온갖 심혈을 기울여 나무모를 가꾸었다. 어제는 여기서 80리길인 읍산림경영소에 찾아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왔다. 아침저녁 물도 주고 새벽이면 나래도 덮어주며 나무모와 함께 살았다. ...

어느날 박제경이 보금자리처럼 꾸려놓은 양묘장으로 면위원장과 포수령감이 나타났다.

《수고합니다.》

면위원장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도 역시 고장 태생으로서 해방전 반일투쟁경력도 가지고있는 30대의 패기있는 젊은이였다.

목청이 결결하고 인상 또한 호남아여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일군이였다.

《이 양묘장을 박동무가 꾸렸습니까?》

《뭐, 아는게 없는 놈이 해보느라고 했는데...》

면위원장과 포수령감은 흐뭇한 눈길로 양묘장을 둘러보았다.

《허, 그새 일을 많이 했구려.》

포수령감도 감탄해마지않았다.

세사람은 양묘장 한옆에 쌓아둔 나래단을 깔고 앉았다. 면위원장이 포수령감과 박제경에게 담배를 권했다.

《저 제가 박동무를 찾아온것은 다름이 아니라 박동무가 면에 나와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향때문입니다.》

《...》

박제경은 뻔뻔하게 담배만 빨았다.

《이 사람, 면에서는 자네가 감옥소경력도 있고 또 처자도 없이 외롭게 사는데 봐서두 그렇구 자네를 간부로 등용하자고 토론이 됐나보네. 그래서 위원장어른께서 걸음을 한게야.》

포수령감은 신명이 나서 말했다. 그랬건만 박제경은 쓰다달다 말없이 면산만 바라보고있었다. 박제경은 한참만에야 두툼한 입술을 열었다.

《아바이! 나에게 다신 감옥소말 꺼내지 마시우. 그제 무슨 자랑거리라구... 그리구 난 다름령에 죄를 진 사람이우다. 이 혈벗은 령이 안 보이나요?...》

박제경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렸다.

《이 사람! 자네가 저 다름령에 불을 지른건 잘한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마쁘다눔이 다름나무를 가만 놔두었겠나? 모조리 찍어 일본으로 가져갔을거네.》

《아니우다. 그 마쁘다눔의 대갈통을 까부서야 했지요.》

사실 면사람들은 해방전 마쁘다눔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친 박제경의 인격을 높이 사주고있었다. 면위원장이 포수령감을 앞세우고 온것도 바로 그를 면산림경영소의 일군으로 등용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면위원장, 그 마음은 고맙소. 하지만 난 저 다름령과 한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했소. 생각해보시우. 우리 민족의 령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도 문수봉에 올라 몸소 나무를 심으셨는데 내가 백성으로서... 난 이 산을 푸른 숲으로 뒤덮기 전에는 산을 내려가지 않겠소.》

면위원장과 포수령감은 코마루가 쟁해났다.

《박동무! 동무의 마음속에 그런 귀중한 결심이 자리잡고있는줄 내 미처 몰랐군요.》

《제경이! 난 나이란 잔뜩 먹었지 자네 발뒤축에도 따라 못 갈 놈이야.》

면위원장과 포수령감은 박제경의 손을 굳게 잡고 뜨겁게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후 면위원장은 마차를 끌고 읍에 나가 해방전 산림전문을 졸업했다는 양복쟁이 한 사람을 데려왔다.

그는 박제경이 꾸려놓은 양묘장을 돌아보고나

서 크게 탄복했다. 그가 특별히 감탄한것은 전문 지식도 없는 박제경이 뿌리가르기방법으로 심은 다름나무모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는 뿌리를 갈라심은 다름나무뿌리를 뽑아 확대경을 대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확대경을 가까이, 멀리 대보던 그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탄성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성공입니다. 자, 보십시오. 뿌리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제경에게 확대경을 내밀었다.

얼굴에 받아쥐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몰라 주춤거렸다. 난생처음 확대경을 쥐여보는 박제경이었던것이다.

박제경은 부리부리한 눈을 습벽이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박제경의 심정을 충분히 읽었던지 확대경을 받아 나무모뿌리에 비쳤다.

《자, 보십시오. 저기... 뽕죽하게 돌아나기 시작한 싹이 보이지요.》

박제경은 그가 가리키는 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뽕죽하게 돌아나오기 시작한 싹이 선명히 보였다. 박제경은 두눈을 습벽이며 그의 손을 잡고 걱정예 넘쳐 다시 물었다.

《정말 싹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예!》

그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박제경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두릿거리다가 다름령이 들썩 울리도록 크게 웃었다.

《하, 하!...》

거치는 박제경의 두볼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자식이 태어난단들 이보다 더 기쁘랴. ...

《분녀 어머니! 내 이제사 이 령을 푸른 숲으로 덮을수 있게 되었수다.》

박제경은 눈물을 머금고 마음속으로 분녀 어머니를 그려보았다. ...

5

소쩍새가 밤의 고요를 깨치고있다. 하루일을 마친 박제경은 홀로 집안에 누워 등잔불을 켜놓은 채 낮에 받은 편지의 구절들을 되새겨보고있었다.

영운이와 분녀에게서 온 편지였다. 편지도 편지려니와 그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써도 그의 기쁨은 이를데 없었다. 요즈음은 기쁜 일만 닥치는게 정말 사는 맛이 있었다.

나무모가 싹이 트고... 생사를 모르던 영운이와 분녀에게서 편지가 오고...

홍떡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박제경은 낮에 받은 편지를 다시금 펼쳐들었다.

《...아버지! 분녀와 함께 이 글을 씁니다. 지금

분녀가 내걸에서 초불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정말이지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습니다. 혹시 이 편지가 되돌아올까 근심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녀는 아버님은 꼭 살아 우리를 기다리고계실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감옥으로 끌려간지 두해만에 분녀 어머니는 산사태에 묻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후 분녀 외삼촌의 손에 이끌려 중국 동북지방으로 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산지사방 흩어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저와 분녀는 장춘에서 멀지 않은 마을의 지주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조롱안에 갇힌 새처럼 바깥구경도 못하고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지 몇해가 지났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주집의 높다란 울타리안에 갇혀 살았으니... 우리가 처음 바깥구경을 한것은 팔로군이 놈들을 쳐부시고 마을을 해방시켜주어서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된 우리는 그리운 조국으로 새처럼 훨훨 날아가고싶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해방시켜준 팔로군군인들속에는 조선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준 중대장도 조선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조선말을 알아들은 그는 자기도 조선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중대장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령솔하시는 항일유격대에서 싸우던 유능한 군사일군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었는데 우리같은 청년들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기둥감이 돼야 한다고, 빨리 조국으로 나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따라 건국사업에 이바지해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대장의 말대로 인차 조국으로 나가렵니다. 조국에 나가 우리는 장군님을 옹위하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부디 건강하시여 우리를 기다려주십시오. ...》

붉은 눈물방울이 편지우로 방울방울 떨어져내렸다. 그는 몇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분녀 어머니! 영운이와 분녀가 살아있수다.》

박제경의 가슴은 환희로 들먹거리었다.

그가 바라는 소원이라는게 큰것이 아니었다. 영운이와 분녀가 혼인을 맺고 손자손녀 무릎에 앉혀놓고 남부럽지 않게 한살림 펴고 살아보는것이 전부였다. 그 소박한 꿈이 멀리 노을속이 아니라 령너머에서 마주오고있다는 생각으로 제경은 기뻐했다. 그런데...

조국해방전쟁의 불구름이 영운이와 분녀보다 앞서 다름령기슭의 산골마을로 몰려들었다.

며칠전 영운이와 분녀에게서 두번째 편지가 왔는데 그들도 압록강을 건너서자마자 탄원하여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나갔다는것이였다. ...

박제경은 전선원호를 위해 사모산 깊은 골에 들어가 나무를 찍었다.

그가 찍어넘기는 나무들이 자동차와 소발구에 실려 철다리복구장과 도로복구장 등으로 실려갔다. 아무리 찍어도 힘든줄 몰랐다.

박제경은 나무를 찍는데만 그치지 않고 나무를 심고 자래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가 가꾸는 양묘장에는 이깎나무모만 해도 수천그루나 자라고있었다.

그는 채벌군들에게 누구나 없이 한대의 나무를 찍고는 열대를 옮겨심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하루는 철길복구대에서 온 고수머리젊은이가 옮겨심으라고 준 이깎나무모를 덤불속에 감춰둔것이 박제경의 눈에 걸려들었다. 그는 무섭게 고수머리젊은이를 힐책했다.

《이놈아, 그게 무슨짓이냐, 그래 오늘날만 찍어먹고 래일은 손빨고 나앉겠니?》

고수머리는 입을 벌리고 항변했다.

《아바이! 지금은 전쟁이 아니나요. 언제 나무심을새가 있어요? 난 한대라도 더 찍어 전선에 보내야겠어요.》

박제경은 뒤돌아 산을 오르려는 고수머리에게로 달려가 그의 손에 쥐여진 도끼를 빼앗았다.

고수머리도 발끈 성을 내며 대들었다.

《아니, 정 이러기요?》

고수머리를 노려보는 박제경의 입술은 경련을 일으킨듯 푸들푸들 떨렸다. 금시 뺨이라도 갈겨떨 자세였다. 박제경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나무 한대를 베고 열대를 심으라는건 내 말이 아니야. 김일성장군님의 뜻이란 말이다.》

조용하나 저력있게 울리는 말이였다.

그날 밤 박제경은 달빛을 벗삼아 고수머리가 버린 나무모를 옮겨심었다. 고수머리는 그의 행동에 감심되어 자기를 깊이 뉘우쳤다.

《아바이! 내 잘못했어요.》

《음... 이보게, 지금 이작은 나무모 한대는 보잘것없는것 같아도 이제 거목으로 자라면 나라를 위해 크게 쓸모가 있을거네. 자네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자네 아들이나 손주들이 그 덕을 볼게 아닌가? 그러니 후대를 위해 성심껏 나무를 심어야 하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날무렵의 어느날이였다.

갈가마귀떼같은 미군놈폭격기들이 사모산을 스칠듯이 날아들었다. 둔중한 적비행기의 동음은 그대로 폭탄터지는 소리로 뒤바뀌었다.

《짱, 짱...》

폭격기는 사모산일대를 선회하며 먼소재지는 물론 주변철길과 철교, 농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맹폭격했다. 박제경이 가꾸는 양묘장가까이에도 불이 달렸다.

(안된다! 양묘장을 지켜내야 한다.)

박제경은 불사신이 되어 불길을 맞받아나갔다. 그는 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번져가는 불길을 꺼보려고 무진애를 썼다. 이때 기수를 낮추며 내리꽂히던 적비행기의 기관총구멍에서 불이 쏟아져나왔다.

《뚜르륵—》

총탄에 맞아 쓰러진 제경은 잠시후 정신이 들자마자 다릅나무모를 향해 번져오는 불길을 맞받아 몸을 굴리기 시작했다.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길위로 굴고 또 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을사람들이 쓰러진 박제경에게로 달려왔다.

《이 사람, 제경이!》

포수령감이 쓰러진 그를 가슴에 들쳐안았다.

《정신차리라구!》

몇번이고 불러서야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아저씨!》

《응, 날세.》

《저...불을...》

《응, 불을 다 꺾네.》

포수령감은 물기를 머금고 말했다.

박제경은 큰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무엇인가를 더듬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그의 손을 지켜보았다. 박제경은 포수령감의 팔굽에 눌러워구부러진 애어린 나무모에 손을 가져갔다.

포수령감이 얼른 팔을 들었다. 팔굽에 눌러워졌던 나무는 파들떨며 체모양으로 곧추 섰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그 나무껍질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아, 박제경이 저 애어린 나무모를 살리려고 제한몸을 내뒀구나!... 그를 둘러싼 마을사람들모두가 눈물을 흘리었다.

박제경은 전신의 힘을 모아 마지막말을 남겼다.

《아저씨! 난 이젠 틀렸수다. 후, 내 죽거들랑 저 다릅령마루에 날 물어주우다. 죽어서도 무성해질 다릅령숲을 품에 안고싶어 그러우다. 그리고 영운이와 분녀가 돌아오면 이 애비가 못다한 일을... 꼭 부탁...》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해 가을 어느날, 박제경의 묘소앞에 두 청춘남녀가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박제경이 꿈속에서도 기다리던 아들, 며느리가 가슴에 혼장을 달고 고향으로 돌아왔던것이다. 포수령감이 솔뚜껑같은 큰 손으로 묘소의 흙을 꼭꼭 다져주며 말했다.

《이 사람 제경이! 자넨 외롭지 않네. 자, 보라구.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어. 이젠 애들이 있으니 마음놓게. 그리고 자네가 살점처럼 가꾸던 저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자네를 동무해줄거네. 자네 아들인 숲이 말이네. ...자넨 술한 아들들을 남기였어. ...》

포수령감이 산 사람에게 하듯 울먹이며 말했다. 그랬다. 박제경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생명으로 이 강산을 가꾸고 지켜냈다. 그의 고귀한 녀이 다릅령을 짝 채운 푸르고 푸른 숲에 남아있었다. ...

×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반세기가 넘는 년륜을 새겼다. 나의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아버지, 어머니가 한생을 바쳐 가꾸었다.

할아버지가 목숨바쳐 구원한 나무모들이 이젠 거목으로 자라 온 다릅령을 짝 채웠다. ...

조선속담

결과, 뜻밖의 일

- 무우농사 잘못하면 가랑무만 생긴다
- 성나면 보리방아 더 잘 찼는다
- 최후에 웃는 자라야만 참말로 잘 웃는자이다
- 어린아이 매도 많이 맞으면 아프다
- 오뉴월바람도 불면 차갑다
- 사과나무에 배가 열렸나
- 까마귀 오디를 나무랄 때가 있다



1

가마에 건 떡시루에서 흰 김이 뿜어나와 부엌을 뽕얇게 채웠다. 그속에서 로친이 색다른 찬거리들을 준비하느라 돌아가는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한태복은 방금 뒤편 두마리 토끼가 담겨진 낫양푼을 내밀며 물었다.

《여보, 날이 저물었는데 아직 멀었소?》

《이것만 삶으면 돼요.》

안해가 양푼을 받으며 눈을 흘겼다. 공연히 보챈다는투다.

《설기떡은 제대로 됐겠지?》

《번개불에 콩 닦자 하겠수다. 자, 이젠 방에 올라 맘편히 한대 태우시구려.》

태복은 무엇이 맘 놓이지 않는듯 집안팎을 둘러보았다. 해꼬리 짧은 동지달이라 밖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있었다.

태복은 지금 아들 상혁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있는중이었다. 오늘이 아들의 생일날이었던것이다. 신통히 한해농사를 총화짓는 결산총회날이 아들의 생일과 겹치었으니 그 소식이 더욱 궁금해졌다. ...

아래방에 걸린 벽시계가 일곱 점을 쳤다.

태복은 벽시계를 점토록 바라보았다. 저 벽시계로 말하면 인젠 거의 삼십년전 태복이 분조장을 하던 시기, 누구나 망설이던 개펄논을 자진해 맡아 잘 걸구어 농장적인 알곡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낸 덕에 받은 우대상품이었다. 결모양 좋은 전자벽시계를 몇번이나 바꿔 걸어놓으려 했지만 안해는 특별한 가보라도 되는듯 고집스레 버리려 하지 않았다. 하긴 아들의 나이와 똑같은 시계여서 태복이도 정 싫진 않았다.

어제날 그자신이 일하던 그 분조, 그 땅에 오늘은 아들 상혁이가 쏜다. 줄줄이 딸 넷을 내리낳다가 늦게야 본 막내아들이 바로 상혁이었다. 아들

박경원

자랑 혼한 더퍼리아낙네들의 입심에 놀리워 피동적인 으름장만 놓던 태복이 그제야 빠기듯 가슴을 내밀게 되었다. 좀 늦게 보긴 했지만 그 아들이 오늘은 분조장이 되어 세해째 농장적인 우수 분조의 영예를 고수하고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땅에 확실히 눈이 있다고들 했다. 어떻게 태복이네 부자에게만 기록적인 명예를 선사해주는지 무슨 비결이 있다는것이다. 그 비결을 오늘 경험토론을 하게 된 상혁이가 웅글은 목소리로 시원히 대답해줄것이다.

그것도 한해농사를 마감짓는 벼탈곡까지 말끔히 끝내고 군적으로 제일먼저 결산총회를 하게된 자랑높은 연단에서 말이다. 몇해전에 관리위원장사업을 인계하고 년로보장을 받은 태복이로서는 벌써 회의일정이 눈에 선하다. 회의뒤끝에는 올해의 그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농사를 괜찮게 지은 일군들과 혁신자들을 위한 축하모임이 열릴것이다.

몇해전, 로력혁신자영예게시판에 상혁이의 사진이 처음 큼직하게 나붙었을 때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니,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는니 하며 인물심사로 열을 올렸었다.

한때 그 아들이 말썽부릴적엔 자기한테 아들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려고까지 했던 그였다. 그러나 상혁이가 제 길로 되돌아온 이상 그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평가를 은연중 기대했다.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만 한 실농군이 되고 아버지만 한 일군이 되어주었으면... 그래서인지 식성까지 점점 자기를 닮아가는것 같다.

하긴 길을 닦으면 뭘하는가. 대끝에서 대가 나듯이 실농군의 집에서 실농군이 나와야 돼가는 가풍이라고 할수 있지 않는가.

이상하게도 벌써 수다스러운 아낙네들의 입에서 상혁이가 래년엔 다른 작업반의 반장으로 조동될거라느니, 관리일군으로 승급될수도 있다느니 하는따위의 말들이 돌아간다. 전혀 빠가 없는 소

문은 아니었다. 올장마철 폭우피해대책을 위해 농장에 나왔던 군경영위원회 위원장은 큰물피해현장에서 옷등을 벗어던지고 걸쭉제 삽질을 해대는 상혁이와 질척하니 함께 땀을 흘려보더니 크게 감탄했었다.

《정말 탐나는 짬은이요. 저런 복덩이들이 일을 잘하도록 힘껏 밀어줘야겠소.》

물론 옆에서들 전 관리위원장의 외아들이며 농장적으로 최고수확을 낸 기둥분조장이라고 요란한 소개를 해준것은 말할것도 없다.

언제인가 익살을 좋아하는 한 친구가 상혁인 앞으로 아버지보다 더 큰일 칠 일군감이라고 너스레를 친적이 있었다. 그때 태복은 사람의 인품이 직급에 있는것이 아니라고 면박을 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별로 싫지 않았다.

상혁이가 어릴 때 호미로 땅뚜지는 시늉을 해보이며 《나도 실농꾼이 되면 아버지처럼 관리위원장이 될수 있나?》라고 물어 한바탕 웃기던 생각도 난다. 버럭 걱정이 갈마든다.

만일 상혁이가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면 그의 성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가봐서였다. ...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신문을 펼쳐드는데 밖에서 대문소리가 났다.

(웁지, 이제야 오는 모양이로군!)

뒤이어 부엌에서 급히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마 안해가 자기보다 더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태복은 일부러 《어험, 어험.》 하고 기침소리를 냈다.

《이게 누군가?! 화옥반장이 왔구만.》

안해의 목소리에 태복은 흠칫했다. 그 처녀반장으로 말하면 토끼가방 메고다닐 때부터 태복을 《아저씨》라 부르며 제 아버지 심부름이랑 자주 다녔던 송아지친구의 딸이었다. 요즘 아들 상혁이와 혼사말이 오가기 시작해서부턴 내우를 타서인지 발길이 떠졌었다.

《어서 들어오라구. 이런, 손이 쯡썩었구만.》

안해는 마치 제집식구가 다된것처럼 끌어들이려 한다.

《어머니, 상혁동무가 들어왔어요?》

《아니, 같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었나?》

《회의에 참가한건 봤는데 끝나자마자 보이지 않길래...》

처녀는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혹시 무슨 말썽거리라도 생긴건 아닌지? 태복은 더 참지 못하고 부엌사이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태복은 처녀의 수인사를 받으며 물었다.

《아니, 저...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처녀는 당황해하며 대답을 피하려는듯 황황히 나가버렸다. 태복은 아연해졌다. 필경 무슨 일이 있었것 같다.

《왜 벌써?... 좀 들어와 앉지도 않구...》

안해는 붙잡기라도 할듯 쫓아나갔다. 하지만 아쉽게 바래우는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텐데 그렇게 가누만.》

안해가 화옥반장을 바래우고 방안으로 들어서자 태복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이 녀석이 늦어진다 했더니... 무슨 일이 생긴게 분명해.》

《에그— 걱정도 팔자웨다. 보나마나 저들끼리 야간작업장에서 만날 속타산이 어련히 있지 않으리요.》

《당치 않는 소리. 탈꼭두 다 끝났는데 밤일은 무슨 밤일!》

《아파 서로 보구프면 또 적당한 핑계를 만들겠지요.》

《암만 생각해두...》

《지금 애들은 우리때하구는 달라요. 자주 간참하면 주책머리없다구 해요. ... 어딜 가시려우?》

안해가 눈이 휘둥그래서 물었으나 태복은 아무 대답도 없이 옷만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예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처녀반장과 자기 아들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젠 비밀이 아니다. 량측부모들도 결산분배만 타면 자식들의 혼사문제를 서두르기로 약조가 돼있었다. 처녀의 심리로 볼 때 이즈음은 애써 자기를 다잡고 경망스럽게 보일 자그마한 요소라도 드러낼가 저어하게 되는것이 상례이다.

헌데 총각의 집을 불의에 찾은것이며 근심어린 기색이 분명 심상치 않았다. 그 어떤 딱한 사정 아니면 혹시 다름질이라도?...

2

하늘엔 달무리진 달이 시름겹게 웃고있었다.

게다가 엇그제 내린 눈으로 하여 밝은 흰했다.

태복이 마을앞으로 가로지나간 큰 길에 접어들려는데 관리위원회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오고있었다. 이자 회의를 마친 농장원들이 뿔뿔이 집으로 돌아오고있는것 같았다. 태복은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저들속에 상혁이가 없으면 그의 행처를 알만 한 대상이라도 찾아야 했다.

혹시 오늘 총회에서 무슨 일이 터진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다 큰 자식을 놓고도 원심쓰는게 부모일반의 공통된 심정이랄지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도 바글바글하길 잘하는 자기 성격때문이랄지... 어쨌든 주책머리없다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의 앞길에 꼬챙이금이라도 꼭 그어주고싶다.

젊은이들이 얼음버께 밟는 소리를 부러 요란스레 내면서 태복의 옆으로 지나쳤다. 밤눈이 그전 같지는 않았지만 왁작거리며 지나치는 사람들속엔 아들이 없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수

었다. 이어 얼마쯤 떨어진 뒤에서 다가오는 두명의 사람형체가 보였는데 두런두런 울리는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이제 보니 문도일령감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떻게 제 사위될 사람의 낯을 그렇게 박박 긁어내릴수 있단 말인가?》

《그러게 말이네. 좋은 일하다가 나까지 귀떼올번 했네.》

《그건 약과네. 난 그 〈막대저울〉 고리에 몇번이나 코빼일번 했는지 아나?》

태복은 심장이 벌침에 쏘인듯 떠끔했다.

문도일의 사위감이려면 내 아들 상혁이가 아닌가. 자기 예감이 사실에 가깝다는것이 인정되자 태복은 더 참지 못했다.

《여보게 이 사람 제척부원, 나 좀 보세.》

《아... 관리위원장이아버이가 이 밤중에 웬일이시우?》

제척부원 문장일이 놀랍다는듯 주춤주춤 태복의 앞으로 다가왔다.

《자네 방금 하던 소리가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라니요? ... 내 이번에 농장적인 기동분조인 상혁이네가 폭우피해로 평년보다 수확고가 좀 떨어졌지만 로병분조실적까지 가산해주면 일등자리는 그대로 고수되겠기에 관리위원회 일군들과 토론했서 농장적인 실적순위에서 전해처럼 첫 자리에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그 우리 형님 말이우다, 그 령감이 글썽 내 귀를 비틀어대며 뭐 량심적으로 실적총화를 하라나요. 그래...》

《음, 다 알만 하네. ...그러니 이번 결산총회에서 우리 상혁이네 분조가 일등을 못했겠군 그래. ...》

태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장일과 헤어져 걸음을 옮겼다.

제척부원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걷던 한태복은 어이없어 저도 모르게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결산총회며 축하모임의 팽팽한 분위기, 참을수 없는듯 회의도중에 뛰쳐나가는 상혁이의 모습, 아버지와 상혁이 사이에서 안절부절 하다가 총각을 따라나서는 처녀반장, 여기저기 부르며 찾다가 끝내 총각네 집에 들어와 물어보게 된 문화옥이... 가지가지 사연들이 흔들리는 영사막에 비쳐진 영화화면처럼 눈앞에서 서물거렸다.

문령감이 이제 상혁인 물론 나까지 저울대우에 겨우로 세워놓으려들것이다. 무엇때문에?...

늘그막에 와서 송아지우정에 영문모를 균렬이 생길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태복이었다. 삼년 묵은 재에서 불난듯 한 사변이었다. 자식들 문제때문에? ... 그렇다, 이것은 사돈으로 이어지려는 바오래기를 끊어버리기 위한 오그랑수라고 태복은 생각했다. 언제인가 갓 반장이 된 제 딸자랑을 하다가 코가 굵지 못한 한갓 분조장에게 제 딸을 말기는것이 좀 아쉽다고 너스레웃음을 치던것이 생

각났다. 상혁은 중학교때 권투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코가 좀 비뚤어졌던것이다. 그때는 룡담인줄로만 알았었는데 그 은근한 인신공격때 벌써 파혼의 마음이 싹트고있었던것이 틀림없다. 아직 약혼도 하지 않았으니 량자간 크게 손해날것은 없지만... 패싹했다. 상혁이너석에게 단단히 오금을 박아야지, 처녀한테 채우기전에 먼저 탁 차버리라고...

한태복과 문도일이 송아지동무인것처럼 한상혁과 문화옥도 역시 소꿉동무였다. 태복이가 관리위원장을 할 때에도 공식식상을 내놓고는 문도일과는 거의 너나들이로 지냈다. 자식들이 서로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날 때에도 응당 그렇게 되었어야 할 대사이듯 두 집모두가 기뻐했었다.

이를 계기로 아버지들 우정은 한층 더 두터워지고 더불어 자식들 사랑도 깊어지리라는걸 믿어 의심치 않으며 두 집 가장은 미리 사돈잔을 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혹시 도회지의 멋쟁이혼사자리라도 나졌는가? 보나마나 이제부턴 아들의 지난날 허물을 들추어 파혼행계를 내뻐것이다.

분조장이 되기 전의 상혁이의 생활평판은 그리 시원하지 못했다. 중학교때부터 체육소조요 권투구락부요 하는데 취미가 붙어 거기에만 정신을 팔았다. 처음엔 무슨 경기요 어디 경기요 하는데들에서 성적이 쎄잖아 여러번 상을 타기도 했다. 그러나 도체육단에 들어간 다음부터 그렇지 못했다. 말짱 우러먹은 김치독같은 천성을 믿고 훈련을 게을리하다나니 경기때마다 넘어뜨리기 당하여 점차 감독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불평질이 많아지고 성미가 이지러지기 시작했다. 끝내는 전망이 없다고 인정된 친구들과 함께 체육단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의지할건 관리위원장인 아버지뿐이었으나 아버지는 사람은 판파 가까와져야 참해진다며 농장에 들어오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상혁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여 그는 오래동안 집에도 안들어오고 체육단에서 함께 나온 친구들과 밀려다니다가 나중엔 술때문에 사회적몰의까지 일으켰다. 인차 법적추궁이 뒤따랐다. 그제야 상혁은 흐리터분한 정신을 겨우 차리고 늦게나마 고향으로 돌아와 개진의 길에 들어섰다.

애쓴 보람이 있어 오늘은 확고히 실농군으로, 농촌핵심으로 되었다. 그런데 깨곳이 지워졌다고 여긴 종처혼적이 혼사의 언질로 될줄이야. ...

《아이쿠!》

발이 미끄러져 넘어져서야 한태복은 자기가 눈가루가 덮인 얼음판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문도일이네 집으로 쳐들어가 친구요 사돈이요 하는걸 짝가름나게 결판지으려고 떠났던 걸음인데 도중에 얼음판에 걸려 넘어까지 졌으니 영사가 나지 않았다. 왜서인지 일어서고싶지도 않았

다. 관리위원장직을 내놓은지 언제라고 벌써 사람을 이렇게 허술히 여긴단 말인가. 내가 그냥 그 직무에 있었다면 이런 팔시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이다.

년로보장을 받기 전에 자식의 혼사문제를 서둘렀어야 하는건데...

태복은 간신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태복이의 걸음은 점점 더디어졌다. 뺨이 꼬여 어디 가서라도 화풀이를 해야 속이 시원할것 같았다.

3

팅, 텅... 멀지 않은 곳에서 메로 철판을 두드리 는 소리가 울려왔다. 기계화반쪽이었다.

이어 용접불꽃이 극광처럼 번쩍거리는것이 보였다.

(오늘같은 날에 누가 밤작업을 할가?)

불쑥 온몸에 땀발이 일게 메질을 해보고싶은 충동을 누를길 없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머리 아픈 잡념에서 헤어나고싶었다. 그 충동에 못이겨 태복은 기계화반쪽으로 다가갔다.

기계정비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있었다. 그 칸은 기술혁신조성원들의 모임장소겸 시험장이기도 했다. 태복은 뭔가 새로운 농기계착상에 달라붙었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손꼽아보며 발자국소리가 나지 않게 다가갔다. 허나 안에는 낡은 개털모자를 꼭 눌러쓴 늙은이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고있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먼지오른 모내는기계를 뜯어놓고 뭔가 두드려도 보고 맞춰도 보고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하면서 일손을 놀리고있는 사람은 문도일이였다. 창문으로 이를 지켜보던 한 태복은 놀랐다. 문도일이 정말 환장했는가. 눈관우에서 모내기를 할셈인가?...

4월까지의 창고에 박혀있어야 할 모내는기계를 꺼내선 어떻게 한다는결가?

이런 생각을 머리속으로 하고있는 사이에 문도일이 은연중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다.

한태복은 당황했다. 눈길이 마주쳤으니 피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문도일은 벌써 반갑다는 표시로 개털모자를 벗어 흔들더니 출입문으로 들어오라는 손시늉을 해보였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서니 문도일이 《흠, 범이 제소릴 하면 온다더니...》라고 하며 크게 너털웃음을 쳤다.

그러더니 한태복의 손을 잡아 무작정 끌고갔다.

《내 금방 속으로 자네를 욕하고있던중일세. 나를 로인분조에 받아주었더라면 수령논모내기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진 않았을거네. 자, 이제 수령논에서 쓸수 있게 개조한 모내는 기계일세. 이걸 가져가면 래년엔 거절 안할테지?》

(그럼 이 사람이 올모내기때 로인분조에 받아주지 않은것때문에...)

태복은 기가 찼다. 기계화반에서 트랙트르는 물론 농장의 가마니짜는 기계요 탈곡기요 정미기요 전동기요 하는 어려운 기계수리나 기술개조에서 문도일의 손을 빌리지 않은 레는 거의 없다.

태복이 로인분조를 무을 때 문도일이라도 찾아왔었다. 태복은 가볍게 나무랐했다.

《자넨 부대로력이 아니라 아직 기본로력일세. 기술로동엔 나이가 관계없네. 자네가 로인분조에 들어오게 된다면 기계화반 반장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나?...》

이렇게 타일러 돌려보냈던 문도일이였다. 그것이 그렇게도 속에 맺혔단 말인가.

제 상념에 잠긴 태복이가 자기의 창안품을 보고 희한해하는줄 알고 문도일은 수령논의 실정에 맞게 개조한 부분품들과 그 작용원리들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아예 타지 않게 하려네. 방향만 한번 고정시켜주면 되네. 그러면 기계가 가벼워 좋아, 수령에 박히지 않으니 좋아, 어떤가?... 뭐 그리 신기해할건 없네.》

《고답네. 언제 그런 생각까지 다...》

《내가 자넨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자네들이 수령판에 손모내기를 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다. 또 김도 막을걸 거름대용하느라 생당쑥을 베여다 온 논바닥에 깔아주느라 술한 품을 들였더군. 재래식농법이긴 해도 그 실정에선 별수 없지. ... 한조각 국토라도 쓸모있게, 기름지게 가꾸려는 자네의 그 대담한 정신력과 착상이 나에게 이런 창안을 하게 했다네. 알겠나? ...래년부터 기계를 넣지 못해 애를 먹던 다른 수령논들에까지 다 이 기계를 도입해보자는결세.》

한태복은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가 보건대도 단순한 원리를 응용하여 만들었을뿐인데 기계기술에서는 짝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자기는 왜 고생하면서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지 참모를 일이었다.

《자네가 이 기계를 성공하면 수령논이라면 얼굴부터 찌프리던 분조장들이 저저마다 먼저 부치겠다고 다툼질할걸세.》

《벌써 상혁이녀석은 내가 이런 기계를 만들겠다고 하자 래년엔 로인분조가 부치던 수령논들을 자기가 다 맡겠다고 하지 않겠나. 국가에 완전한 부침팡으로 등록되는 기간 자기 분조 예비면적으로 깔고앉겠나. 내 그래서 확 욕해주었네. 올해도 기동분조답게 농사를 잘 지으라고 비료랑 영농자재랑 우선적으로 풀어주었는데 농사짓는 꼴이 그게 뭔가고, ... 털보분조장을 보라구. 그는 비료랑 자재랑 우대받는건 없어도 해마다 꼴찌수확고만 낸다던 땅에서 올해엔 계획을 초과했네. 폭우의 영향이 미친건 어디나 마찬가지였어. 어떤

사람들은 털보본조장네 본조가 모래땅이기때문에 오히려 폭우와 장마덕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세.

그가 올해엔 시라소니소릴 면해보겠다구 정초부터 가물과 장마에 대처할 준비를 얼마나 야심만만하게 해왔는지 아나? ... 하지만 상혁이녀석은 변명하고있네. 큰물로 논둑이 허물어져 농사를 망쳤다고 말일세. 얼마나 대조적인가. 사람이 되라고 옆에서들 원심썬주니까 제 잘나서 내세워주는줄 알고 기고만장해졌거던. 올해농사에서 원인을 찾고 교훈을 찾을 대신 제가 농사는 잘 못 지어도 자연히 일등으로 만들어준다는 소리까지 췌치고있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잘 지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겠나. 오죽 안타까우면 우리 화옥이까지 날보고 한번 혼 좀 내달라고 부탁했겠나. ... 그래 내 계획부원을 하는 장일이 녀석을 찾아가...》

문도일은 자기가 농장계획부원 문장일을 만났던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

...농장결산총회를 뒤시간 앞두고 계획부원 문장일은 사무실에서 장부책의 수자들을 재확인해 보고있었다. 시끄럽게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신이 흐트러질가봐 대답할새조차 없는데 슬며시 열리던 출입문으로 문도일이 불쑥 들어왔다.

《시비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회계를 한다구...》

풍담인지 비양인지 몰라 장일은 어쭙은 미소만 그려보였다. 비록 머리카락은 장일이 자기보다 더 까맣도 죽별로는 사촌형인데야 기본잡친 말을 좀 들었기로서니 함부로 삿대질을 할순 없었다.

십년이상 년장자라는 관념도 작용했지만 그보다 허술히 대할수 없는 존재였다. 문도일은 이미 년로보장나이를 훨씬 넘겼지만 기계기술이 특별한 덕에 아직 기계화반에 출근하고있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기계귀신》은 사물현상뿐 아니라 인간생활과 그 리치도 기계구조나 원리에 비유하여 사고하길 좋아하였다.

지어 인간의 지향이나 감정같은 추상적개념도 수자로 표기하여 쥔수 있고 수학적공식을 응용하여 풀수 있다고 믿고있었다. 그 정확성추구때문에 그에겐 《막대저울》이라는 귀 술가운 별명이 붙어다녔다. 하긴 자기가 하루 마시는 물량도 재여 보고야 마신다고 하니 한여름에 갈증을 심히 타는 사람들에게엔 입이 삐죽거릴 일질이 아닐수 없다. 때문에 그의 《천평》저울은 때로 《불평》저울로 오도되어 역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생활에서도 가끔 손해보는적이 드문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문령감의 주장을 인정하는 축들이 늘어났지만 장일에겐 그것 또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가까운 친척일수록 자기의 그 《막대저울》을 더 자유롭게 내흔드는 령감이었기

때문이다.

문령감은 장일이가 권하는 의자에 앉더니 마라 초쌈지를 꺼내 부스럭거렸다. 장일이 제격 려과담 배팩을 받쳐들고 권했다.

《아니, 자넨 담배를 끊었다더니?...》

《생기면 피우고 없으면...》

장일은 문득 말을 얼버무렸다. 끊고맷고가 없이 두리몽실한것을 질색하는 사촌형에게 말꼬리 잡힐 흠을 보인것 같아서였다. 다행히도 문령감은 틀스레 한대 뿔아들더니 아무말없이 피워물었다.

그리고는 도일에게 그루를 박아 말했다.

《난 지금 어떻게 하면 자네 마음을 《저울》에 달아볼가 궁리중일세.》 장일은 내심 놀랐으나 애써 얼굴에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다. 드디어 본론이 시작됐다는 생각으로 장일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문령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농산3작업반 1본조가 올해계획을 정말 수행했나, 어디 바로 말해보게.》

《예?! ... 상혁이네 본조 말이지요?...거야 평년에 비해볼 때보담 많이 떨어졌지요. 하지만 올해 폭우피해로 떨어진 전반적인 생산실적에 비하면야 일등자리는 그냥 고수됩니다. 걱정마십시오. 관리위원회에서도 기둥본조의 명예는 중시합니다.》

《명예라?!—》

문도일은 심각한 표정으로 증얼거리더니 손을 뻗 내저었다.

《명예를 세습시키기 위해 억지극을 만들었던 말이군. 더 낼수 있는 소출을 못내서 속아, 명예를 지켜준다면 펜끝놀음에 속아. ... 땅은 두번 속는데 땅주인은 2중으로 덕을 보누만.》

《원 룡담두, 올해같은 날씨에 그만큼 농사된것만 해도 땅한테서 절 받을 성가이지요.》

문도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장일을 뚫어져라 보는것이였다.

《그래 자넨 올해농사가 안된 원인을 큰물피해에 몰아붙이자는건가?》

《?...》

《로인분조를 보게. 그들은 자발적으로 부친 응답에서도 높은 소출을 냈는데 좀 생각되는게 없나? 눈 뜬 소경은 아닐테지. ...》

《형님은 뭘 또 혼자 심각해서 그러오? 너무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괜히...》

장일이 말도 맺지 못한채 《아—》하고 새된 소리를 내질렀다. 어느새 문령감의 불집게같은 손가락이 그의 귀바퀴를 잡아비틀고 있었던것이다.

《이놈아, 네가형님을 가르치려들어. 이 버르장머리없는 놈, 술직하지 못하면 경칠줄 알아라. 너 상혁이네들이 정당 일곱톤도 못낸 사실을 알고있지?》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로인분조에서 생산된 알곡이 상혁이네 본조에

지원했다는것도 알테지?)

《뭐가 잘못된게 있어요? 비로력자들이 비경지에서 비계획적으로 생산한것인데… 형님은 왜 뵈 나서 그러오?》

사실이 그랬다. 관리위원장을 하던 한태복은 년로보장을 받게 되자 농장의 나이많은 축들을 휘동해가지고 로인분조를 무었다. 이들은 경흥천 주변의 수령판에 불경모내기(논갈이를 하지 않고 심는 모내기)를 도입해보았는데 예상외로 수확이 괜찮았다. 이 버를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신바람나는 옥신각신이 벌어지는 때에 상혁이네 분조문제가 상정되었다. 농산제3작업반 제1분조가 부치는 땅은 농장에서 《배꼽》이라 소리치는 땅이었다. 력사를 거스르면 태복이가 제대배낭을 풀고 그곳에 처음 분조장으로 배치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었다. 그는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고 어찌나 알심있게 걸구어놓았던지 농장에서 기록적인 수확을 내는 땅으로 등록되게 했다. 세월이 흘러 태복이가 작업반장을 거쳐 관리위원장으로 된 후에도 몇사람이 바뀌어 태복의 아들 상혁이가 분조장을 하는 지금까지도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삼년전부터 상혁이가 전 기록을 돌파하여 최근 잠잠하던 농장분위기를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결국 아버지가 세운 최고기록을 아들이 돌파하여 이들 부자의 이름은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큰물피해를 단단히 입는 바람에 소출이 폭 떨어졌다. 군적으로 소문났던 《배꼽》 땅의 명예가 상혁이 대에 위태롭게 되었다.

대신 우승분조의 후보로는 년넌히 맨 뒤자리를 차지하여 《시라소니》로 놀림당하던 털보분조장네가 기적적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기동분조에 비하면 땅의 지력은 대비도 안되는데다가 련속적인 기록전망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여 처녀반장을 비롯하여 일부 관리일군들은 차라리 기동분조의 명망이라도 보존시키는것이 앞으로의 새 기록을 창조하는데 유리한 영향이 미치게 되겠다는것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았다. 결과 로인분조의 생산실적에서 일부가 기동분조의 실적에 합해졌던것이다. 로인분조원들도 한태복이 로인분조를 무었기에 장장 놀고있던 수령판에서 벼가 생산되게 되었다며 또 탈곡을 비롯한 뒤거두매도 거의 상혁이네 분조가 도맡아 도와주었다면서 그러한 처분을 신세값음한것처럼 정당하게 여겼다. 이러한 처분이 실제적으로 집행되도록 누구보다 애써 노력한 사람이 바로 처녀반장 화옥이었다. 현대 그 처녀의 아버지가 지금 계획부원의 귀뿌리를 뽑아져라 당기며 비밀아닌 비밀을 총회마당에서 공개하란다. 이런 턱없는 고문이 어데 있는가.

《이 죄없는 귀는 좀 놓고 말하자구요. … 이젠 시간도 없수다. 작업반과 관리위원회에서랑 다 통

과된 문제를 턱밀에 와서 어떻게 뒤집는다구?…》

《건 내가 사전에 화옥이랑 관리위원장이랑 다 만나서 처리할테니 자넨 량심적으로 실적총화수자를 말하기만 하면 돼.》

《예. … 량심적으로 말하지요. 자, 이젠 귀를…》 문령감은 기어이 대답을 받아내고서야 동생의 귀를 놓아주었다.

《현대 형님은 왜 물에 빠진 사위의 꼭뒤를 눌러주지 못해 안달이시우?》

《사위는 무슨 사위. 나라의 쌀독이 곱게 되었는데 서푼짜리 제 명예만 살찌우려는 량심없는 놈.》

《형님, 무슨 말을… 죄 만나겠수다. 새과랑게 젊은 사람들에게…》

《젊어도 체구실을 못하면 늙고 낡은것이고 늙어도 체구실하면 새것이고 청춘인게야. 땅은 이미 자기의 주인들을 그렇게 평가해버렸어. 열매로써 말이야. 현대 무엇때문에 그 땅을 속여가며 억지효과를 얻으려 하는지모를 일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내세울내기를 하다간 사람만 더욱 못쓰게 만드네. 자네도 어떻게 하는것이 원칙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비원칙인가를 알테지?》

《〈막대저울〉에 달아보면 모를게 있어요?》

문장일은 더운밥 먹고 식은 소리 듣는다는듯 굵지 않은 웃음을 지었다. …

한태복은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었다.

얼굴이 뜨거웠다. 작업반일군들이며 관리일군들이 만날적마다 상혁동무가 몰라보게 성장한다며 추어주기만 하기에 마음이 들떠서 옆에서 더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다. 결국 제 일이 바쁘다는 구실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외면해왔던것이였다. 상혁이녀석이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려는 버릇은 판데서 배운것이 아니였다.

나의 무관심성이 그렇게 키워놓지 않았는가.

체육단에 있을 때 아글타글하지 않고 요행수만 바라던 인습이 또다시 자란것 같아 두려웠다.

언제인가 상혁이에게서 《아버지, 농사란 권투보다 식은 죽 먹기예요.》라고 흥이 나서 하던 말을 들은 기억이났다. 그때는 농사에 무척 재미를 붙인줄 알고 속으로 만족해하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큰 농장의 관리위원장까지 한 경력이 있다는 내가 웅당 대지의 평가를 피하려드는 눈속임행동들을 제지시켜야 했었다.

그런데 난제 자식의 명예만 생각하면서 이를 묵과하러들었으니… 후— 언젠가면 몇몇하게 농사군의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을가.

왜서인지 자신에게서 가장 힘겨웠던 나날들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가던 시기 체육단에서 나온 상혁은 도시에서 직업을 구한다며 한동안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어머니의 병간호를 구실로 집에 들어왔다. 태복이가 가지가지의 농장일로 골치를 앓을 때면 웃는 얼굴로 언제나 신심과 고무를 주곤 하던 안해였는데 제물을 혹사한 후과인지 덜컥 자리에 누워버렸다. 이러한 때 나타난 아들이 못마땅하긴 했지만 다른건으로는 안도의 숨이 나가기도 했다. 그 애때문에 하던 근심이라도 어느 정도 덜수 있으니 말이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발갈이한 소를 몰고 집에 돌아온 태복은 놀랐다. 일하러 나갔을줄 알았던 아들이 집에 그냥 있었기때문이었다.

태복은 불이 번쩍 일게 아들의 귀뺨을 쳤다.

《이놈, 농장원들은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맨것이 자기들이 본분을 지키지 못한탓이라며 발고랑에 쓰러지면서도 손에서 호미를 놓지 않고있다. 헌데 네놈은…》

《어머니가 앓고 계시길래 병구완을 해드리느라고…》

아들은 머리를 수그리며 말끝을 흐렸다.

태복은 아들을 쏘아볼뿐 더 말하지 않았다.

나에겐 가정도, 농장도 다 귀중하다, 하나도 버릴수도 잃을수도 없다, 그러나 우린 자기들의 앞날이 자기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는걸 깨달아야 한다, 때문에 나는 먼저 너에게 깨끗한 량심으로 농장에, 대지에 땀을 묻어야 한다고 말하고싶다.

태복은 이렇게 말하고싶었으나 서둘러 말하지 않았다. 오직 대지의 공정한 눈만이 아들에게 가르쳐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 그 이튿날 아들 상혁이가 농장에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에야 태복은 함께 첫 출근길을 동무해주며 말을 했었다.

《량심 하나로 사느라하면 생각지 않던 오해를 받을수도 있고 본의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눈밖에 날수도 있다. 아직도 우리앞에는 난관이 많다. 큰 뜻을 세운 길에는 예견했던것보다 더 힘 부치는 시련이 있을수도 있다. 그런 매일수록 이 땅앞에서만은 몇몇해지기 위해 애쓰거라. 이 대지가 너를 알아줄 때에야 비로소 너는 사람들앞에 몇몇해지게 될것이다. …》

이런 훈시까지 했던 나. 내 판에는 대지의 눈을 속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내가 무엇을 몰랐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든 아들의 이름으로 되든

나라쌀독에 들어가는건 매한가지라고, 그럴바엔 아들의 명예를 위한 밀거름으로라도 되자고 생각했는지. 감히 대지가 선사하는 열매를 가지고 제주머니의것처럼 선심쓰려든 내가 얼마나 경솔했는가.

사람마다 다 자기 몫이 있고 자기 본분이 있다. 이를 위해 사람은 순간순간 심장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 생과 작별해야 할 순간까지도 그렇듯 깨끗해지려고 모지름을 쓰는것이 아닌가. … 그런데 난 거름을 적게 내고 눈가림식으로 김을 잡는 이 러루한것들만 대지를 속이는것이라 생각했어. 하기에 난 관리위원장사업을 할 때에도 계획을 좀 못한 본조는 계획을 넘쳐 수행한 본조들의 잔고량과 융통성있게 유무상통하라고 반장들에게 암시하기까지 했었지. 그때문에 한번 일을 잘해보자 버르던 패기있는 본조장들이 의견있어하고 그들의 사기가 저락되었지. 이런 불공정성으로 대지에 깡그리 쏟아지던 진정과 열정들이 손해보았으니 이것은 대지를 직접 속인 죄보다 더 엄중하지 않는가? 사소한 량적변화에 무서운 질적변화가 생긴것도 모르고있는 이 우둔한 놈아!…

대지의 평가는 언제나 공평했다. 이 평가를 내 마음대로 드릴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난 대지를 내내 속여왔구나. 아니, 깔보고있었어.

임으로는 대지의 눈동자앞에 맑게 비쳐져야 몇몇한 실농군이 된다고 부르짖던 내가!…

가슴이 쓰렸다. 상혁이도 이런 몸쓸 물을 먹었으니 나중엔 처녀한테까지 채울수밖에…

그 처녀는 이젠 상혁이의 병집을 아버지인 나에게서 물려받은것으로 보고 교양대상으로만 여길것이다. 그럼 사랑 한알이라도 꼭같이 나눌것갈던 달콤한 사랑은?…

상혁이는 큰 정신적타격을 받을것이다. 그것도 생일날에 축복과 상반되는 감정으로 몸부림칠것이다. 푹푹치 못한 녀석, 태복은 아들이 앞에 있기라도 하듯 허공을 쬼박았다. 참자, 내가 참자, 다 눈가리고 야옹— 소리를 낸 내 잘못이지. 모질게 자체위안을 하려 했으나 오묘한 감정은 좀처럼 탈바꿈을 하려들지 않았다. …

어떻게 문도일리와 헤어졌고 어떻게 기계화반 정문을 나섰는지 태복은 전혀 기억되지 않았다.

그저 스택스적 길을뿐이었다. 피곳 정신을 차려보니 집앞에 서있었다. 상혁이의 방에 불빛이 없는것을 보고는 대문을 열지 못했다. 이 녀석은 온밤 어디서 고민하고있을가? 아버지된 심정에서 빨리 그를 찾아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관리위원장이저씨가 아니세요?》

등뒤에서 들려오는 처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복은 놀랐다. 그보다 반가웠다.

처녀의 왼쪽어깨에는 삽과 곡괭이가 메어져있었다. 오른손에는 묵직한 꾸레미가 들려져있었다.

《화옥반장이 이 밤중에 어딜? ... 우리 상혁일 못 왔나?》

태복은 자기 말이 거북스러워지는데 화가 났다.

《상혁동문 아마 새벽녘에 들어올거예요. 저더러 공구가지러 수리분조에 갔다오던 길에 집에 좀 들려 버리어놓은 정대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창고에 있대요.》

《무슨 밤일이 제기됐나?》

《상혁동무가 글썽 올해 여름 피해입은 뚝보수공사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서는 새해농사준비에 들어갈수 없다면서 분조원들로 야간전투를 조직하지 않았겠나요. 저도 뒤늦게야 알고 작업반청년들에게 호소했더니... 이렇게 판이 커져서 공구가 모자라게 됐지요.》

《아서라. 오늘 결산총회도 늦어 끝나는것 같던데... 래일부터 해도 될텐데... 벌써 몸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면 되겠나?》

《상혁동문 오늘 결산총회가 끝나기 바쁘게 뚝보수공사장으로 나갔답니다. 자긴 올해농사도 바로 못 지은데다 분조에 묵은 일감을 잔뜩 남기고 있는 빚진 몸이라며... 오늘 밤부터라도 보수공사를 시작해야겠다면 글썽 그런줄도 모르고 전 온델...》

《아니, 그녀석이 제 반장에게도 보고 안하던가?》

《창피해서 말 못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무슨 남자의 성격이 그런지...》

《허허허...》

태복은 웃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걸 모르고 상혁이가 어느 골방에 들어박혀 고민의 고배를 코물과 함께 들이키고있는줄로 근심했으니...

《잠깐 기다리게. 함께 가보세.》

태복은 대문안으로 성급히 들어갔다. 먼저 부엌에 들어간 그는 로친에게 보냈다.

생일상에 오르려던 설기떡이며 토끼고기가 꾸레미에 채워졌다. ...

언제 구름이 끼였는지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흰눈덮인 들판은 흰했다.

태복은 량손의 짐이 느껴지지 않는듯 기운차게 걸었다. 빠그극 빠그극... 눈발히는 소리도 기분 좋게 들렸다. 한쪽짐은 화옥이와 맞들어서 그리도 가락맞는지도 모른다.

《화옥아, 너랑 너의 아버지랑 정말 고맙다. 우리 상혁이를 제때에 비판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도 이 땅을 속이고도 모르는 한심한 놈이 되었

을게다.》

《아니예요. 저— 그건 상혁동무가 이번 결산총회때 부끄러운 자기 행동들을 공개해달라고 어제 저에게 부탁했던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저의 입으로야 어디 차마...그래서 아버지를 부추기게 됐지요.》

태복은 놀라왔으나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교훈이 없구야 발전 못하지. 더구나 우리의 목표는 원대하니까. ...

낮익은 포전길을 밟으니 감회도 새롭고 별로 자랑스러워지기도 했다.

《이 포전들은 내가 처음 분조장을 시작할 때부터 걸터놓은 땅일세. 그때도 젊은이들이 술한 수고를 했지. 낮일을 끝내놓고는 밤엔 밤대로 노래 부르며 집단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했어. 논과 밭을 개간하고 제방뚝도 쌓았어. 그전에 경흥천이 저기로...》

한곳을 가리키던 태복이의 팔이 문득 굳어졌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무수한 화불들이 움직이고있었다. 마치 대지가 살아움직이는것 같았다. 순간 태복은 심한 충격을 느꼈다. 화불들이 오르내리는 저 뚝은 바로 내가 분조장을 할 때 쌓았던 제방이 아닌가. 왜 저 자리만 자꾸 터질까? 십년전 홍수때에 제일 크게 터졌던것 같다. 거의 팔십여메터 구간이 터졌었다.

관개건설사업소를 눈 먼 욕질하며 기다릴수는 없었다. 하여 립시조치로 주변의 자갈모래로 보강했었다. 그때 관리위원장이였던 한태복은 농작물이 한창 이삭패는 시기인지라 초벌손질이나 대충 해놓고 농병기가 지나가면 강력한 기계수단들과 로력을 들이밀어 다시는 손대는 일이 없게해놓으리라 계획했었다. 그러나 기름사정과 함께 여러가지 긴급한 일이 많이 제기되다나니 언제 째미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장마철이 박두해서야 급한 대목을 땀때는 식으로 보강해왔다. 그나마 그럭저럭 별일없이 몇해를 넘기는 과정에 점차 잊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년로보장을 받고 나았은 지금에 와서 일을 친것이다. 후대들에게 좋은 땅을 넘겨주었던 자부가 줄지에 허풍이 되어 배를 짹 채우는것 같다. 바로 이런 아버지때문에 아들이 그 대가를 치른것이다. 그보다도 나라의 쌀독이 손해를 본것이 제일 가슴아픈것이었다.

저 젊은이들이 그런 모래뚝을 쌓은 선대가 바로 나라는것을 안다면... 나를 과연 어떻게 대할가. ... 이제라도 속죄하고싶었다. ...

무거운 마음으로 청년들과 어울리려던 한태복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동지추위에 옷동을 벗어제끼고 남보다 두배나 더 큰 질통을 진 젊은이가 옆으로 썩하니 지나간다.

화불이 얼른거려서인지 바늘 들어갈 틈도 있을

것같지 않은 단단한 몸에서 단김이 확확 뚫겨나 오는것 같았다. 상혁이었다.

(고맙다, 상혁아. 내 뭉까지, 내 짐까지 너에게 걸머지운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어찌된것인지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아들도 인제는 다 아는것 같다. 대지가 어떤 사람에게 풍년을 주고 명예를 선사하는지... 아니, 이 젊은이들 모두가 그것을 알고있을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언제부터인지 하늘에서는 흰 눈송이들이 고요히 내리고있었다. 얼마 안있어 애기주먹만 한 함

박눈송이로 변하여 청춘들의 머리며 옷에 그리고 그들이 짊어가는 발자국마다 탐스럽게 내려앉는다.

하늘을 쳐다보던 한태복의 입이 저도 모르게 벅글서해졌다. 어릴 때 밤눈이나 도적눈이 자주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되살아나서였다.

(허허... 새해의 풍년눈이로군. ...)

한태복은 평평 쏟아져내리는 눈발사이로 아득하게 펼쳐진 농장벌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토스레웃

-계급교양관 진렬대앞에서-

유영하

눈비에 젖고
땀에 삭던 옷
꿀집에 헐고
채찍에 찢기던 토스레웃

할아버지 한숨에 날리고
아버지 설움에 얼룩지며
남의 땅에 뿌린 씨앗
남의 밭에 가꾼 이랑 그 얼마더나

가난에 짓눌리며
빛값에 뜯기우며
대를 두고 입고살던 토스레웃
저 옷센안에
머슴군의 증오가 움트고

부엌너의 분노가 자랐건만

수수천년
제손으론 벗어버리지 못하던 토스레웃
우리 수령님
백두산총대로 벗겨주시고
주인의 새옷을 입혀주셨거니

아 토스레웃
총대가 약하면
너를 다시 입고
머슴이 되여야 할 우리
어찌
백두산총대를 높이 들지 않으랴

가사

경기장의 예쁜이들

리명복

전화의 나날에만 예쁜이들 있었나요
행복의 나날에도 예쁜이들 있었다오
경기장을 달리는 여자축구선수들
장군님 사랑하는 예쁜이들 뻘다오

경기장에 나서면 승리만을 펼치는
조선의 여자선수 모두다 예쁜이들
장군님만 그리며 달리고달리며
장군님 사랑하는 예쁜이들 뻘다오

온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인물 잘난 예쁜이는 장군님의 딸
선군조선 영예 누리에 빛내여
장군님 사랑하는 예쁜이들 뻘다오

아, 전화의 나날에만 예쁜이들 있었나요
행복의나날에도 예쁜이들 있다오

이채로운 세부형상

-단편소설 《전우의 고향》을 두고-

전이련

단편소설 《전우의 고향》(백명길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7(2008)년 1호)은 이 땅위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운 1950년대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선군의 기상이 나래치는 오늘에도 또 래일에도 영원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활의 철리를 밝혀주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주제의 작품으로서 단숨에 재미있게 읽히우는 예술적흥미를 자아내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장칼이라는 하나의 세부를 두고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꼭 맞물려주고 이야기를 한곳으로 흘러가게 하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그리든 환경을 그리든 할 것없이 세부묘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형상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의 기본형태이지만 어떤 단편소설에서는 여러개의 세부를 인입하여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이야기를 끌고나가는가 하면(레컨대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에서 주인공인 기사장의 수첩세부며 제1직장장의 대형눈치개 세부 등) 단편소설 《전우의 고향》에서는 단편소설 《빨간 저고리》에서처럼 하나의 세부를 인입하여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즐기치게 이어나가게 하고있다. 일제시기 왜놈기술자밑에서 조력공노릇을 하면서 미장기술을 배우려고 그놈의 미장칼을 써본게 《죄》로 되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은 선옥의 아버지.

전쟁시기 주인공인 리범수의 전우인 림선준이 어릴적 이야기를 하면서 읍거리에 새 학교 교사건설을 할 때 부모들을 도우러 나갔다가 목욕을 하느라고 개울가옆에 미장칼을 뒀는데 집에 돌아왔다고 성이 나서 귀뺨을 때렸다는 아버지에 대한 회상.

《미장칼은 우리 건설자들에겐 손발이나 같은》 거라는 아버지말을 명심하고 적비행기 잔해에서 철판을 얻어내어 전투여가에 미장칼을 째짤이 만든 분대장 림선준과 그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며 전우인 리범수에게 이것을 동생 선옥에게 전해달라고 한 꼭진한 당부.

소설에서는 고향을 남반부 서울에 둔채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싸운 주인공 리범수가 어떻게 되어 전우의 고향인 운천군에 왔으며 전우의 녀동

생 선옥이가 고향을 뜨지 못하도록 하였는가 또 자기는 평양의 한 중앙병원으로 파송되어가던 도중에 이곳에 머물러있게 되었고 어떻게 선옥이와 결혼하였는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 미장칼세부 하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있다.

말하자면 미장칼세부 하나를 통하여 주요인물 림선옥의 부모들의 과거 피맺힌 원한도 이야기되고 있고 미제놈들과의 관가리싸움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도 반영되고 있으며 주인공 리범수와 《나》의 어머니 림선옥의 사랑으로 이어진 뜨거운 사연도 그려지고있다.

작품에서 이야기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장면은 오빠가 전사한 소식을 듣고 고향땅에 의지할 아무런 친척도 없다면서 길주에 사는 이모네 집으로 남몰래 떠나려는 선옥이를 두고 주인공 리범수가 호되게 질책하는데서 주어지고있다.

《가더라도 그 미장칼을 놓고 가시오. 동무는 오빠의 뉘이 깃든 미장칼을 받을 자격이 없소. 동무의 오빠는 미국놈들이 파괴한 고향땅을 보란듯이 꾸러볼 뜻을 안고 전투의 여가시간마다 그 미장칼을 만들었소.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그 미장칼로 고향땅을 더 잘 꾸러달라는 부탁을 남겼소. ...가슴속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박차고 일어날 대신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다니?!... 그래 고향을 뜨면 어디 가선들 마음이 편할것 같소?...》

그리하여 미장칼은 선옥의 손에서 다시 리범수에게 옮겨지고 며칠후 선옥이가 자신을 뉘우치고 제집으로 돌아오자 그 미장칼은 또다시 선옥에게로 옮겨진다.

작품의 시작이면서 후일담으로 주어지는 이야기도 미장칼을 두고 펼쳐진다. 《나》의 아버지(리범수)는 군건설사업소 지배인을 하다가 전쟁시기 입은 상처의 후환으로 일찌기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년로보장나이가 지나도록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나》가 건설대학 졸업후 세월이 흘러 이 사업소지배인이 되었을 때 빨간 비로도천으로 정히 쓴 미장칼을 내놓는다.

다 닳아서 식칼처럼 보이는 미장칼, 그러나 여기에는 미장칼의 의미가 너무나 깊다. 바로 여기에 하나의 세부형상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장구한 기간의 이야기를 끌고나갔으며 예술적흥미를 담보한 소설의 비교적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이 있고 작가의 깊은 탐구에 의한 예술적기교의 이채로운 자취가 깃들어있다.

소설에서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주인공의 호된 질책을 받은 주요인물 선옥이가 《아— 범수동지, 난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도 《운명의 벼랑끝에 선듯 한 절망어린 시선을 받더니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고 미장칼을 꺼내》 범수에게 넘겨주는 사실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는것이다.

오빠의 체취가 깃든 미장칼, 그것을 제손으로 범수(그때까지는 오빠의 전우일따름이다.)에게 쉽게 넘겨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선옥의 복잡한 심증을 지나치게 소홀히 묘사

한데 그 부족점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주인공 리범수의 형상을 통하여 지나간 1950년대 혁명의 전세대들이 모든 마음속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울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싸운 결사관철의 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을 뜨겁게 반영함으로써 선군시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주체의 작품창작에 귀중한 시사를 주고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소개

유스프 앓 시바이와 장편소설 《위선의 땅》에 대하여

유스프 앓 시바이(1917—1978)는 현대 에리트리아 사실주의문학발전에 가치있는 유산을 남겨놓은 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사회활동가로 널리 알려져있다.

유스프 앓 시바이는 195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제인민련대성기구의 총서기로 있었으며 문화상도 하였다.

그는 주로 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장편소설들인 《위선의 땅》(1949), 《우리는 외롭지 않다》(1969), 《생활은 순간》(1973), 희곡 《시간보다 더 강하다》(1966) 등이 있다.

유스프 앓 시바이는 인민을 위한 진보적인 사회활동과 사실주의적창작성으로 하여 1960년에 유리평화금메달을 수여받았다.

그의 창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있는 작품은 장편소설 《위선의 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 돈과 권세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 돈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사회이다.

작품은 1952년 독립전야 에리트리아사회에 만연되고있던 허위와 위선, 사기와 협잡 등 사회악을 폭로하고있다.

독립이전 에리트리는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로서 도시와 농촌 등 온 나라에 무권리와 빈궁, 사회악이 만연되고있었다.

농촌에는 중세기적인 봉건적토지소유제가 유지되고있었는데 이 나라 농촌인구의 약 3%밖에 안되는 중소지주와 부농이 전체 토지면적의 30%이

상을 차지하고있었다.

공업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공업은 보잘것 없는 수공업적정리에 기초하고있었고 공업로동자의 대부분은 값싼 소년로동자, 계절로동자로 이루어져있었으며 그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 로골화된 미제의 침략적인 예속화정책으로 하여 에리트리는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범죄의 소굴로, 토지기근지대로 전변되었다. 에리트리는 도처에 황금과 부정부패, 범죄와 말세기적풍조가 판을 치는 《위선의 땅》으로 변하였다.

작품은 독립전 에리트리아사회의 이러한 현실을 환상적형식을 통하여 폭로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보여주고있다.

빈민굴에서 살고있는 주인공 《나》는 어느 한 가게방에서 《정신적기질을 팝니다!》라고 쓴 간판을 보고 어떻게 정신적기질을 팔고 살수 있는가고 생각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한다.

정신적기질을 파는 사람은 나이 지긋한 늙은이인 하드취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갖가지 정신적기질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팔고있는데 거기에는 용감성, 성실성, 솔직성, 희생성, 참을성, 고결성도 들어있고 위선, 범죄, 사기, 협잡 등도 들어있었다. 그런데 용감성, 고결성, 성실성과 같은 약봉지는 팔리지 않고 위선, 범죄, 사기, 협잡 등이 들어있는것만 잘 팔린다. 현실은 이처럼 가혹했다.

하드취는 이러한 사회현실에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며 《나》는 이 《위선의 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겠는가에 대하여 깊이 사색한다.

작품에서는 아름다운 기질인 《용감성》과 추악한 기질인 《비굴성》, 《위선》이 대립되어있다. 여기서 우세를 차지하는것은 《위선》이다.

누구든지 《용감성》이나 《미덕》을 지향하면 탄압받고 멸시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깨닫지 못하고 《용감성》이나 《고결성》이 들어있는 약봉지는 사가지 않는다.

주인공 《나》는 이러한 모순된 사회현실을 비난하였다고 하여 반동경찰에 끌려가 죽도록 매를 맞는다.

작품은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왜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위선과 허위, 비굴성, 범죄로 가득찬 이 사회의 모순에 있다는것을 폭로하고있다.

《나》와 가계방주인은 《용감성》, 《성실성》, 《희생성》 등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강물에 풀어 사람들이 마시게 한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용감성과 미덕을 체현한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용감성과 미덕을 《독약》, 《전염병》으로 보면서 그것을 퍼뜨리는 《나》와 가계방주인을 《범죄자》로 체포한다.

악의 《전염병》과 선과 미덕의 《전염병》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예술적대조속에는 이 사회의 모순과 사회악이 뚜렷하게 드러나고있다.

《나》는 신의 《전염병》을 전파하고 악의 《전염병》을 근절하며 사회악을 뿌리채 드러내고야말 결의에 충만된다.

첫날 공판석에서 《나》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기의 견해와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부정으로 가득찬 사회악을 폭로하였으며 두번째 공판석에서는 《자유》에 대한 기만선전, 동족상쟁, 위선적이며 침략적인 대외정책 등 사회의 모순을 규탄한다.

소설은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죽음에 몰아넣는 사회악을 폭로하면서 그로부터의 출로에 대하여 깊은 사색의 나래를 펴고있다.

작품의 이러한 사상은 특히 감옥과 철창속에서도 굴함없이 사회적정의를 위하여 부정의와 투쟁을 계속하려는 주인공의 의지를 묘사하고있는데

서 뚜렷이 표시되고있다.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오는것은 그의 의지의 승리를 확증해주고있을뿐아니라 그의 운명의 출로를 뚜렷이 시사해주고있다.

가계방주인은 감옥에서 나온 후 이전날보다 더 떼떽하게 《용감성》의 약봉지를 버섯이 내놓고 판다. 그리고 그는 약을 파는데 그치지 않고 약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준다.

필요하고 귀중한 조언 그것은 에짚트인민들이 다 잘살게 되는 그런 평등하고 화목하고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한 조언이고 충고이며 교양이다.

소설은 예술적측면에서 환상적수법을 능란하게 쓰고있는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도저히 팔수 없는 사람의 정신적기질을 물건과 같이 팔고 사게 만든것은 어느 동화세계에 나오는 신비한 형상을 련상시킨다. 이것은 동시에 작품에 낭만적특징을 부여하고있다.

예술적특징의 다른 하나는 풍자적수법을 적중하게 쓰고있는것이다. 풍자적수법은 《용감성》, 《미덕》의 기질을 《전염병》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없애보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착취계급의 형상창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있다.

소설은 성격창조와 구성조직에서 일부 비약이 심하고 비진실한 결함을 발로시키고있다.

장편소설 《위선의 땅》은 착취사회의 모순을 풍자적이며 환상적형식을 통하여 폭로하고 그 출로를 시사한것으로 하여 에짚트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풍자소설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백호영